

2026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2026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책임 연구원
홍미희

공동 연구원
강혜란, 이미경

책임연구원 홍미희
공동연구원 강혜란, 이미경
발 간 일 2026.6.30
발 행 처 한국여성재단
<https://womenfund.or.kr>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책임 연구원: 홍 미 희

공동 연구원: 강 혜 란

이 미 경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2
3. 연구방법	4
4. 연구수행 절차	7
제2절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과 분석틀	9
제2장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추진 환경	13
제1절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과 정책·정치환경	13
1.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	13
2. 성평등정책의 전개와 변화	15
3. 백래시의 부상과 정치환경의 변화	17
제2절 여성운동의 지형과 주요 이슈	20
1. 여성운동 주체의 다변화	20
2. 성평등·여성운동의 주요 의제: 폭력·재생산권·돌봄·교차성	22
3. 제도화 성과와 제도화의 역설: 여성운동의 활동 조건	29
제3절 소결: 함의와 시사점	33
제3장 여성재단 배분사업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	35
제1절 한국여성재단 배분사업의 전개와 현황	35
1. 배분의 방향과 원칙	35
2. 배분사업 범주와 자원	39
3. 배분사업 규모와 내용	41

제2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흐름과 개요	47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세부 구성내용과 추이	48
2.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의 주요 내용	64
제3절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76
1. 사업개요 및 배경: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개입	76
2. 세부사업별 지원 현황	77
3. 사업의 의의와 시사점	81
제4절 소결	82
 제4장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84
제1절 성과: 실천의 재구성을 통한 변화의 경로들	84
1. 성차별적 언어·인식·문화의 전환	84
2. 법·제도·정책의 변화	96
3. 변화 주체의 형성과 확장	101
4. 변화의 경로에 대한 종합 분석	120
제2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이슈와 개선과제	126
1. 사업의 정체성과 철학	126
2. 사업 규모의 축소와 기금조성의 구조적 한계	128
3. 사업 구조와 운영방식	131
4. 현장의 요구와 기대	137
제3절 소결	144
 제5장 결론	146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46
1. 백래시 시대, 여성운동의 변화한 활동 조건	146
2. ‘변화 인프라’로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거둔 성과	147
3. 자원기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운영의 쟁점	148

제2절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제언	150
1. 자원기반의 확충: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기금 조성	150
2.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 기반 강화	151
3. 신뢰에 기반한 지원 원칙의 실현	151
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재구성: 연계성과 다층적 설계	152
참고문헌	153

표 목 차

<표 1-1> 심층 인터뷰 대상별 주요 특성	5
<표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6
<표 1-3> 변화이론 기반 분석범주와 점검 포인트	12
<표 2-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의 변화(2023~2026)	17
<표 3-1> 한국여성재단 배분사업 범주와 재원(2000~2006)	39
<표 3-2> 배분사업의 종류	40
<표 3-3> 배분 사업 관리 범주 변화	41
<표 3-4> 연도별 배분총액 및 전체 프로젝트 수(2002~2025)	42
<표 3-5> 여성재단 지원사업 현황(2026년 2월 기준)	43
<표 3-6> 여성재단 정기신청공모와 수시신청사업(2002~2009)	48
<표 3-7>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규모(2010~2014)	50
<표 3-8> 기획공모 주제(2011~2014)와 지원사업 내용	50
<표 3-9> 공모분야별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	52

<표 3-10> 연도별 지원사업 수 추이와 비중	53
<표 3-11> 공모 범주별 사업분포(2014~2025)	54
<표 3-12> 파트너 단체 지역별 분포	55
<표 3-13> 지역별 분포 비교	56
<표 3-14> 연도별 사업영역별 사업분포(2014~2025)	57
<표 3-15> 사업대상별 사업분포	60
<표 3-16> 활동방식별 사업 분포(중복집계)	61
<표 3-17> 공모분야별 활동방식 분포(빈도 및 비율)	62
<표 3-18> 연속사업 수	64
<표 3-19>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자유주제 공모사업	65
<표 3-20> 지정주제 공모사업(2014~2025)	68
<표 3-21> 2018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기획공모 사업	70
<표 3-22> 2018년 미투운동 지원사업	70
<표 3-23> 신생단체 지원과 차세대여성운동 지원 사업(2015~2025) ..	72
<표 3-24> 수시신청사업(2015~2025)	74
<표 3-25>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세부사업 개요	77
<표 3-26>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수(2023~2026)	77
<표 3-27> 여성운동 지원단체 및 사업	78
<표 3-28> 코어지원사업 지원단체 및 지원영역	79
<표 3-29> 콜라보지원사업 지원팀 및 주제	79
<표 4-1> 공모사업별 신청단체 수 대비 선정단체 수(개, %)	12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8
<그림 3-1> 한국여성재단 연도별 배분총액 및 전체 프로젝트 수 (2002~2025)	43
<그림 3-2> 정기신청공모사업 지원규모(2002~2009)	49
<그림 3-3> 연도별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액 추이(2014~2025)	53
<그림 3-4> 공모 범주별 사업분포(2014~2025)	54
<그림 3-5> 수행단체 지역별 분포 비교(2002~2013 vs 2014~2025)	56
<그림 3-6> 사업영역별 분포(2014~2025, N=212)	58
<그림 3-7> 사업대상별 사업분포 (전체212개 사업, 2014~2025년)	60
<그림 3-8> 공모분야별 활동방식 비율(중복집계, %)	62
<그림 4-1> 신청 및 선정 현황(2014~2025)	12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이하 여성재단, 재단)의 핵심 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 고유 핵심목적사업” 혹은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 고유목적사업”(한국여성재단, 2013)으로 정의하고, 정기 배분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70개 지원사업, 약 4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재단은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연구(김경희·신경아, 2014)를 통해 이 사업이 갖는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신생 여성단체의 육성, 국내외 여성단체 네트워킹 활성화, 세대간의 소통활성화 및 회원 재생산, 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운동의 영향력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업의 미래 발전 방안으로 여성주의, 성평등을 표방하는 단체에 대해 우선지원, 기획공모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주제 제시, 정부의 보조금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규모 단체나 신생단체를 지원할 것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은 상당 부분 이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전 연구분석 시점 이후인 2014년~2025년까지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를 재점검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성평등, 여성운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1) 연구 대상과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여성재단 배분 사업 중 특정 지원 프로그램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단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매년 추진하는 재단고유의 정기공모사업이다.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영리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사업기금은 모금캠페인과 연중 정기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즉,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재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재단 대표사업으로 일컬어진다. 한국여성재단의 정체성은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으로 “한국여성재단의 미션은 대중모금과 배분을 통해 여성운동 단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혜경, 2020)이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재단의 모금 성과와 지원 성과가 단위사업 전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방식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기금을 마련하는 여타의 배분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모금 기반 사업은 재단고유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규모와 사업 내용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해왔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가 쉼과 재충전을 지원한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석사과정’, ‘공간개선 사업’ 등은 모두 기업 CSR을 확보해 장기간 펼쳐온 사업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재단과 파트너십을 통해 여성운동 생태계 활성화나 젠더폭력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양적으로 확장할 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과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¹⁾ 특히 샤넬재

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3년에 걸친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Brave Changes’ 사업은 백래시로 인한 여성운동 위기 상황에서 단체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여 여성운동이 지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Brave Changes’ 사업은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 점에서도 혁신적이었으므로, 사업을 통해 확인된 성과는 향후 여성재단의 지원사업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rave Changes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선행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2002-2013년) 이후, 즉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원사업들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이 변화나 시기별 비교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이전 시기 사업도 포함시켰다.

2) 주요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추진 환경: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규정하는 성평등 환경은 어떠한가? 여성운동은 어떠한 조건에서 활동하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가?
-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운영되어 왔는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운영원칙과 사업구조, 지원추이, 지원내용, 지원 특성 등의 전체 배분사업 체계 내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의의는 무엇이며, 운영원칙과 사업구조, 기금조성 방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지원 추이,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지원 특성 등 양적 성과는 어떠하며, 사업이 여성운동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질적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개선점과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1) 한국여성재단은 2022년부터 샬레재단의 후원으로 ‘Brave Changes-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여성운동지원, 여성단체 코어지원사업, 콜라보지원사업을 3년간 10억 규모로 지원하였다. 케링재단은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활동형 사업과 콘텐츠 제작형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약 3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재단의 대표적 배분 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문헌 및 원자료분석, 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및 전문가 회의이다.

1) 문헌 및 데이터분석

한국의 성평등 현실과 여성운동의 지형 및 이슈에 관한 논문과 인터넷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2014년에서 2025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총 212개 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평가서를 분석하였다. 재단의 연도별 지원사업 DB 분석, 이사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배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였다. 재단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운영 방침 및 운영방침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을 파악하였다.

2) 심층 인터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파트너단체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사업참여 경험, 단체 운영현황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 사업 참여횟수, 지원범주 및 사업주제를 다양하게 고려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 단체는 수도권 외에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소재 단체들을 포함하였다. 2015년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범주는 자유주제, 지정주제, 신생·차세대, 수시로 나누어 운영된 점을 고려하여, 지원범주와 사업 주제를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별도의 지원 범주로 신설된 신생 및 차세대 그룹을 다수 포함하여, 신생단체 및 차세대 그룹의 발전과정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단체 일반 현황,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배경과 주요 성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및 이슈, 사업 이후의 단체와 활동가 변화 및 재단에 대한 기대 등이었으며, 세부 질문은 단체의 성격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변

주하였다.

개별 단체 인터뷰는 주로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었으며, 사무실이 없는 경우 재단 공간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실시되었다. 이전에 사업 담당자였거나 혹은 기관책임자 지위를 가진 사람과 1:1 혹은 1:2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2025년 12월~2026년 2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표 1-1> 심층 인터뷰 대상별 주요 특성

사례번호	참여자 역할	단체지역 (권역)	사업참여연도	지원범주 및 주제	사업영역
사례1	공동대표 2인	충청	2018	차세대	성평등문화
사례2	대표	수도권	2023, 2024	차세대	인권복지
사례3	사업담당	수도권	2015, 2018, 2019	자유주제(연속)	인권복지
사례4	사업담당	강원	2021	지정주제(폭력)	젠더폭력
사례5	사업책임	수도권	2017, 2020, 2021, 2023	지정주제, 자유주제(연속)	젠더폭력
사례6	사업담당	호남권	2016, 2017, 2018, 2020	신생, 자유주제	성평등문화
사례7	이사장	호남권	2023, 2024	신생(연속)	성평등문화
사례8	전 대표	수도권	2020, 2021	신생(연속)	여성운동
사례9	대표	수도권	2015, 2016, 2025	자유주제	고용노동
사례10	비상근 활동가	수도권	2017	차세대	여성운동
사례11	전 팀장	수도권	2014, 2020, 2021	자유주제, 2년 연속사업	젠더폭력
사례12	대표	수도권	2016	신생,	여성운동
사례13	비상근 활동가	수도권	2016, 2017, 2018, 2020	자유주제	성평등문화
사례14	전 사무처장	수도권	2015	자유주제	글로벌
사례15	집행위원장	수도권	2017, 2018, 2019, 2020, 2023	자유주제/수시	성평등문화
사례16	사무국장, 대표	수도권	2016, 2017	자유주제	인권
사례17	대표	영남	2014, 2016, 2018, 2019, 2020, 2022	자유주제	성평등문화

3)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자문회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파트너단체와 재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총 3회 진행되었고, 연구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파트너 단체들은 5회 이상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했고, 상근자 규모도 6인~18인으로 여성운동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단체들이다. 이들은 재단의 배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사업의 미래 운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4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단체 및 여성운동 현황, 재단 지원사업 경험, 재단 지원사업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 등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재단 사업의 기획, 운영 및 관리, 선정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재단 활동가와 배분위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업의 기금조성과 사업관리 과정을 통해 기획방향이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였다.

<표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사례번호	단체/소속	직책/직위	사업참여연도	인터뷰날짜
사례18	단체 A	대표	2015, 2016, 2018(2회), 2021, 2022	2026.3.13
	단체 B	대표	2014, 2016, 2018(2회), 2019, 2022(2회), 2023(2회), 2024, 2025	
	단체 C	대표	2015, 2016, 2019, 2021, 2022(2회), 2025	
	단체 D	사무처장	2014, 2018(2회), 2019, 2021, 2024	
사례19	재단 담당자 A	나눔기획팀장	-	2026.4.1
	재단 담당자 B	지원사업팀장		
사례20	배분위원 A	(현) 배분위원	-	2026.4.14
	배분위원 B	(전) 배분위원		

사업선정 및 평가에 참여한 배분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였다. 사업 선정기준 및 운영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향후 발전적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자문회의는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해 전반적인 보고서 구성과 발전 방향 제언에 반영하였다.

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하고, 녹취한 후 텍스트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사례 1>, <사례 2>와 같이 표기하였다.

4. 연구수행 절차

위에 기술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연구의 흐름과 결합해서 연구 수행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연구흐름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 설계 - 연구의 목적 - 연구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선행연구 및 사업 현황 분석) - 착수회의/ 연구진 회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추진환경 분석	성평등 현실과 정책 및 정치환경 - 성평등 현실에 대한 분석 - 성평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 여성운동 지형과 주요 이슈 - 여성운동의 지형 - 주요 여성운동 이슈	- 통계자료 분석 - 선행 연구 및 논문자료 - 정책자료 및 인터넷 자료 등 분석
여성재단 배분사업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석	- 여성재단 배분사업의 전개와 배분추이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운영방식과 지원규모 분석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특성(지역별, 주제별, 사업대상별 분포 등) -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재단 내부 자료 분석: 지원 사업 DB 분석,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배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분석
성과와 개선과제 분석	- 여성재단 지원사업 성과 분석: 변화의 양상과 변화경로들 -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분석	- 지원사업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서, 재단 자료집 분석 - 인터뷰 자료 분석
발전방향 도출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제언 도출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2절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과 분석틀

선행 연구(김경희·신경아, 2014)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관리 분석틀로 계획, 수행, 평가의 3단계 구조를 적용하여, 각 단계별 점검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계획단계: 젠더 이슈 발굴, 사업 방법 설정, 단체의 조직 역량
- 사업수행: 네트워크 활용, 지역사회와의 소통, 홍보
- 사업평가: 후속사업 계획, 네트워크 확대, 사업의 지속성

이 분석틀은 투입(계획), 과정(수행), 산출 및 파급 효과(평가)를 개별 파트너 단체의 사업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개별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

이 분석에는 한국여성재단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전반을 어떻게 기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업 결과들을 평가, 환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즉 재단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개별 지원단체의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모금캠페인 기획과 모금 과정이라는 재단의 활동에서 시작되며, 재단의 활동은 특정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재단의 활동과 재단의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성고를 평가할 수 없으며, 사업성고는 개별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재단활동과 파트너단체 활동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참여자는 기부자, 재단, 파트너 단체, 개별사업 참여자 등으로 다층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경로는 복잡적이다. 또한, 특정 성과를 시간의 흐름에 단선적으로 배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전 분석틀에서 계획단계에 배치한 ‘젠더이슈발굴’이나 ‘단체의 조직역량’은 최종 성과물의 형태로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비영리사업의 계획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에 기반한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변화이론은 특정 맥락 안에서 원하는 장기적인 변화(Impact)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도식화한 인과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Center for Theory of Change, 2026). 앤더슨(Anderson, 2005)은 변화이론을 특정 맥락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그것이 효과적인지를 설명하는 결과 경로 지도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조직이 자신의 활동과 사회적 변화를 연결하는 논리를 명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변화이론은 통합적인 정의나 논리체계에 기반하기보다는(박수영·김수진, 2015)²⁾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활동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변화의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 간 인과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Rogers, 2014). 변화이론이 ‘활동과 성과(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분석 요소들은 사회적 맥락, 투입, 활동, 산출, 성과(단기, 중기, 장기), 변화에 대한 가정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분석 연구에 적용하여 점검해야 할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사업의 맥락: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전개되었는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급변하는 성평등 환경과 여성운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없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성과 분석을 위해,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운동의 지형과 주요 이슈 등을 점검한다.

(2) 투입(Inputs): 재단이 사업에 투입하는 자원으로, 모금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사업기금(개인기부금), 기부자 네트워크, 배분위원회 및 전문가 자원, 사업 운영 역량이 포함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기업 CSR이 아닌 시민 개인의 기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재원 구조를 가지며, 이는 재단의 공익성과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핵심 투입 요소이다. 점검포인트는 투입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투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요인들이다.

(3) 활동(Activities): 재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활동으로, 공모 기획 및 선정(정기 자유주제 공모, 수시공모), 선정위원회 운영, 파트너 단체 지원 및 모니터

2) ToC 자체도 변화이론, 변화방법론, 변화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변화이론을 정의하는 방식도 학자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ToC에 대한 합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링, 성과 공유·확산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등), 기부자 소통 활동이 포함된다. 활동 단계에서는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젠더 감수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이 핵심 점검 요소이다.

(4) 산출(Outputs): 사업 활동의 직접적 결과물로, 지원 단체 수, 지원 금액, 지원 이슈·주제의 다양성, 지역별 분포, 지원된 프로그램 수 등이 포함된다. 산출 지표는 사업의 도달 범위와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5) 성과는 단기성과(Short-term Outcomes)와 중기성과(Intermediate Outcomes)로 구별된다. 단기성과는 재단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활동가와 파트너단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즉각적 변화로, 참여자 역량강화, 이슈 발굴 및 사업화 역량 향상 등 활동가 역량강화, 단체의 운동 지속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 이슈별 네트워킹 경험 등이 포함된다. 중기성과는 단기성과가 축적되어 여성운동 생태계와 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신생·소규모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속, 여성운동 주체의 재생산, 젠더 의제의 사회적 담론화 및 확산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는 개별 단체를 넘어 여성운동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단 지원의 영향을 포착하는 핵심 성과 층위라 할 수 있다.

(6) 장기 영향(Long-term Impact):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장기적 사회변화로,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개선, 성평등 인식의 사회적 확산, 여성인권 신장 등이다. 장기 영향은 단일 사업의 효과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여성운동 생태계 전반의 지속적인 활동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원사업의 중단기 성과가 장기적 임팩트와 연결되는 경로를 보여주고자 한다.

(7) 핵심 가정(Key Assumptions): 변화의 경로를 추적, 평가하는 과정에는 활동가나 평가자의 현실인식에 대한 다양한 가정(Assumption)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을 명시화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실제 사업 맥락에서 유효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포함된다. ① 재단의 자원 지원이 여성단체의 활동 지속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가정, ② 지원을 받은 여성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사회로

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가정, ③ 재단과 여성운동단체는 성평등사회실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재단은 여성운동의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 ④ 재단의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충분한 공정성과 성 인지 감수성을 담보한다는 가정 등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지가 점검포인트이다.

이러한 분석범주와 점검포인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변화이론 기반 분석범주와 점검 포인트

분석 범주	점검 포인트 및 분석 내용
사회적 맥락	-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기획, 운영되는가? 성평등 환경은 어떠한가, 여성운동은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이슈를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가? 여성운동의 지형과 활동 여건은 어떠한가? -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변화하는 정치환경과 운동지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 왔는가?
투입 및 활동	- 재원의 양적 규모는 충분하고 배분계획은 타당한가? - 사업구조와 운영방식(제도적 설계의 적합성)은 적절한가? - 사업 기획 및 관리역량은 적절한가?
산출 및 도달 범위	직접적인 배분결과(지원규모, 지원단체 수, 수혜 범위, 지원 이슈 및 지원 분야 등)는 무엇인가?
성과와 개선과제	- 지원사업의 성과는 무엇인가? 지원사업을 통해 어떠한 성평등사회로의 변화 경로들이 발견되는가? - 변화의 지점들(nodes)은 어떻게 연결되어 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하는가? - 성과를 촉진하는, 혹은 가로막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핵심 가정들에 대한 검토	- 재단과 파트너 단체들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가? - 현장의 수요는 지원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 배분의 공정성(선정위원 구성, 선정절차 및 기준 검토 등)은 담보되고 있는가?

제2장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추진 환경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과 여성운동의 지형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획·운영되므로, 사업의 특성이나 성과는 사업규모나 설계 그 자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떤 운동과 만났는지에 의해 함께 규정된다.

이 장에서는 2014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시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놓여 있던 사회적 맥락을 두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과 정책·정치환경을, 제2절에서는 여성운동의 지형 변화와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이어 제3절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제1절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과 정책·정치환경

1.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

2014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시기 통계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은 부분적인 개선과 지속되는 성별 격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과 변화추이를 정부가 공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성별 격차는 점진적 개선과 지속되는 격차 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2024년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6.3%, 남성 72.9%로 16.6%p 차이를 보이며, 이 격차는 2010년의 23.6%p에서 7.0%p 좁혀졌다. 15~64세 고용률의 성별 격차도 2010년 21.3%p에서 2024년 14.7%p로 축소되었고,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53.0%에서 2024년 73.5%로 20.5%p나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양적으로 분명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용의 질에서 보면 격차는 여전히 견고하다. 2024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363원으로 남성(28,734원)의 7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0년 61.6%에서 9.3%p 개선되긴 했으나, 30%에 가까운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 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 47.3%, 남성 30.4%로 여성이 16.9%p 높은 상황이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24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은 약 4,299만 원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약 8,185만 원)의 52.5% 수준이며, 순자산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가 약 2억 6,767만 원, 남성 가구주 가구가 약 5억 1,175만 원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사결정 영역에서도 일부 지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6.3%로 2015년 12.1%에서 14.2%p 증가하였고, 5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34.6%로 같은 기간 23.0%p 상승하였다. 2022년 제8회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 비율은 30.3%로 2010년(20.3%)에 비해 10.0%p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위직에서의 성별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여성 장관은 3명(18.8%)으로 전년 대비 7.5%p 감소하였고, 2024년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도 견고하다. 2023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7,752건으로³⁾ 2015년(30,560건) 대비 23.5%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은 36,577명으로 같은 기간 34.8% 증가하였다(성평등가족부, 2025).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2023년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13,921명으로 2017년 대비 22.3% 증가하였고,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검거 인원은 2022년 9,999명에서 2023년 11,382명으로 13.8%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검거 인원도 2023년 55,176명으로 2015년 대비 16.1% 증가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더 극적이다. 2023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8,004건으로 2015년(1,130건)의 약 7.1배에 이르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범

3) 여기서 발생 건수는 경찰에 신고된 건수를 의미하며 실제 발생 건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같은 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37,171건(e-나라지표)이고, 상담이나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식 통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죄 발생 건수도 1,674건으로 2015년(644건) 대비 약 2.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의 증가는 한편으로 신고와 적발의 적극화라는 사회적 가시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환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욱 다층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확장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나,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인용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4년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일 평균 2시간 51분, 남성은 59분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3배에 가까운 시간을 가사·돌봄에 쓰고 있다. 2019년 대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6분 감소하고 남성은 5분 증가하여 격차가 일부 좁혀졌지만, 절대적 격차는 여전히 견고함을 알 수 있다.

2. 성평등정책의 전개와 변화

2014년~2025년의 시기는 성평등정책 환경이 큰 폭으로 변동한 시기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여성 고용률 60%’ 목표를 내세우며 일·가정 양립을 중심에 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시행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정책 기조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력 활용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성평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닌 ‘도구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배은경, 2016).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미투운동의 정치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출범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성평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 책임 강화 등 입법적·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생산권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공백은 7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스토킹처벌법과 2023년 스톱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은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여성운동이 요구해 온 여성폭력 대응이 국가책임으로 제도화된 성과이다. 이러한 법제정 과정에서 여성단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성주의 학자들의 참여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김경희, 2006: 20; 장다혜, 2024: 124).

윤석열 정부(2022~) 출범 이후 성평등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성폭력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온 반페미니즘 정서 및 젠더 갈등 담론과 결합되면서 일부 청년 남성층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 결국,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본격화하였다.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족지원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 등의 예산도 잇따라 삭감 또는 통합되었다. 일례로 2023년에는 정부 지원 예산 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비, 성인권교육 운영비 등 약 4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약 81억 원이 부분 삭감되었다(김혜정·송란희, 2023).⁴⁾

2023년 하반기에 지난 24년 동안 여성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19개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2024년부터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공적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이후 새 정부는 다시 2026년 예산에 민간위탁 병행을 위한 예산을 다시 배정해 현재 총 19개 센터 중 민간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평등 상담체계의 급격한 전환은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상담 접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구조적 혼선을 초래하였다⁵⁾.

4) 이처럼 대국민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주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투자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혜정·송란희, 2023:18).

5) 그동안 민간 상담소는 상담뿐만 아니라 의견서 작성, 조사·재판 동행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체적 문제 해결을 주되게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축적된 경험과 젠더 감수성 기반의 지원 방식은 정부의 민간 역할 축소로 인해 공적서비스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에 초점을 둔 정책 의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여성운동의 핵심 입법 의제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정권교체에 따른 성평등정책의 부침은, 한국의 성평등정책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며 정치적 변동에 따라 비교적 손쉽게 흔들릴 수 있는 영역임을 드러낸다. 한국의 성평등정책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입법화 운동을 통해 빠르게 확장되었지만, 그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행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합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3. 백래시의 부상과 정치환경의 변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그에 대한 강력한 백래시(backlash)의 동시 부상이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대중화되자, 일부 청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역차별 담론과 반페미니즘 정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젠더 백래시 현상이 가시화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주체들에게 이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외, 2023). 현재도 노동부에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간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경직된 운영방식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여성노동연대회의, 2025).

<표 2-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의 변화(2023~2026)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운영 현황	정상운영	전면폐지	재도입 준비	재도입
운영 규모*	19개소	-	-	9개소
정책 기조	접근성 확대	축소·후퇴	구조 재검토	선별적 운영
운영 구조	민간 중심	민간 역할 사실상 중단	재구조화 논의	노동청-민간 연계
상담 접근성	접근성 높음	지원 공백 발생	지원 공백 지속	부분 회복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2026.1.8), 공고(2026.2.24.) 및 언론보도(연합뉴스, 2026)를 종합하여 재구성함

* 주 : 운영규모의 2024~2025년 공백은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 중단을 의미함.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제대군인의 군가산점제도가 논쟁으로 재점화되면서, 병역 보상의 필요성을 여성의 권리 확대와 대립시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 남성들에게 군 복무는 시간과 기회의 손실로 인식되면서, 성차별 해소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성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특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김엘리, 2021: 10).

또한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일부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여성들이 남성을 집단적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여성 피해자만을 과장해 언급하면서 정책 보호의 대상으로만 자리매김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김수아, 2021: 228).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안은 젠더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반페미니즘 담론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은 성평등 담론의 재구성과 후퇴로 이어졌다. 정책의 명칭, 목표, 대상 설정 등에서 ‘여성’이 삭제되고 보다 중립적이거나 완화된 표현이 채택되거나, 기존 정책의 방향이 수정·삭제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이라는 표현 대신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례와 정책 명칭을 수정하였다. 이는 성평등정책을 구조적 차별 해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성별 간 기계적인 숫자 균형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정책에서는 여성의 권리 확대보다 저출생 대응과 가족 기능 강화가 강조되면서, 성평등정책의 초점이 구조적 성차별 개선에서 가족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정치세력은 젠더 갈등 구도를 선거 전략으로 채택하는 등 정치적으로 동원하였다(신경아, 2023: 142; Jung, 2024).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우익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려는 흐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맨inge이지, 2024: 25). 또한 남성성의 정치경제학적 변화는 많은 사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남성의 상실감을 만

들어냈지만, 이는 페미니스트에 의한 사회 변화의 결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사회관계 재편의 결과(맨인게이지, 2024: 19)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백래시 환경은 여성운동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성평등 의제를 지지하는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젠더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담론의 확산은 이후 국가 성평등정책 기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및 활동가가 온라인 공격과 신상 노출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운동이 자원을 동원하고 의제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지므로, 백래시에 대항하는 활동 자체가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제2절 여성운동의 지형과 주요 이슈

1. 여성운동 주체의 다변화

2014~2025년 시기 여성운동의 지형은 새로운 운동 주체가 등장함으로써 운동주체가 다변화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한국 여성운동을 이끌어 온 기존 여성 단체와 함께, 청년 여성, 1인 활동가, 온라인 기반 느슨한 활동 그룹 등 다양한 운동단위가 등장하여 전체적인 운동 지형을 확장하였다.

1) 온라인 기반 페미니즘의 확산과 새로운 주체의 등장

2014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은 주체와 활동방식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분기점은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로 일컬어지는 2015년 전후의 흐름이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일명 '페미니즘 리부트'는 새로운 운동 주체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희정(2015: 14)은 “2015년, 페미니즘은 리부트되었다”고 선언하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개된 새로운 흐름을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2월 트위터(현 X)에서 전개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이 운동은 ‘IS보다 무녀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여성혐오적 칼럼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물과 리트윗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당시 개인들의 일상 속에 쌓여 있던 성차별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봇물 터지듯 모여들게 했으며,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실천은 페미니즘 대중화의 시발점이 되었다(이민주, 2025: 54).

이러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운동 주체의 전환이었다. 기존 여성운동이 단체와 조직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는 개인 단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운동의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익명 게시판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참여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도 운동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각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이는 기존 조직 중심 운동보다 빠른 확산과 높은 참여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활동가’와 이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다. 불꽃페미액션, 디지털성폭력아웃(DSO), 페미당당, 페미디아, 강남역 10번 출구 등의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크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형태로 활동했다. 이는 기존의 조직 중심 운동이 가지는 안정성과 지속성 대신, 유연성과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운동 방식의 변화와 세대·의제의 재구성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에 급증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담론의 확산은 새로운 세대의 문제의식을 촉발하였다. 이들은 기존 여성운동과는 다른 방식의 참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운동의 방식도 기존의 법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요구와 거리 집회 중심에서 벗어나, SNS를 활용한 해시태그 운동과 디지털 공론장 형성 등 새로운 실천 방식이 등장하였다.

점차 이들은 온라인에서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동을 했다. 대표적으로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대응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 폭력을 두고 여성과 남성사이의 젠더 감수성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며 페미니즘 의식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온라인에서 진행되던 여성혐오 논쟁은 현실에서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묻는 집회로 확장되며 크게 가시화되었다(박진술, 2022: 3). 많은 참여자들은 “내가 당신일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동일시했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었던 3만 7천여 장의 포스트잇은 젠더폭력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분노, 바람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이는 젠더폭력에의 대응이 피해자나 활동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해화역 시위는 디지털 성폭력과 편파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젊은 여성들이 대규모로 집결한 사건으로, 온라인 기반 여성운동이 오프라인 대중행동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의제 측면에서도 기존 여성운동의 법·제도 개선을 넘어 일상적 성차별, 문화적 재현, 언어와 감정의 문제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특히 개인의 경험을 공적 의제로 전환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 등이 사회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제도 중심 운동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들 역시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더욱 확산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논의는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강예원, 2019: 23~24).

한편 미러링 운동 방식이나 해화역 시위에서의 급진적 용어 사용은 기존 여성운동과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투운동이나 ‘낙태죄’ 폐지 운동 등에서는 상호 협력하며 연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페미니즘 리부트는 한국 여성운동의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성평등 담론의 확산과 운동 방식의 다양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 성평등·여성운동의 주요 의제: 폭력·재생산권·돌봄·교차성

주체의 다변화와 함께 여성운동의 의제도 다양해졌다. 2014~2025년의 여성운동 의제는 #미투, 디지털 성폭력, 재생산권을 둘러싼 논쟁, 차별금지법과 교차성 등으로 확장되었다.

1) #미투운동과 젠더폭력의 공론화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단 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은폐되어온 구조를 가시화하였다(참고문헌없음 준비팀, 2017: 6).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이어, 여성문인 138인은 명단을 공개하며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하였다. 이

는 이후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8년, 한 검사의 미투 고발은 공개적인 ‘말하기(speak-out)’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권력관계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2017년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제적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미투운동은 정치권,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쿨미투는 ‘가해자 어른들로부터 보호해 줄 또 다른 어른을 찾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으며(주리, 2018: 64), 학교 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한 학교의 폐쇄성과 학내 권력 구조를 문제시하였다.

특히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말하기와 연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동시에, 기존 언론과 제도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젠더폭력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투운동은 그동안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해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미투는 개인의 경험을 집단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자,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운동에서는 전국 350여 개 단체가 연대하여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 행동”을 조직하고, 피해자 지원 및 국가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2018년을 맞아 2018분 동안 광장에서의 피해자 이어말하기를 진행하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은 피해자의 몫이 아니라, 가해자의 몫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일부 #미투 사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사법절차를 다각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했다. 한 정치인의 비서 성폭력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광장에서의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을 지속했다.

#미투 참여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

들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jtbc 뉴스룸, 2018) 등의 메시지를 통해 상호 간의 응원과 지지를 나눴다. 시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드유(With you)’와 같은 지지 표현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대에 동참하였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사회 전반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실정법이 규정하는 ‘성범죄’의 범주를 넘어, 남성 중심적 조직과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이 경험해온 다양한 차별과 불의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미투운동이 일상적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 확산 양상

디지털 성폭력은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이는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OECD(2025)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5G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⁶⁾, 이러한 초고속 디지털 환경은 플랫폼 기반 온라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의 생산·유통·재생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스토킹, 불안 피해, 합성편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6: 12)에서는 10,637명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며,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은 약 32만 건에 달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이 단순한 일회성 범죄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포·재생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처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디지털 성폭력

6) OECD(2025)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전 지역에서 가장 빠른 5G 속도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농촌 지역 사용자들이 OECD 어느 지역의 도시 지역 사용자들보다 더 빠른 5G 속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성단체 상담통계에 의하면, 피해 경험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전·현 연인 관계가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26: 47~49).⁷⁾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낫선 타인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이별 통보 이후의 보복 행위 등 친밀한 관계 내 통제와 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운동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기술 오용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 권력관계와 플랫폼 경제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재규정해왔다(김수아, 2015; 이효린, 2025; 홍남희, 2018).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통해 ‘소라넷’ 내 불법촬영물과 성착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소라넷 폐쇄 청원을 비롯한 대응 운동이 펼쳐졌다. 또한 DSO(Digital Sexual Crime Out)에서는 소라넷에 올라온 강간 모의, 불법 촬영물과 사적 성관계 영상 등을 신고하고 캡처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99년부터 16년간 유지해온 소라넷이 2017년에 폐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홍남희, 2018: 229).

2018년 전후로 익명성 속에서 퍼져나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 등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았다. 한 번 사진이나 영상이 넘어가면 지속적인 협박과 착취가 이어졌고, 익명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착취물이 유료로 거래되고 소비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과 충격을 주었다. 특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가해자 검거가 어렵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맞서 “불꽃 추적단” 등 여성들이 나서 적극적인 추적 활동과 해외 공조수사 촉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 가해자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 한편,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상담 결과를 보면(한정민, 2026:12~13), 남자 청소년 중고등학교 생이 호기심이나 충동성을 갖고 큰일이라 생각하지 못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해센터에 내방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이었다(93.2%). 주요 가해 유형은(중복 포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47.9%), 카메라 등 이용 촬영(43.8%), 불법촬영물 소지 등(2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연구,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서의 가해자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혜화역 시위’는 당시 여성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불편한 용기’ 주최로 6회에 걸쳐 열린 이 시위에는 연인원 35만 명이 참여하였다(경향신문, 2018). 이들은 국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수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과 유포 영상 삭제 지원,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 시위는 편파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전반적 성차별 구조 타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과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의제를 확산시키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견인했다.

한편, 이러한 대응운동은 디지털 공간을 둘러싼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 청소년과 이용자 책임 문제, 기술 발전과 규제 간의 긴장 등 다양한 쟁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의 삭제 지원 체계와 디지털 성폭력 대응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대응운동은 성폭력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시키고, 새로운 기술 조건 하에서의 성평등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성평등정책이 기술 변화와 결합된 새로운 위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과 일상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법·제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시민사회, 국제 협력 등 다층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논의의 점화

재생산권은 1980년대 모자보건법 개정 운동 이후 가장 큰 사회적 의제로 다시 부상하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⁸⁾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

8)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과정을 보면, 2012년에 낙태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조산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2014년에 낙태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으로 다시 위헌 여부가 제기되었고, 드디어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다. 헌법재판소(2019)는 해당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

정 이래 66년 만의 역사적인 변화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이자, 여성주의 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문제 제기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이다.

낙태죄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낙태죄 조항을 다시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 기조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보수 성향의 의사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본격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헤어진 남자친구나 배우자 등에 의해 고발당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거부당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강한 위기의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낙태죄 폐지운동과 재생산권 운동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특히 2016년 이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카페 BWAVE’의 ‘검은시위’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동이 확산되었다(김경내, 2025: 4). 여성주의 학자들은 그동안의 생명권 대 선택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주류 담론으로 자리잡으면서, 다른 사회적 논의와 언어의 형성을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여성의 낙태 경험이 한국의 성불평등 구조의 맥락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개인적 선택이나 사적 권리의 문제로만 국한시킨다는 것이다(양현아, 2018; 이인영, 2010).

‘낙태죄’ 폐지운동에서는 재생산권을 단순히 낙태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문제를 넘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했다. 특히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정확한 정보와 상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소득·지역·이주 여부 등에 따

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더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처벌 중심의 낙태죄 규율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여성의 출산을 통제해 온 법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른 건강권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나아가 재생산권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이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권리 보장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2).

한편, 이러한 여성의 권리 확장을 위한 주장과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입장의 반발 또한 계속되고 있으며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 수준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머무른 현실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규제 기준,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거부권,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과 관리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낙태죄 폐지는 형사처벌의 폐지를 넘어,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역할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성평등정책의 지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향후 입법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재생산권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4) 일터의 성차별·차별금지법·교차성

일터의 성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돌봄·기후 등 교차성 이슈도 이 시기 성평등 운동에서 중요한 의제였다.

일터의 성차별과 성희롱은 #미투 이후 핵심 의제로 자리잡았다. 직장 내 성희롱, 채용 성차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전반의 성불평등이 가시화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여성 노동’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콜센터 상담사, 돌봄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 영역의 성차별·성희롱 이슈도 제기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2007년 이래 가장 오래된 운동 의제이면서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체성·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으로, 여성운동은 성소수자 운동, 이주민 운동, 장애인 운동 등과 연대하여 입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차별금지법 운동은 한국 여성운동이 ‘여성’이라는 단일 정체성

을 넘어 다양한 소수자 운동과 연대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돌봄·기후·교차성 의제도 새롭게 부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돌봄부담의 젠더화된 분배상황을 동시에 가시화하였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환기, 확산시켰다. 기후위기 또한 여성·돌봄·생명·평화 의제와 결합하며 페미니스트 의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노년 여성 등 그동안 ‘주변화된 여성’의 운동이 활성화되며, ‘여성 안의 차이’와 교차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3. 제도화 성과와 제도화의 역설: 여성운동의 활동 조건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여성운동은 특히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이러한 법제화 중심 전략이 국가 의존성을 강화하고 운동의 급진성과 자율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김현정, 2000; 윤정숙, 2004; 신상숙, 2008; 오장미경, 2005). 이러한 ‘제도화의 역설’은 여성운동이 직면해 있고 성찰이 필요한 여성운동의 활동 조건의 하나이다.

1) 법제도 개선운동과 성과

현재 한국 여성운동단체들은 대부분 1980~90년대에 설립되어 조직화된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특히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1987년에는 남녀의 평등한 고용과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들의 취업 및 맞벌이 증가로 ‘보육 공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1990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을 ‘평등한 노동·건강한 모성’으로 정하고, 공공보육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1991년을 ‘평생평등노동권 확보의 해’로 정하여 보육 문제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흐름은(최혜영·정문자, 2017: 151) 영유아보육법(1991)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여성운동은 사회문제를 드러내 공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운동을 펼쳐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폭력 및 인권 문제가 여성운동의 중요한 의제였다. 당시 젠더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단체들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제화 운동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했다. 여기에 여성인권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법조인, 학자 등 전문가들의 합류는 법제정 운동의 든든한 동력이 되었다. 성폭력특별법(1994)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발전기본법(1995),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희롱관련법(1999), 청소년성보호법(2000), 성매매방지법(2004)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여성폭력 관련 입법운동은 일정 범위와 규모를 넘어서는 연대의 조직화와 담론의 정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동원 과정으로(신상숙, 2008: 109) 평가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제화 운동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가족법 개정운동은 50년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 원리가 호주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법·제도화 운동이 단순히 결과로서의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 반세기 동안 가족 관련법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비혼 동거, 동성 커플 등 기존 혼인제도 밖의 다양한 관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안적 가치를 담은 생활동반자법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견인하였고, 이는 여성폭력 대응을 개별 사건 중심에서 국가의 통합적 책임 체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생산권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공백이 7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스토킹처벌법과 2023

년 스톡홀름협약보호법의 제정은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여성폭력 대응 요구가 제도화된 성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의 법제화 운동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왔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성주의 학자들의 참여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김경희, 2006: 20) 평가된다.

2) 제도화의 역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기성 여성운동은 입법·정책화 운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 의존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노동자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 이주여성 지원 등 다수의 활동이 국가 지원체제로 편입되면서, 운동단체는 사업 위탁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었다(김경희·신경아, 2014). 이러한 의존은 운동의 자율성과 비판적 거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정권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활동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성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은 제도화의 역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일부 성폭력상담소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026년 1월 현재 179개의 성폭력상담소 중 99개(55%)만 국비 지원으로 연간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성평등가족부, 2026: 26, 121).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판단 기준에 따라 운영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담소 간 경쟁과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 구조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의 질에서 지역 간 편차를 초래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담소들을 3년마다 시설평가를 실시하며 공식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한때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인

센티브가 지급되자, 일부 단체들은 “우리를 줄 세우지 말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지원이 행정적 통제와 평가 체계의 확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지원과 통제의 결합이라는 제도화의 역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2008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부 상담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이 통보되었다가,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철회되었다. 이 사례는 국가 재정 지원이 운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여성단체에는 정부기관에 준하는 사업·회계 보고 체계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 실무와 서류 작업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예산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회계자료의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일지까지 전산화하려는 방침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상담통계 자료까지 중앙 통제 시스템에 편입하려 하자 민간단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현재에도 개별상담소나 협의회 차원의 통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민관 협력이 관 주도로 운영되면서 언제나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사업 축소 사례도 ‘제도화의 역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선 상담 기관이었으며, 다수가 여성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정부의 사업 개편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되고 일부 단체의 위탁 운영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여성노동상담의 전문성과 현장 네트워크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제도화가 곧 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운동의 독립적 자원기반 없이는 제도화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제3절 소결: 합의와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전개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진환경을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과 정책·정치환경을, 제2절에서는 여성운동의 지형 변화와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두 차원의 검토는 이 시기가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이 사회적 의제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시기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백래시와 정치적 후퇴, 운동의 활동조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된 역동적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실과 정책·정치환경은 비균질적이고 비동시적이다.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고용의 질, 의사결정 참여, 가구 소득·자산, 돌봄의 분배에서 성별 격차는 견고하고, 디지털 환경 속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성평등정책 기조는 정권 교체에 따라 큰 폭으로 바뀌었고, 정책과 예산이 후퇴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운동이 정치적 퇴행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재단이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동시에 백래시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재단 및 여성운동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백래시는 단순히 일부 청년 남성의 정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불안, 미디어 환경, 정치적 동원이 결합된 현상이며, 페미니스트와 활동가에게는 온라인 공격과 신상 노출 등 직접적 위협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래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안 담론을 생산하고, 포용적 관점에서 성평등 기반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 주체의 다변화는 지원 체계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기성 여성단체와 함께 청년 여성 활동가, 1인 활동가, 온라인 기반의 느슨한 네트워크, 소모임 등 다양한 단위가 운동의 지형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 형태와 활동 주기, 자원 기반이 달라서 기존의 단체 중심 지원 방식만으로는 다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단 사업은 다양한 조직방식과 활동방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14~2025년의 여성운동은 #미투와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통해 젠더폭력 의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였고, ‘낙태죄’ 폐지 운동을 거치며 재생산권을 권리보장의 영역으로 재정의하였으며, 나아가 일터의 성차별과 차별금지법, 돌봄·기후·교차성 의제로 외연을 넓혔다. 이는 성평등을 단일 의제로서가 아니라 노동·재생산·돌봄·기술·기후·소수자 권리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다루는 관점을 요구하며, 재단 사업 역시 이러한 교차적 의제 구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의 활동조건과 자원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단체들의 일부는 국가의 지원체계에 편입되면서, 재정 의존이 심화되어 자율성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는 데 도전을 받고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새로운 운동주체는 조직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운동단체의 활동조건의 취약성은 민간 공익재단으로서의 여성재단의 자원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장 여성재단 배분사업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배분사업으로, 재단의 정 기공모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명으로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그러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내용적 범위나 배분사업에서의 비중은 여성재단 배분사업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에서 변해왔다. 이 장에서는 우선 한국여성재단 배분사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개괄하고(제1절),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제2절). 이어서 사 넬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 시행된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Brave Changes)’을 개괄하고 이 사업이 향후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제 3절).

제1절. 한국여성재단 배분사업의 전개와 현황

1. 배분의 방향과 원칙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최초의 민간공익 재단으로 1999년 <한국여성기금>으로 출발하였다.⁹⁾ 초기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0 억으로 설정하고 3년간 전방위적 기금조성 활동을 펼친 결과, 7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78억의 기금은 대단한 성과였으나 1,000억이라는 애초의 기금 목표액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에서, 초기 ‘한국여성기금’은 목표액 달성까지 모금 활동을 계속하면서 신속하게 배분사업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배분을 통해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홍미희, 2020). 2000년도 말에 배분위원회 위원구성을 완료하였고, 2001년 초에 배분규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배분사업에

9) “‘한국여성기금’이라는 명칭이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어 모금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여성발전기금과 혼동되어 재단의 이름을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라는 요청이 많아”(2000년 2차 이사회 정기회의 회의록), 적합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갖는 2001년 ‘한국여성재단’으로 변경하였다(재단 내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나섰다.

설립 초기에 정립된 배분방향과 원칙의 대부분은 현재 시점까지도 여성재단의 배분사업의 기본 기초가 되고 있다.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배분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

1) 배분사업 대상

배분사업의 대상은 여성재단의 고유목적 사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배분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성평등 의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여성의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 사업
-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국제활동 지원 및 지도력 향상을 위한 사업
- 기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사업과 돌봄 문화 확산 지원¹⁰⁾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사업과 돌봄문화 확산’은 2009년부터 배분대상에 추가되었다. 이는 당시 보육 사각지대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보육사 파견사업이 기업사회공헌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추진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2) 배분사업의 원칙과 방향

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견지한 배분사업의 주요 원칙은 배분의 공정성, 지역균

10) 여성재단 배분규정 제3조(배분대상).

형 배분, 중복지원 사업 배제 등이다. 재단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 오고 있으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핵심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 엄격한 심사절차와 배분위원회 구성

재단은 초기부터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심사기준은 신청단체의 신뢰성 및 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등이었다. 심사절차는 통상 1차 기초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분야별 평가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면접심사를 거쳐 실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였다. 2025년 현재, 지원단체의 선정과정은 사무처 적격 심사, 심사소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배분위원 임기 규정도 정비되었다. 재단 초기 배분위원 임기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었으나, 배분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배분위원의 임기는 2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배분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배분위원과 지원단체와의 유착관계로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 조치였다.¹¹⁾

재단은 또한 배분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배분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배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재단 내부 관계자 누구도 당연직 배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배분위원은 모두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너 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해당 단체 심사 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2) 지역 배분 할당

재단은 초기부터 전체 지원사업의 30% 이상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 단체에 할당하여,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¹²⁾ 2025년 현재 시점까지도 재단

11) 재단 내부자료(2009년 이사회 회의자료)

12) 재단 설립초기 지역할당과는 별도로 모금과정에서 광주지역에서 조성된 별도의 광주여성기금을

배분사업의 선정에서 지역할당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3)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복지원 배제

재단은 설립 초기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이 같지 않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지원기관도 다양해지고 재단의 사업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중복지원 배제에 대한 세부 규정은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르게 지원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은 재단의 배분 사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4) 사업프로그램 지원 원칙과 일정 수준의 운영비 지원

재단의 배분사업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닌 사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기 배분규정에는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다.¹³⁾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재단 배분사업은 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재단은 초기부터 사업비의 20%를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 범위 내에서 장비구입비, 공과금 등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부담 비율을 강제하지 않았다. 이는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고, 일정한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한 정부보조금 사업과의 차이점이었고, 재단은 이러한 점을 재단 지원사업의 특성으로 소개하였다.¹⁴⁾

이후 전체 배분사업비에서 관리 운영비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사업비의 30%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하고 있다. 사업별 최대 50%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40%를 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재단에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광주지역 여성단체를 1개 이상 지원하였다(재단내부자료: 이사회자료(2002))

13) 재단 내부자료(초기 이사회자료).

14) '2005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자부담 비율 명시하지 않음,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의 특이사항으로 소개하였다.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3년에 걸친 ‘여성운동 생태계조성’ 사업을 통해, 사업프로그램 없는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코어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그 성과와 함의를 추적하고 있다.

2. 배분사업 범주와 자원

1) 초기 배분사업 범주와 자원(2000~2006)

초기 배분사업은 공모 시기와 자원에 따라 정기신청공모사업, 수시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나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모금캠페인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기획공모 방식이 더해졌다. 정기신청공모사업이 한국여성기금의 과실금을 재원으로 성평등사회조성과 (소외)여성복지 분야를 매년 지원한 반면, 수시지원사업은 잔여금을 활용해 여성계의 긴급 현안에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두 사업은 자원과 기능이 구분되었다(아래 표 참조).

<표 3-1> 한국여성재단 배분사업 범주와 자원(2000~2006)

사업범주	사업구분	세부 사업분야/ 사업내용	자원
정기신청사업	성평등사회조성	조자연구정책개발사업	한국여성기금 과실금
		국제여성활동 촉진사업	
		성평등사회조성 문화사업	
		여성인력개발사업	
		지역여성활동 촉진사업	
		여성운동 활성화 사업	
	(소외)여성복지사업 ¹⁵⁾	빈곤여성가장 지원사업	
		비혼여성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외국인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지원사업	
수시사업	수시신청사업	긴급한 과제에 대해 수시신청	한국여성기금
	수시기획사업	재단이 내용 기획 후 수시 공모	정기공모사업 잔여금
기획공모사업	기획공모	특정 사업을 위해 모금캠페인 기획	캠페인 모금 기금
	기업공동기획	기업과 함께 기획 및 공동모금	기업공동 모금
지정기탁사업	지정기탁	기업이나 공익단체 지정 기탁	지정기탁금

자료: 재단 내부자료: 이사회자료(각년도).

15) 초기 여성복지사업은 ‘소외여성 지원사업’으로 명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2) 배분사업 체계와 재원변화

재단 초기에 정립된 배분사업은 재단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변화하게 된다.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자유주제 기반 정기공모사업의 재원변화이다. 2006년까지 한국여성기금 과실금으로 운영되던 정기공모 및 수시지원사업의 재원은 이자율 저하, 재단 운영비 증가, 재단 건물구입으로 인한 기본재산 구조 변경 등의 환경 변화로 2007년부터는 전적으로 모금을 통해 운영되었다.¹⁶⁾ 이러한 변화로 재단의 모금성과가 지원사업 규모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재단의 5월 집중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과 정기기부자들의 기부액은 그다음 해 정기공모사업의 재원이 되었다.

2007년 이후 배분사업의 종류를 배분절차에 따라 공모사업, 지정사업, 수시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다.¹⁷⁾

<표 3-2> 배분사업의 종류

변경 전(~2006)	변경 후(2007~2009)
- 정기신청사업 - 지정기탁사업 - 수시지원사업	- 공모사업(자유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 지정사업 - 수시지원사업

2010년부터는 배분절차 혹은 배분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 배분사업 범주를 체계화하고, 2009년에 추가된 사회적돌봄을 별도 사업영역으로 구분, 관리했다.¹⁸⁾ 2013년 이후에는 배분사업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빈곤여성, 비혼여성,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 여성 등으로 구별하고, 이 대상들을 고르게 지원하는 것을 배분사업의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후 '소외여성'이라는 표현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낙인 위험이 있어 여성복지사업으로 변경되었다.

16) 2006년 하반기 이사회에서 한국여성기금 정기공모신청사업 재원 및 한국여성재단 운영비 재원 변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 재단 기본재산 과실금은 운영비 재원으로 활용하고, 한국여성기금 정기공모신청사업 재원은 모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재단 내부자료: 이사회자료(2006)).

17) 2007년 하반기 임시이사회자료

18) 이는 당시 여성재단의 배분사업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재단은 저소득가정에 신생아, 영아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육서비스사업'(2010~2011)을 생명보험사회공헌회의의 22억 규모 기금으로 시행했다(1,354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신생아, 영아 신생아, 영아 케어서비스를 336가구를 지원하였다(여성재단 배분위원회 회의 자료)).

있으며, 이 분류체계가 2026년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재단의 배분사업 관리 범주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배분 사업 관리 범주 변화

연도	지원사업 분류			
2002~2006	정기신청 사업		수시 사업	지정기탁
	성평등사회조성	소외여성복지	수시지원/ 수시기획공모	
2007~2009	공모사업		수시지원사업	지정사업
	자유공모	기획공모		
2010~2012	성평등사회문화 조성	여성공익역량강화	소외여성 임파워먼트	사회적돌봄
2013년 이후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 인권보장	여성 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출처: 재단 내부자료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화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위상변화를 볼 수 있다. 재단 설립초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재단의 정기공모사업으로 배분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기업후원의 지정사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배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3년 이후 ‘성평등사회 조성’ 사업은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라는 배분사업의 한 영역에 속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위상은 축소되었으나,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는 여전히 크다(제2절 참조).

3. 배분사업 규모와 내용

1) 배분규모 추이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사업은 2002년 정기공모사업이 시작된 이래 2025년까지 24년 동안 총 278개 지원사업(=프로젝트), 누적 433억 8,373만 원 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연도별 배분총액과 전체 프로젝트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4> 연도별 배분총액 및 전체 프로젝트 수(2002~2025)

(단위: 원)

연도	전체 프로젝트(지원 프로그램) 수	배분총액(원)
2002년	1	316,850,000
2003년	1	431,077,500
2004년	2	497,348,000
2005년	3	550,990,000
2006년	2	381,791,000
2007년	6	923,912,000
2008년	7	1,116,634,951
2009년	10	2,971,457,674
2010년	14	3,875,941,644
2011년	16	2,390,571,730
2012년	14	3,104,599,561
2013년	15	1,800,818,783
2014년	18	1,948,694,342
2015년	15	2,023,585,671
2016년	14	1,918,527,247
2017년	16	2,145,438,760
2018년	17	2,437,550,000
2019년	16	2,708,904,000
2020년	14	1,912,223,000
2021년	14	1,810,278,000
2022년	14	1,602,400,000
2023년	16	2,153,377,000
2024년	17	2,396,632,000
2025년	16	1,964,128,000
합계	278	43,383,730,863

자료: 2002~2017년은 재단 내부자료, 2018~2025년은 배분위원회 회의자료(2015~202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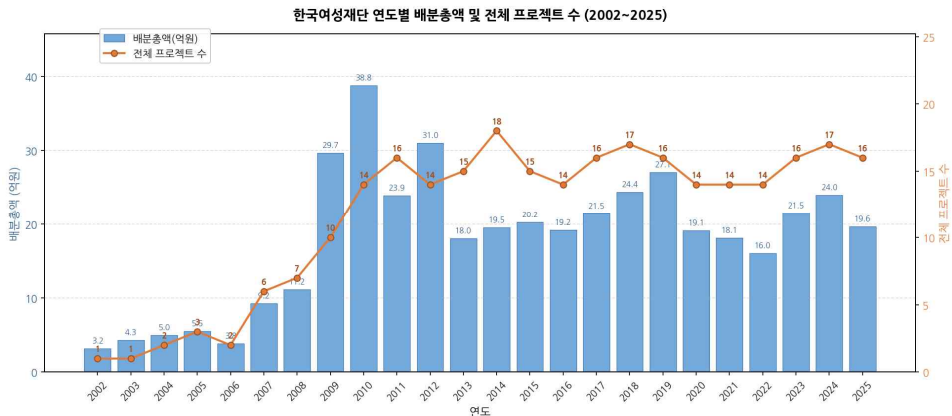
2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단 설립 초기인 2002~2006년 시기에는 배분총액이 연 3억~5억 원 규모로 비교적 작은 편이었으나, 정기공모사업 외에 기업사회공헌(CSR)과 연계된 지정기탁사업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약 30억 원, 2010년에는 약 39억 원으로 정점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다문화·다함께 프로젝트’와 ‘보육 사각지대 해소 보육서비스 사업’ 등 대규모 기업CSR 사업이 시행된 결과이다.

2011년 이후 배분총액은 연평균 약 20억 원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4대 사업영역(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 인권 보장, 여성 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체계가 정착되며 사업이 다각화되었

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16억~19억 원대로 축소 되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프로젝트 수는 2002년 1개에서 시작해 2014년에 18개로 정점에 이른 후, 최근까지 매년 14~17개의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 한국여성재단 연도별 배분총액 및 전체 프로젝트 수 (2002~2025)



2) 배분사업 현황과 주요 내용

여성재단의 배분사업은 2026년 2월 기준, 4개 사업 분야 총 19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23억 760만 원이다. 개괄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5> 여성재단 지원사업 현황(2026년 2월 기준)

분야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기금(천원)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사업내용: 매해 정기적으로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공모 및 지원 - 지원현황: 4개분야 13개 선정[자유주제(4), 폭력주제(5), 돌봄주제(2), 차세대(2)]	개인모금(성평등 기금, sos캠페인, 기타) 227,869
	수시지원사업:	- 사업내용: 긴급한 성평등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원 - 지원현황: 2개 사업(공모 예정)	10,000

분야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기금(천원)
	성평등 사회조성사업 아카이브	- 사업내용: 한국여성재단 성평등 사회조성사업 자료 아카이브 지원 - 지원현황: 한국여성재단	사별재단 40,000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구	사업내용: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2014~2025) 연구	사별재단 30,000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 사업내용: 여성운동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한 여성운동, 콜라보, 코어지원 - 지원현황: 여성운동(5개 단체), 콜라보(4개 사업), 코어(11개 단체), 기획지원(2개 단체), 섬지원(9개 단체)	사별재단 446,283
	젠더폭력 대응 활동지원 사업	- 사업내용: 젠더폭력 대응활동을 활동형과 콘텐츠형으로 지원 - 지원현황: 활동형 4개 단체, 콘텐츠형 3개 단체 지원)	케어링 재단 134,596
여성 인권보장	여성건강 지원사업	- 사업내용: 여성가장 및 취약 여성 건강 및 치과치료 지원 - 지원현황: 치과진료(21명), 건강증진 프로그램(25명), GREEN+종합검진(20명)	CJ모금방송, 개인모금, 윤정주 기금 195,532
	봄빛장학사업:	- 사업내용: 탈성매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사업(입학 및 등록금 지원) - 지원현황: 11명(지속 4명, 신규 7명)	개인기금 37,500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	- 사업내용: 저소득층 및 보호종료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 - 지원현황: 생리대 1,000640 패드, 파우치, 교육용 엽서	유한킴벌리, 해피빈 *123,055
여성 임파워먼트	여성 NGO 장학사업:	- 사업 내용: NGO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정 입학 및 장학금 지원, 이화리더십개발원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여성운동아카데미 지원, 장학사업 성과연구 - 지원현황: 2026년 실천여성학 과정 장학생 8명 선발, 2025년 NGO여성리더십과정 60명, 장학생 네트워크 사업, 정책분석 및 대응을 위한 워크숍 2회 등	유한킴벌리 180,000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	- 사업내용: 여성단체와 사업의 임팩트를 가시화하기 위한 임팩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현황: 4개 단체	생명보험사회공헌 위원회,교보생명,(사)함깨만드는세 상(사회연대은행) 60,000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보호종료 여성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돌봄, 진로설계 등) 프로그램 지원 및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 현황: 자립준비 여성청년 30명	사별코리아 300,000

분야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기금(천원)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 사업내용: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표현하는 여성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생활지원 - 지원현황: 창작지원금 500만원, 7명 지원. 네트워킹 워크숍 지원	보그코리아 50,000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해외 여성청소년 역량강화지원사업	- 사업내용: 한국희망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성인지교육지원 - 지원현황: 최종 사업비 확정 후 교부	개인 기부, 해피빈 6,540
	양육미혼모 역량강화 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 사업내용: 양육미혼모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 지원현황: 10명	연세대여성 치과의사회 23,450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 사업내용: 이주여성이 각 생활영역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현황: 5개 단체	하나금융그룹/사 회복지공동모금회 100,000
	한부모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한부모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한부모이주여성 자녀대상 정서심리상담 지원 - 지원현황: 3개 단체	동서식품 30,056
	싱글맘 나다움 Plus+ 지원사업	- 사업내용: 미혼모, 한부모, 한부모 이주여성 등 싱글맘 가정의 자기돌봄(건강관리, 문화활동, 취미, 교육 등) 지원 - 지원현황: 75명	글리메 50,000
	여성 기후돌봄지원사업: 기후살림메이커스	- 사업내용: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구축하는 활동을 지원 - 지원내용: 기후돌봄 활동 비영리단체 20개 지원 예정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170,000
	미혼모·위기임산부 지원 및 권익증진사업	- 사업내용: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지속가능한 임팩트 관리체계 구축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론화, 정책환경 변화 촉진을 위한 지원 - 지원내용: 2개 단체(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혼모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지원	Carl Marks Foundation/ (경유) 'Myriad USA' 146,000

출처: 한국여성재단 내부자료(2026년 제1차 배분위원회 회의자료)

<표 3-5>에 나타난 19개 사업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지원의 초점을 드러낸다.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여성운동단체의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영역이며, ‘여성인권보장’과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는 폭력피해여성·탈성매매여성·미혼모·이주여성 등 취약한 위치의 여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임파워먼트’는

활동가 역량강화와 차세대 리더 양성에 초점을 둔다.

19개 사업의 재원 구조는 크게 개인모금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구별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봄빛장학사업, 여성건강지원 사업 등은 시민 개인의 자발적 모금에 기반하는 반면, 그 외 다수의 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CSR)이나 지정기탁을 재원으로 한다. 개인모금 기반 사업이 재단의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모금-배분의 직접적 연계를 구현한다면, 기업 CSR 기반 사업은 개인모금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 규모와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2023년 이후 글로벌 기업 재단이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과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을 후원하면서,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영역은 양적으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직접 지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재단의 배분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2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흐름과 개요

앞 절에서 보듯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재단의 정기신청공모라는 단 하나의 지원 프로젝트 중 한 분야였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재단 전체 배분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6년 현재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전체 배분사업을 구성하는 19개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배분액 기준으로 보면,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배분액은 재단 전체 배분액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전체 배분사업에서 차지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위상은 매우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정체성과 의미이다. 이 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 고유 핵심목적사업”이며,¹⁹⁾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 고유목적사업”이다.²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재단의 정기공모사업이라는 점이다. 여성재단이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2002년부터 2026년 현재 시점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되고 있다. 재원이 초기 재단의 기금운용 이자소득에서 캠페인을 통한 개인기부금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개인 기부자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모금을 통해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재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모금성과가 직접적으로 배분성으로 나타난다.

25년간 지속되고 있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세부 사업의 구성, 지원방식 및 지원규모 면에서 변화, 발전해왔다. 주요 변화 과정을 개괄한 후, 이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인 2014년 이후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19)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집(이사장 인사말).

20) 201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집(이사장 인사말).

한다.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세부 구성내용과 추이

1) 2002~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구조와 규모

최초 정기 배분사업이 시행된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기공모사업과 수시신청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지원하였다. 정기신청공모 사업을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여성복지사업’으로 이원화해서 배분하고, 잔여금으로 수시 신청사업을 지원하였다.

사업재원은 2006년까지 한국여성재단 과실금으로 충당되었으며, 2007년부터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 기금과 연중 모금액으로 운영되었다. 사업분류별 지원 규모는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여성재단 정기신청공모와 수시신청사업(2002~2009)

(단위: 개,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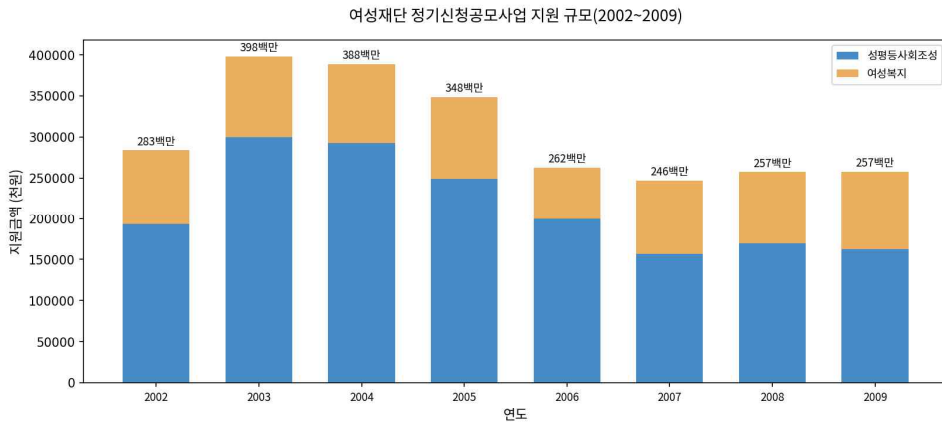
구분	정기신청공모 사업				수시신청 사업		합계	
	성평등사회조성		여성복지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2002	30	193,070	15	90,810	4	32,970	49	316,850
2003	28	299,590	14	98,518	4	32,970	46	431,078
2004	26	292,678	12	96,170	4	8,500	42	397,348
2005	22	248,900	12	99,590	7	22,500	41	370,990
2006	17	199,941	8	62,700	5	19,150	30	281,791
2007	16	156,935	12	90,000	4	14,625	32	261,560
2008	14	169,600	7	87,910	3	10,520	24	268,030
2009	12	162,390	8	95,291	-	-	20	257,681

자료: 재단내부자료(지원사업DB)

‘여성복지’와 ‘성평등’으로 이원화되었던 정기공모사업은 2010년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일원화되었다. 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및 방식의 사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템과 실험적 성격의 사업

도 지원가능하다” 고 안내하고 있다.²¹⁾

<그림 3-2> 정기신청공모사업 지원규모(2002~2009)



자유주제 공모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획공모 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2011년부터 기획공모 사업이 시행되었다. 기획주제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제 공모로 진행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렵고 기부금 모금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조성된 기금액에 비해 신청단체 수가 너무 많아 선정과정이 비효율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재단 내부자료).²²⁾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성기금의 일부를 특정 주제를 기획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수시지원사업의 운영방식도 변경되었다. 애초 별도의 기금 규모를 배정하지 않고, 정기공모사업의 잔여금이나 반환금으로 수시신청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잔여금이 부족하여 긴급한 수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공모사업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의 5%를 수시사업 기금으로 배정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유공모, 기획공모 및 수시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게 되었고, 그 규모는 아래의 <표 III-7>와 같다.

21) 내부자료(2010년 여성재단 지원사업 안내)

22) 2009년~2010년 이사회회의자료 등.

<표 3-7>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규모(2010~2014)

	자유공모		기획공모		수시 지원 사업		합계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사업 수(개)	금액 (천원)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사업 수(개)	지원금액 (천원)
2010	14	179,714	-	-	3	14,000	17	193,714
2011	10	142,808	5	47,223	-	-	15	190,031
2012	11	125,939	3	25,600	1	2,600	15	154,139
2013	12	130,000	2	20,000	1	2,350	15	152,350
2014	11	131,500	2	30,000	2	9,918	15	171,418

출처: 내부자료(지원사업 DB)

기획공모의 주제는 매년 다르게 제시되었다. 2011년에는 “여성운동의 희망과 대안”을 주제로 하여,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모색’, ‘창의적인 여성운동 모색 및 차세대 여성활동가 발굴’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 기반의 새로운 조직운동’을 지원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제도화된 여성정책을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성평등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당시 여성운동이 제도화되고, 기존 여성단체들의 활동가 재생산 이슈가 제기되고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단이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운동방식과 운동 이슈를 발굴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화된 정책에 시민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기획공모 주제(2011~2014)와 지원사업 내용

연도	기획공모 주제	지원단체	사업명	금액(원)
2011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모색을 위한 지원 사업	경기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행복하고 즐거운 활동가>	8,665,000
		경기자주여성연대	<눈빛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우리들의 여로(女路)>	9,208,000
		광주여성회	교육과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의 동네프로젝트	9,350,000
	창의적인 여성운동 모색 및 차세대 여성활동가 발굴 지원사업	대전여성회	또 하나의 우리집 <교육문화센터> - 여성들이 만들어 나가는 교육·문화 공동체세상	10,000,000
		서울지역 총여학생회모임	20대, 불량소녀가 되자! - 새내기를 위한 여성 리더십 캠프, 여름	10,000,000

		및 리얼퍼플	페미니즘 캠프	
2012	지역기반의 새로운 조직운동 지원사업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마을여성리더교육 - 풀뿌리 여성운동이 마을을 바꾼다"	8,000,000
		경주여성노동자회	품앗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빈곤여성 자립 강화와 지역 호혜경제 활성화	8,000,000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모색 지원사업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라이브러리에 접속하다 -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비전찾기 프로젝트	9,600,000
2013	여성친화정책 모니터링	인천YWCA	여성친화도시정책모니터링(안전한 도시생활환경부문)	10,000,000
		여성환경연대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과 정책제안서 발간	10,000,000
2014	성평등정책 만들기	창원여성살림공동 체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낸다	15,0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	[Post-2015, 여성운동미래전망만들기연구토 론회]	15,000,000

출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각년도)

이 시기(2011~20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유공모를 통한 현장 수요 반영’과 ‘기획공모를 통한 전략적 이슈 선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재단은 여성단체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여성운동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여성운동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 2014년~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현황과 특성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세부 구성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재정비 및 발전을 위해 재단은 2013년~2014년에 걸쳐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0년 평가』 연구를 진행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은 2015년에 신생단체 지원 트랙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2014년까지 ‘자유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했던 공모사업 범주를 2015년부터 ‘자유주제’와 ‘지정주제(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신생여성단체 지원’으로 재편하였다. 2017년부터는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비조직화된 여성 모임이나 그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5년부터 ‘신생여성단체’와 ‘차세대여성운동’을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으로 통합,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캠페인은 2020년 이후 기존의 ‘100인 기부 릴레이’에서 ‘성평등기금 캠페인’으로 바뀌었다. 지정주제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별도의 캠페인(SOS기금 캠페인)을 기획, 진행하였다. 2025년부터는 돌봄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돌봄주제가 지정주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2015년 이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주요한 변화는 차세대여성운동 지원, 폭력 및 돌봄주제 지원 등의 지원트랙이 다양화되고, 이를 위한 기금 모금캠페인도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 연도별 지원규모와 추이

2014년에서 2025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총지원사업 수는 총 212개이다. 2014년 15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7년 24개 사업, 2억 3,983만 5,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5년에는 총 11개 사업, 총 1억 3,048만 2,000원의 지원에 그치며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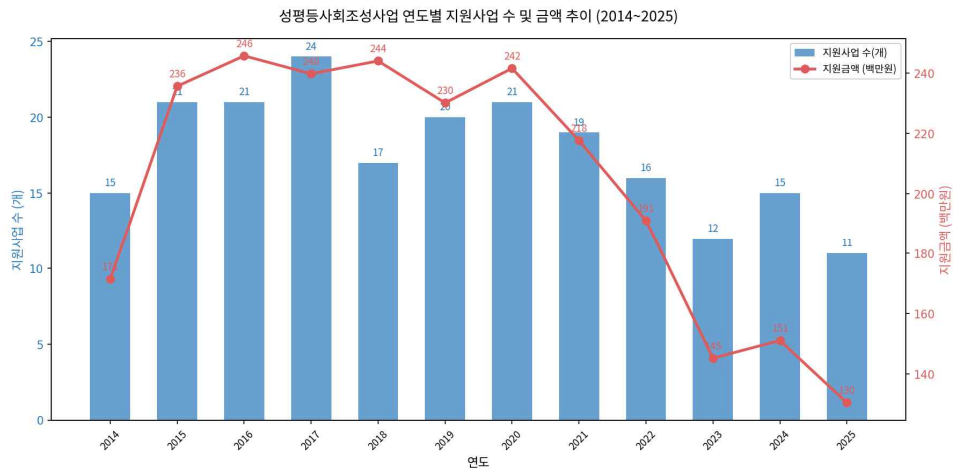
<표 3-9> 공모분야별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

구분	자유주제공모		지정 폭력·돌봄		신생·차세대		수시사업		합계	
	사업 수(개)	금액 (천원)	사업 수(개)	금액 (천원)	사업 (개)	금액 (천원)	사업 수(개)	금액 (천원)	사업 수(개)	금액 (천원)
2014	11	131,500	2	30,000	-	-	2	9,918	15	171,418
2015	13	184,722	4	31,000	2	10,000	2	10,000	21	235,722
2016	13	198,465	4	30,000	3	15,000	1	2,350	21	245,815
2017	7	146,835	3	30,000	11	50,000	3	13,000	24	239,835
2018	10	210,870	-	-	3	15,000	4	18,243	17	244,113
2019	11	181,850	1	7,500	6	32,829	2	8,000	20	230,179
2020	10	183,100	-	-	7	46,789	4	11,782	21	241,671

2021	7	124,049	5	38,692	5	44,951	2	10,000	19	217,692
2022	8	130,616	1	14,000	4	35,472	3	11,000	16	191,088
2023	5	86,800	2	17,961	4	35,472	1	5,000	12	145,233
2024	5	67,000	3	37,660	5	36,447	2	10,000	15	151,107
2025	4	68,000	4	47,000	1	5,482	2	10,000	11	130,482
계	104	1,713,807	29	283,813	51	327,442	28	119,293	212	2,200,486

자료 설명: 2014년은 자유주제와 기획공모로 나누어 지원되었으며, 기획공모주제는 성평등정책만들기였음. 2018년에는 폭력 주제 사업을 특별 기획공모사업으로 별도의 모금을 통해서 지원함(아래 본문 참조) 2021: 여성신문사 run-on 기금사업 2개 포함(폭력주제). 재난관련 지정주제 1개 포함. 2025년 지정주제 4개 사업 중 폭력 2개, 돌봄 2개 사업

<그림 3-3> 연도별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액 추이(2014~2025)



총 212개의 지원사업 수의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비중에서도 최근의 감소세를 볼 수 있다.

<표 3-10> 연도별 지원사업 수 추이와 비중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개)	15	21	21	24	17	20	21	19	16	12	15	11	212
(%)	7.1	9.9	9.9	11.3	8.0	9.4	9.9	9.0	7.5	5.7	7.1	5.2	100

(3) 공모 범주별 사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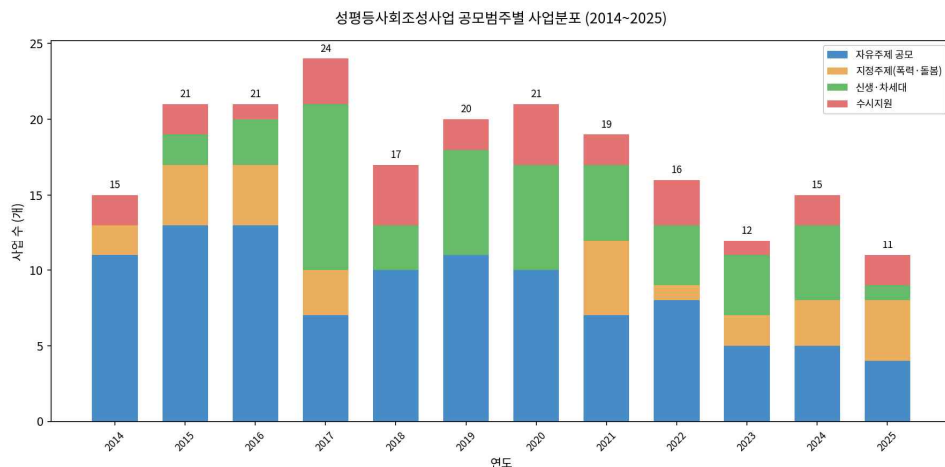
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크게 정기공모사업과 수시지원사업으로 구별해서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자유주제, 지정주제, 차세대여성운동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공모범주별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지난 12년간 사업 중 자유주제 사업은 총 104개로 전체 사업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신생/차세대 지원사업(52개, 24.5%), 지정주제와 수시지원 사업이 각각 28개 사업 13.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사업 수가 줄어들고, 공모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자유주제 지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표 3-11> 공모 범주별 사업분포(2014~202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개)	%
자유공모	11	13	13	7	10	11	10	7	8	5	5	4	104	49.1
지정주제	2	4	4	3	0	0	0	5	1	2	3	4	28	13.2
신생/ 차세대	0	2	3	11	3	7	7	5	4	4	5	1	52	24.5
수시	2	2	1	3	4	2	4	2	3	1	2	2	28	13.2
합계	15	21	21	24	17	20	21	19	16	12	15	11	212	100

출처: 여성재단 지원사업 DB. *2014년 지정주제는 기획공모 사업을 의미함.

<그림 3-4> 공모 범주별 사업분포(2014~2025)



(4) 수행단체 지역별 분포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소재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14~2025년까지 총 212개 사업 중 77.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이 30개 사업(14.2%)를 차지하며, 중부권과 호남권은 각각 4.2%이다.

여성재단은 지역에도 고루 배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3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한다는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89.5%였고, 2025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90.9%에 달하고 있다.

<표 3-12> 파트너 단체 지역별 분포

연도/권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1 (73.3)	16 (76.2)	18 (85.7)	17 (70.8)	12 (70.6)	15 (75.0)	15 (71.4)	17 (89.5)	13 (81.3)	9 (75.0)	11 (73.3)	10 (90.9)	164 (77.4)
중부권 (충청강원)	0 (0.0)	2 (9.5)	0 (0.0)	0 (0.0)	1 (5.9)	1 (5.0)	1 (4.8)	1 (5.3)	1 (6.3)	0 (0.0)	2 (13.3)	0 (0.0)	9 (4.2)
영남권	4 (26.7)	3 (14.3)	1 (4.8)	5 (20.8)	2 (11.8)	4 (20.0)	4 (19.0)	1 (5.3)	2 (12.5)	2 (16.7)	1 (6.7)	1 (9.1)	30 (14.2)
호남권	0 (0.0)	0 (0.0)	2 (9.5)	2 (8.3)	2 (11.8)	0 (0.0)	1 (4.8)	0 (0.0)	0 (0.0)	1 (8.3)	1 (6.7)	0 (0.0)	9 (4.2)
합계	15 (100)	21 (100)	21 (100)	24 (100)	17 (100)	20 (100)	21 (100)	19 (100)	16 (100)	12 (100)	15 (100)	11 (100)	212 (100)

출처: 재단재무자료(지원사업DB)

지역별 분포를 2002년에서 2013년까지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이 다변화되면서, 수도권 외 단체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보다는 재단의 다른 배분사업을 선호하고, 이런 사업들이 보다 쉽게 선정될 수 있다. 즉, 지역배분의 원칙을 여성재단 전체 배분사업에 적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역단체는 지역의 양성평등기금과 같은 보조금 지원 상황이 좋을 경우, 재단 사업보다는 지자체 사업을 더 쉽고 접근성이 좋은 사

업으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향후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에서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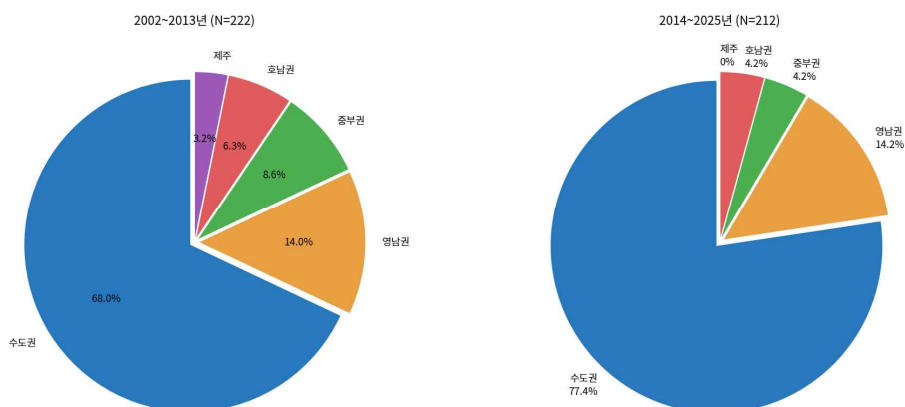
<표 3-13> 지역별 분포 비교

연도/권역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	합계
2002~2013	151 (68.0)	19 (8.5)	31 (14.0)	14 (6.3)	7 (3.2)	222 (100.0)
2014~2025	164 (77.4)	9 (4.2)	30 (14.2)	9 (4.2)	0 (0.0)	212 (100.0)

출처: 김경희 외, 20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재단, 각년도, 지원사업DB

<그림 3-5> 수행단체 지역별 분포 비교(2002~2013 vs 2014~202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 지역별 분포 비교



(5) 사업유형별 지원사업 분포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개별 사업들은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이슈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1) ‘성평등문화’는 우리사회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문화를 정착,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한다. 인식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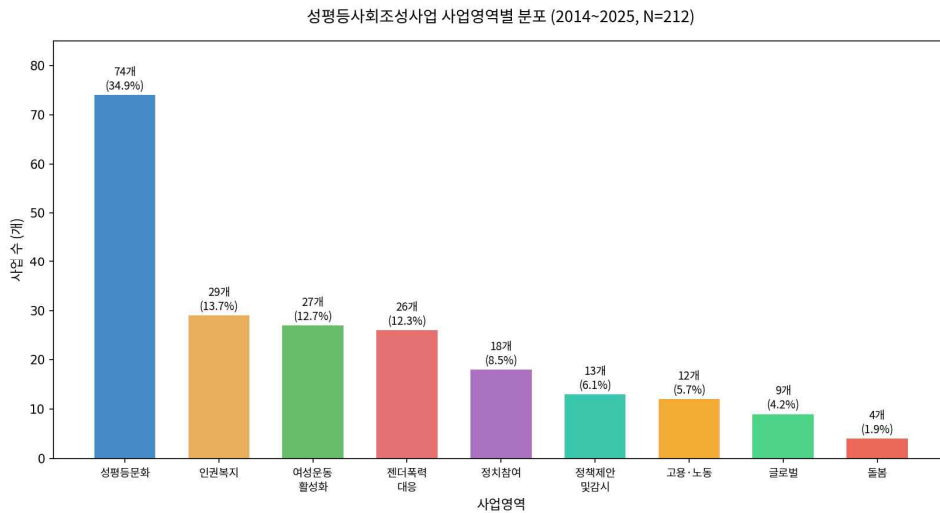
위한 교육, 문화예술콘텐츠 생산 및 확산, 다양한 영역의 페미니즘 의제 확산 등을 포함한다. (2) ‘젠더폭력 대응’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자 지원활동,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포함한다. (3) 고용·노동 분야는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제기, 비정규직 문제, 일터에서의 차별 실태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 (4) 정책개발및감시 분야는 기존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제안 사업, 신규 정책발굴 사업 등을 포함한다. (5) 정치참여 사업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선거에서의 여성유권자 행동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6) 인권복지 분야는 장애인여성, 결혼이주여성, 학교밖청소년, 장애아동, 폭력피해여성 지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성소수자 관련 사업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확보 및 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인권분야 및 성평등 분야로 모두에 해당하나,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분야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7) 여성운동활성화 분야는 여성운동의 미래 및 비전 수립 활동, 여성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8) 글로벌 분야는 국제연대사업, 국제 여성단체 회의 관련 사업 등이다.

<표 3-14> 연도별 사업영역별 사업분포(2014~202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개) (%)	
고용·노동	2	2	1	0	0	1	0	0	2	0	2	2	12	5.7
글로벌	2	3	0	0	0	0	0	1	0	1	1	1	9	4.2
돌봄	0	0	0	0	0	0	0	1	1	0	0	2	4	1.9
성평등 문화	4	5	8	12	8	8	14	3	4	4	3	1	74	34.9
여성운동 활성화	3	0	3	3	2	5	2	5	1	1	2	0	27	12.7
인권복지	0	6	6	3	1	1	0	3	1	4	4	0	29	13.7
정책제안 및감시	2	1	1	0	2	2	1	0	2	1	0	1	13	6.1
정치참여	0	3	0	3	0	1	0	3	4	1	1	2	18	8.5
젠더폭력 대응	2	1	2	3	4	2	4	3	1	0	2	2	26	12.3
합계	15	21	21	24	17	20	21	19	16	12	15	11	212	100

12년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성평등문화(총74건, 34.9%)이고, 이어서 인권복지(13.7%), 여성운동활성화(12.7%), 젠더폭력 대응(12.3%) 순으로 높다. 가장 비중이 낮은 사업영역은 ‘돌봄’ 영역(1.9%)로, 이는 돌봄영역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 시기부터 본격화되었고, 2025년 이후에서야 지원사업 분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림 3-6> 사업영역별 분포(2014~2025, N=212)



(6) 사업대상별 분포

총 212개의 사업을 사업대상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거나 이 사업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그룹이 누군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일반시민’ 대상 사업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사회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 등이다.

‘일반여성’은 여성노동자, 지역거주 여성, 주부, 청년여성 및 대학생 등 일반 성인여성이 참여하거나, 이 여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청소년·아동’은 청소년·아동 대상 성평등 교육,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최근 청소년·아동 디지털 폭력에 노출되어 의도하지 않

게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취약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그룹들의 역량강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들이다. 이주여성, 폭력피해여성, 미혼모, 한부모 등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가진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인권증진 사업 등이다. 장애아동 및 가출청소년과 같이 특수한 욕구를 가진 그룹을 위한 사업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중장년여성 및 중장년비혼 1인가구 등도 ‘취약그룹’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에서 소수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사업은 별도 범주로 분류하였다. 퀴어페미니즘 관련 이슈를 다루는 사업들의 경우, ‘성소수자’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재단 사업에서 퀴어페미니즘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분류범주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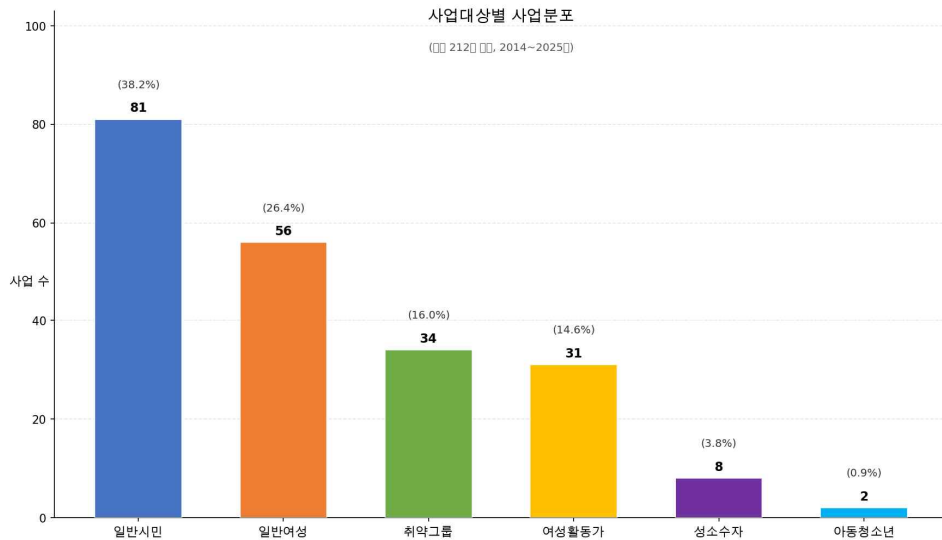
‘여성활동가’ 대상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페미니즘 액션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는 활동이다. 대학내 페미니스트 그룹이나 영영페미니스트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사업들도 이 범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사업의 38.2%(81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고, 청년여성, 주부, 여성노동자 등 성인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56개 사업, 26.4%였다. 취약그룹 대상 사업은 34개, 16%였고, 활동가 대상 사업은 31개 14.6%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사업은 2개에 불과한데,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장애아동이나 취약계층 아동 대상 사업이어서 ‘취약그룹’ 범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15> 사업대상별 사업분포

사업대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개)	(%)
일반시민	5	8	5	8	6	9	13	7	7	5	4	4	81	38.2
일반여성	4	5	6	9	6	4	6	4	5	1	3	3	56	26.4
취약그룹	6	2	2	4	3	5	2	3	2	1	2	2	34	16
여성활동가	0	5	6	2	1	2	0	4	1	4	4	2	31	14.6
성소수자	0	1	2	1	1	0	0	0	1	1	1	0	8	3.8
아동청소년	0	0	0	0	0	0	0	1	0	0	1	0	2	0.9
합계	15	21	21	24	17	20	21	19	16	12	15	11	212	100

<그림 3-7> 사업대상별 사업분포 (전체212개 사업, 2014~2025년)



(7) 활동방식별 사업분포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활동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별할 수 있다. 보통 하나의 사업은 하나의 활동방식만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여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실태조사 후 토론회를 개최하고 캠페

인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 형태들을 분류해본 결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강좌였다. 212개의 사업 중 87건, 41%가 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캠페인, 시위집회, 축제 등의 행사를 포함한 사업은 51건(24%)였다. 총 40건(18%)의 사업이 실태조사, 인터뷰, 모니터링, 자료분석 등을 포함한 조사·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네트워킹 형태의 사업은 29건(13.7%),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는 22건(10.4%)였으며, 상담 및 직접지원을 포함한 사업은 14개(6.6%)였다.

<표 3-16> 활동방식별 사업 분포(중복집계)

활동방식	세부 내용	빈도(건)	백분율(%)
교육·강좌	교육, 강좌, 워크숍, 세미나, 아카데미	87	41
캠페인·행사	캠페인, 시위, 집회, 축제, 체육대회, 북토크, 토크쇼, 행사	51	24.1
토론·포럼	토론회, 포럼, 집담회, 컨퍼런스, 심포지움	48	22.6
콘텐츠 제작	자료집, 영상제작, 기록화, 팟캐스트, 기사, 잡지, 출판	44	20.8
조사·연구	조사, 연구, 실태조사, 모니터링, 인터뷰	40	18.9
네트워킹·교류	네트워킹, 교류, 연대, 모임	29	13.7
문화·예술	영화제, 공연, 전시, 연극	22	10.4
상담·지원	상담, 집단상담, 치료, 물품지원	14	6.6

자료설명: 빈도와 백분율은 총 212건을 기준으로 함. 보통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가지 활동방식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중복집계하였으므로 총합은 100%를 넘음.

□ 공모분야별 활동방식 분포

활동방식은 무엇보다도 공모분야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공모 유형의 목적과 대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유공모 사업(총104건 기준)은 가장 다양한 활동방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강좌(42.3%), 콘텐츠 제작(29.8%), 조사·연구(26.9%)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는 여성운동의 핵심 활동방식인 지식 생산(연구), 인식개선(교육), 운동의 기록과 확산(콘텐츠)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됨을 보여주며, 개별 단체의 활동 다양성이 자유공모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정주제 사업(28건)은 교육·강좌(50%)의 비중이 가장 높고, 상담·지원(25%)과 조사·연구(25%)의 비중도 타 공모 유형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이는 지정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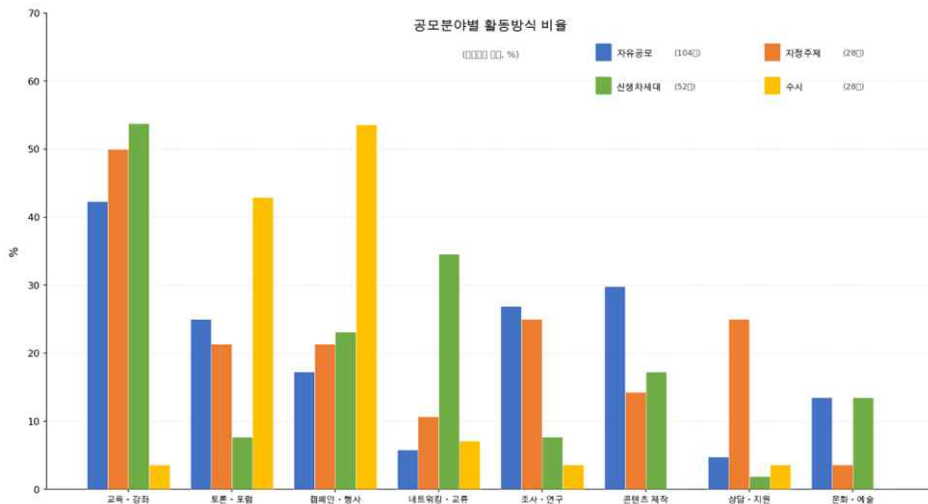
사업이 주로 폭력예방·인권증진 관련 주제를 다루는 특성상, 당사자 지원과 전문적 실태파악을 병행하는 사업 방식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 3-17> 공모분야별 활동방식 분포(빈도 및 비율)

활동방식	자유공모(104건)	지정주제(28건)	신생/차세대(52건)	수시(28건)	합계
교육·강좌	44 (42.3%)	14 (50.0%)	28 (53.8%)	1 (3.6%)	87 (41.0%)
토론·포럼	26 (25.0%)	6 (21.4%)	4 (7.7%)	12 (42.9%)	48 (22.6%)
캠페인·행사	18 (17.3%)	6 (21.4%)	12 (23.1%)	15 (53.6%)	51 (24.1%)
네트워킹·교류	6 (5.8%)	3 (10.7%)	18 (34.6%)	2 (7.1%)	29 (13.7%)
조사·연구	28 (26.9%)	7 (25.0%)	4 (7.7%)	1 (3.6%)	40 (18.9%)
콘텐츠 제작	31 (29.8%)	4 (14.3%)	9 (17.3%)	0 (0%)	44 (20.8%)
상담·지원	5 (4.8%)	7 (25.0%)	1 (1.9%)	1 (3.6%)	14 (6.6%)
문화·예술	14 (13.5%)	1 (3.6%)	7 (13.5%)	0 (0%)	22 (10.4%)
합계	172	48	83	32	335

주: 괄호 안은 해당 공모 구분 내 비율(%). 중복집계.

<그림 3-8> 공모분야별 활동방식 비율(중복집계, %)



신생·차세대 사업(52건)은 교육·강좌(53.8%) 비중이 전 공모 구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킹·교류(34.6%) 비중도 타 공모 유형과 비교할 때 뚜렷이 높다. 이는 신생·차세대 단체들이 구성원 역량강화와 단체 간 연대·조직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반영한다. 캠페인·행사(23.1%)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생·차세대 그룹의 활동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시 사업(28건)은 캠페인·행사(53.6%)와 토론·포럼(42.9%)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수시사업이 시의성 있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며, 즉각적인 사회적 이슈 대응과 공론장 형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8) 연속사업 수 현황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기 프로젝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 단계부터 2년 연속지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단년도 사업과 2년 연속사업의 비율을 60%와 40%로 각각 배정하여, 단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자유주제 2년 지원단체의 경우, 1차년도 사업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사업 공모 분야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연속사업은 2018년 이후 재단의 연속사업 공모 분야로 선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연속해서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 2년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업이고, 후자의 경우, 같은 이름의 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2회 공모한 사업이다.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연속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이름이 다를 경우는 연속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신생단체나 차세대 분야의 경우, 단체나 모임의 고유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본래의 지원 취지이므로, 동일 단체가 2년 이상 선정된 경우, 연속사업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연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된 사업은 총 23개 사업이다. 연도별 분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23년 이후부터 연속사업은 없다.

<표 3-18> 연속사업 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계
계	2	4	2	3	4	5	2	1	23
자유주제	2	1	1	3	4	2	1	-	14
폭력/인권	-	2	1	-	-	-	1	-	4
신생/차세대	-	1	-	-	-	3	-	1	5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경우, 동일한 사업을 한 해는 수시, 한 해는 폭력주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2.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의 주요 내용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1) 자유주제, 2) 지정주제, 3) 신생단체 및 차세대운동 지원, 4) 수시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주제 공모 사업

자유주제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4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자유주제 공모는 재단이 의제를 미리 규정하지 않고 여성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주제와 방식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 지원사업의 면면은 해당 시기 여성운동이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었는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자유주제 사업이 다룬 의제는 크게 세 흐름으로 묶인다. 첫째는 문화와 일상의 영역에서 성평등 담론을 확산하는 흐름으로, 여성영화제와 페미니즘 연극제, 미디어아티비스트 활동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업이 두드러졌다. 둘째는 노동·정치·정책의 제도 영역에 개입하는 흐름으로, 젠더 관점의 최저임금 운동, 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 성평등 취업규칙 만들기,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과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이어졌다. 셋째는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한 주제와 권리를 의제화하는 흐름으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비혼·노년 여성의 삶, 청년 여성의 주거권, 재난 시기 돌봄노동 등이 사업을 들 수 있다.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사업과 같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운동의 담론적 대응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표 3-19>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자유주제 공모사업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2014	경남여성회	색깔있는 "청춘도都市時樂" (도시에서 청춘들이 시도때도 없이 만나 소통하는 즐거움)	15,000
	군포여성민우회	<레알페미니스트프로젝트 : 여성주의, 일상이 되다>	11,907
	대구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살다! 살다! 살다!	11,82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운동판언어 다시짜기 프로젝트 - 곧대활동가의 언어를 새로 쓰는 싸가지활동가사전	10,940
	여성인권상담소소나의집	"경찰과 함께하는 여성폭력인식개선 교육&캠페인" -여성폭력 NO! NO! NO! 함께하는 포돌이 행복한 여성	3,598
	여성환경연대	여성들의 유쾌한 상상과 전환 - 에코페미니즘 대중화와 정책화 사업	12,900
	인천여성영화제	페미니즘, 영화로 지역에 접속하라	12,850
	일다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10,500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여성활동가 자기조직화와 네트워크 만들기 "동행"	14,980
	줌마네	집나온여자들(가제)'에 관한 영상물제작을 위한 워크숍과 상영회	12,000
2015	한국여성의전화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 "데이트공작소"	15,000
	가톨릭여성회관	비문해 여성들을 위한 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11,000
	레주파	도레미 프로젝트 (도시에뜨레인보우미디어프로젝트)	9,5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언니들에게 듣는다! (부제: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들)	18,00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평등 세상을 꿈꾸는 풀뿌리 여성학교	6,000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젠더브리징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	20,000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청소년 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인문학의 만남	6,000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16,00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만들기	12,940
	충주YWCA	한반도 중심고을의 성평등 문화만들기	8,00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말하다	14,000
	한국여성노동자회	Volume up! '울'들의 당나귀 귀	20,283
2016	한국여성민우회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18,00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	25,000
	구로여성회	성평등한 구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15,000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26,000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24,000
	여성환경연대	생존.자립.연대를꿈꾸는2030에코페미니즘학교&포럼	12,900
	일다	20,30대 여성들의 '차별 드러내기'	8,000
	조각보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들의말하기대회	6,000
	창원YWCA	Y-Feel-통 (성평등사회조성을위한생각과행동이소통되는지역사회만들기)	13,000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 응원 플랫폼 구축사업- '성 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16,00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젠더이분법 깨기 : '여성다움'에 질문을 던지다	20,000
	한국여성노동자회	젠더 관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방향 찾기	18,000
	한국여성단체연합	다시,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다.다.다	17,000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한국여성민우회		「외모 피로사회- 사진 없는 이력서로 시작되는 변화(가)」	17,000
	행복누리		여성주의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인권의날개로평등을	5,565
2017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 페미들아, 담쟁이가 되어 벽을 넘고 평등과 상생의 세상으로 가자!	26,835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3.0프로젝트: 여성미디어아티비스트 워크숍	26,000
	문화기획달		농촌 페미니즘 활력 충전소	17,00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필름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여성영화제 활성화 사업	24,000
	언니네트워к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 <뽕>	12,000
	익산여성의전화		중장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한 동화구연 사업	15,00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PRIDE HOUSE: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26,000
2018	1년 사업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페미! 일 단 만 내(경남페미! 일상의 단단한 페미니즘을 만나다!)	25,250
		문화기획달	농촌x페미니즘+남성 '화오리와 친구들'	25,25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리> 디지털화 사업	20,000
		언니네네트워к	모두를 위한 스포츠 :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가)	10,000
		여성환경연대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 플랫폼을 위한 담론개발과 대중화	25,250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7,620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기록하기	25,250
		한국여성단체연합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담론 확산및 입법 방안 연구	25,250
	2년 사업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17,000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30,000
2019	1년 사업	한국여성민우회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8,00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 센터	페미니스트 토크쇼 장·반·합: 세대별 페미니즘 운동, 종합을 향하다	20,000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2:여자들의 일 경험 기록하기/공유하기	14,000
		여성환경연대	스밈: 곳곳에 스며드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	10,000
		대구여성영화제	여성, 영화로 만나다.	20,000
		일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 ACTion 발굴	7,85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페미니스트x2020총선 “페미니스트 정치, 국회를 점거하겠습니다.”	20,000
		창원여성회	성평등, 노동을 잇다	15,000
	2년 사업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17,000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30,000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난민 여성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 이야기 책	20,000
2020	1년 사업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Riding the wolf)'	10,000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10,500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20,000
		언니네트워к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27,600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20,000
		여성환경연대	여성 위생용품 사용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환	20,000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2년 연속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25,00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20,000
		여성인권상담소 소나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10,00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20,000
2021	1년 사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s Korea Peace Appeal	15,000
		쌍투창작소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 세상	20,000
		대구여성영화제	대구경북 여성영화 열전 & 아카이브	15,000
		한국여성민우회	시는 성차별이 뭘지 알까?	14,100
	2년 사업	여성인권상담소 소나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20,000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19,94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20,000
2022	1년 사업	비온뒤무지개재단	페미니즘X퀴어: 유튜브에 무지개를 띄우다	20,000
		한국여성민우회	똑딱똑딱, '가족' 법, 제도, 문화를 다시 짓다	14,000
		한국여성단체연합	다름과 다툼으로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일터 이야기	17,000
		일다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9,660
		서울여성노동자회	365배 강해지는 치유와 재생의 연대	20,000
		너머서	공공홍보물 젠더 혁신을 위한 디자인 이미지 개발 및 확산	10,000
	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19,980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19,976
2023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열 번째 부산여성영화제: 기억과 연결	15,800
	비온뒤무지개재단		퀴어 페미니즘으로 대중문화 읽기: 케이팝을 퀴어링	19,00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가자 성평등 모델!	18,00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주의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론과 실제	15,000
	한국여성단체연합		From Local to Global : 성평등 의제로 지역과 국가, 글로벌을 잇다	19,000
2024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반도 끝 여성노동자 불평등에 응답하는 <평등의전화>	10,000
	비온뒤무지개재단		온 세상에 성평등 무지개: 찾아가는 퀴어 페미니즘 플랫폼	16,000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일차지원과 성평등 취업규칙 만들기	10,000
	중마네		청년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집' 쓰기 워크숍	15,000
	페미니즘연극제 운영위원회		제6회 페미니즘 연극제	16,000
2025	반올림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한 활동과 기록	17,000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2025 FDSC 예비-사회초년생 디자이너 멘토링	13,000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노동자의 대응	20,000
	한국여성단체연합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18,000

출처: 여성재단 내부자료

2) 지정주제 공모사업

2015년 이후 지정 주제 공모사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인권증진’ 주제로 지속되고 있으며, SOS 모금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정주제 사업의 활동은 인식개선, 사법 감시, 피해자 지원이라는 세 층위에 걸쳐 있다. 아동·청소년과 이주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성인권 의식을 높이는 예방적 활동, ‘대법원 성폭력 판례 뒤집기’ 나 n번방 재판 방청 연대처럼 사법 체계의 젠더 편향을 견제하는 감시 활동, 그리고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는 지원 활동이 그것이다. 이는 지정주제 사업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의 산물로 인식하고, 예방—감시—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을 지향해 왔음을 보여준다.

재단은 일정 기간 젠더기반 폭력 분야 사업을 선정할 때, 상담원 양성과정이나 ‘교육’ 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상담소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담활동가 양성교육이 정부지원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정부 조직, 공공기관이나 직장 의무 교육이 되면서, 교육이 제도화된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재단은 국가 정책이 포괄하는 사업을 배제하고, 제도적 조치의 사각지대와 제도화된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재난과 안전’ 을 지정주제로 정하여, 재난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망 사업을 지원하였다.

<표 3-20> 지정주제 공모사업(2014~2025)

연도	지정주제	단체	사업명	금액 (천원)
2014	성평등정책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낸다	15,000
		한국여성단체연합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연석토론회]	15,000
2015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8,000
		의왕장애인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께"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8,000

연도	지정주제	단체	사업명	금액 (천원)
		성폭력상담센터	성익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화여성집	"비상!" 탐리에서 나를 찾다	5,000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10,000
2016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지역 아동, 청소년의 당당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	8,000
		의왕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게" (11)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성익식 향상을 위한 상담 심화프로그램	6,000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6,0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 보호" -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양성프로그램	10,000
2017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관악여성회	관악 아동폭력 안전네트워크 구축	10,00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현장과 이론, 활동이 만나는 반성매매페미니즘	10,0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분야 젠더 폭력 피해자 상담 가이드라인 만들기	10,000
2019	여성 폭력예방 및 여성인권증진	인양여성나눔회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대상별 강의안 및 인식개선콘텐츠 개발사업	7,50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 "선을 넘는 남자들, 벽을 깨는 여자들: 례, 테이블, 클럽의 성정치"	3,000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스트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5,000
2021	지정주제 (재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난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평등 안전망 만들기	15,000
	여성 폭력예방 및 여성인권증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의 품격: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7,192
		원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폭력, "누구나"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7,500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신문 Go! 261 Fund 성폭력피해생존자 run on 지원사업	5,000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 자립 지원을 위한 '내 안의 힘으로, 점프'	4,00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백래시를 타고 넘는 여성들	5,000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30여성 지방정치학교	5,000
2022	폭력예방 및 여성인권증진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	14,000
2023	폭력예방 및 여성인권증진	사람과 평화	'알성달성(알아기는 성인권, 달리보는 성인권)'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8,996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여성들의 안전한 성과 사랑을 위한 동행	8,965
2024	폭력예방 및 여성인권증진	사람과 평화	'알성달성 (알아보는 성인권 달리보는 성인권)'	12,000
		춘천여성민우회	n번방은 끝나지 않았다 - 디지털 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	10,660
		한국여성의전화	우리, 연결된, 큰 걸음 - 여성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15,000
2025	폭력예방 및 여성인권증진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포항 대흥동 헤(Her)스토리	8,0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차별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조사	15,000
	돌봄 주제 공모	서울YWCA	돌봄 노동에 잠식 당한 나의 인생 구하기 <페어 플레이 프로젝트>	12,000
		여성환경연대	완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12,000

□ 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 기획공모 사업

2018년 미투운동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재단은 특별기금을 모금해서 미투운동 관련 공모사업을 지원하였다. 기업 CSR 기금으로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주제로 3개의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개인 대상 #미투기금을 모금하여 미투운동 활성화와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5개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표 3-21> 2018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기획공모 사업

기금	단체	사업명	사업금액 (천원)
365mc/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²³⁾	한국성폭력상담소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하는성문화운동	25,0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분야 성폭력예방과 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5,000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표세스구축	25,000

<표 3-22> 2018년 미투운동 지원사업

기금	구분	단체	사업명	지원액
미투기금	미투운동활성화	인천여성민우회	<우리의 용기가 학교를 바꾼다> 인천의 10대 여성들의 스쿨미투 집중워크숍 및 안내서 제작기	5,000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사회를 향한 끝없는 외침,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 Action’	3,000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성폭력 예방과 미투 운동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주여성상담소‘비움’>	2,000
	성폭력피해자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생존자 일상회복프로젝트 ‘생존기트’	7,5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의 MeToo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Up	7,500

3) 신생여성단체와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사업

□ 지원배경 및 지원 내용

2015년 재단 지원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신생여성단체와 차세대 여성운동을 제

23) 365mc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만클리닉으로, 재단 내부에서 후원을 받는 것에 많은 부담과 고민이 있었다. 일부 위원은 이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차별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성폭력 대응 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재단과 여성단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내부자료: 2017년 배분위원회회의록).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 지원트랙을 신설,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서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신생단체 지원을 통해 여성운동의 외연을 넓히고,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재단 설립 초기의 다양한 사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재단 초기에는 수시지원사업을 통해서 신생단체나 지역풀뿌리 운동을 지원하였고, 2010~12년 사이에는 기획공모를 통해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2015년 이후, 정기공모 사업의 한 분야로 신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페미니즘 활동이 이미 설립된 단체 기반이 아니라 온라인 모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은 이렇게 정형화된 조직구조를 가지지 않고, 유연한 형태로 조직되는 그룹형태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025년부터는 ‘신생여성단체’ 지원과 ‘차세대여성운동지원’을 ‘차세대여성운동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차세대 여성그룹(모임)’과 ‘차세대 여성단체’로 구분하여 단체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그룹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 선정단체 및 사업내용

선정된 신생 단체들은 ‘한부모지원센터’,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기독여성연구원 홀다’,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안부를묻다 사회적협동조합’, ‘유니브페미’ 등 조직의 형태가 다양했으며, 차세대 그룹의 주체들은 주로 디지털 기반, 대학, 지역(농촌) 등 새로운 공간에서 등장한 2030 영페미니스트들이었다.

이들이 펼친 활동은 학내 성폭력 공론화와 총여학생회 재건 등 학내 페미니즘, 디지털 성범죄 고발과 불법사이트 폐쇄 운동 등 온라인 기반 활동, 그리고 농촌·주거·소수자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는 지역 기반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차세대 지원 트랙이 강남역 사건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새로운 운동 주체—온라인과 대학, 지역에서 출현한 2030 영페미니스트—를 제도화된 단체의 틀 밖에서 포착하여, 운동의 세대적·공간적 외연을 넓히는 통로였음을 보

여준다.

<표 3-23> 신생단체 지원과 차세대여성운동 지원 사업(2015~2025)

연도	구분	단체/모임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2015	신생	관악여성회	여성들의 성평등의식 UP 프로그램	5,000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큰)가족이 되기 위한 한(큰)걸음	5,000
2016	신생단체	문화기획달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5,000
		미혼모협회 인트리	새로운 반의 시작	5,000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우리는 한가지	5,000
2017	신생단체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도약을 뛰어 넘어 꿈이 현실로	4,4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Digital Sexualcrime Out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및 근절 사업	4,750
		FACE	청춘, 나의 첫 페미니즘(성평등 아카데미)	4,750
		강남역10번출구	영-영 페미니스트 그룹 연대 “꽃평유니온(가)” 결성 사업	4,750
		나쁜페미니스트feat. 대구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사건 1년, 지금, 여기, 우리.	4,750
		불꽃페미액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언니들의 성교육	4,600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떠돌고 움직이는 페미니즘, 와글와글	4,750
		사이다제작소	언어와 미디어를 비트는 여성주의 창작 프로젝트	3,000
		여성과학성이다르지도꼭같지도 않은이유	학내 여성주의 운동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	4,750
		<페미씨네>	페미씨네 달빛극장	4,750
		페이저터너	온라인 페미사이드를 넘어서' 책 출간, 북 콘서트	4,750
2018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BOGHI	페미스포츠 -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5,000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5,000
		범페미네트워크	범페미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 강화 사업	5,000
2019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5,417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찾아삼만리	5,482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불편한 연극>말하기 - 국가지원 연극의 성평등성 모니터링	5,482
		치맛바람라이더스	치맛바람라이더스 캠프아웃	5,482
		보스턴피플	우리에겐 조금 먼 가족이 필요해	5,482
		울산페미니즘기획단	스쿨미투 부스터 - '담장을 부수다'	5,482
2020	신생여성단체 지원(2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10,000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9,859
		유니브페미	2030 대학 페미 네트워크	5,0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일터, 삶터에서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농촌페미들의 역량강화	5,482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제2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5,482
		여성주의 사진그룹 유토피아	지방 노년 여성, 여성 청소년 사진 프로젝트 : 자기만의 꽃밭	5,482
		여나더스	제2회 우리목소리	5,482
2021	신생여성단체	청소년 페미니스트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10,000

연도	구분	단체/모임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지원	네트워크 위티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10,000
		유니브페미	2021 대학 페미 네트워크	10,000
		예문공	여성예술가 온 에어(on air)	10,000
	차세대	파도(FADO)	Acting Like FADO!	4,951
2022	신생여성단체 지원	기독교여성연구원 출다	영페미와 교회언니가 함께 하는 교회 내 성평등 탐구	9,990
		안부를 묻다 사회적협동조합	I'm 보도기자	10,00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 리더가 되다 - 여성정치학교	10,000
	차세대	스틸리쉬(stilish)	대구여성창작자 안전한 창작환경 만들기	5,482
2023	신생여성단체 지원	기독교여성연구원 출다	영페미와 교회언니가 함께 하는 교회 내 성평등 탐구	9,990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의 주거권 확보와 여성주거공동체 건립을 위한 도전	10,000
		교회여성아카데미	지구 위기 시대, 교회 여성 리더십으로 길을 열다	10,0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공폐단단	생존자랑댄스 : 생존을 자랑하고 생존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한 치유	5,482
	2024	신생여성단체 지원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의 주거권 확보와 여성주거공동체 건립을 위한 도전
페이즈			교문을 뛰어넘은 여성들	10,0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반니 (변경전:공폐단단)	우리의 생존자랑 이야기: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몸과 마음 치유 회복 프로젝트	5,482
		우먼스베이스캠프	모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삶기술학교	5,482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장기*지역	5,482
2025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여성강독네트워크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5,482

4) 수시신청사업

□ 수시지원사업 체계 수립과 변화

재단은 2003년부터 배분사업비 잔여금을 활용하여 수시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수시지원사업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²⁴⁾ 초기에 수시사업의 배분대상은 1) 신생단체 설립 지원,²⁵⁾ 2) 풀뿌리 여성운동 지원, 3) 현안 여성운동 이슈

24) 재단의 수시시행세칙에 의하면, 수시기획사업은 재단이 내용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수시신청사업은 사업수행단체나 기관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신청하고,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업이다(재단 내부자료: 수시시행세칙)

25) 수시시행세칙 마련 후 제1호 지원사업으로 '참여성노동복지터'의 실태조사 및 사무실 개소식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여성단체 설립기반 마련 지원사업 분야로 분류되었다. 제2호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사업을 지원하였고, 제3호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연대사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계 핵심 이슈에 대한 연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대응 연대사업이었으며, 2010년 ‘여성운동 및 여성복지발전을 위해 인규베이팅이 필요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2011년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의 5%를 수시지원사업비로 배정하여 긴급 의제 대응 활동지원을 정례화하였다. 2015년 신생단체 및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트랙이 신설됨에 따라, ‘인규베이팅 사업’이나 ‘신생단체 설립지원’ 사업은 수시사업 범위에서 삭제되고, ‘긴급성’이 가장 중요한 수시사업 요건이 되었다.

□ 주요 사업내용

재단은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총 26개의 수시신청사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 강남역 사건에 대한 대응, 2018년에는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 활동, 2024년 텔레그램 댄페이크 성폭력 대응활동 등 긴급한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지원하였다. 선거기간 중 여성계가 요구하는 정치의제 공론화 활동,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백래시 현상에 대한 공동 대응 활동 등이 수시사업으로 전개되었다.

<표 3-24> 수시신청사업(2015~2025)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지원금 (천원)
2014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	4,91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여성시민단체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5,000
2015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0대 총선 의제 만들기 - 더 나은 삶을 위한 100가지 전략	5,000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5,000
2016	한국여성단체연합	강남 '여성 살해' 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2,350
2017	여성문화네트워크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연속 간담회	4,400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페미니스트 직접행동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5,00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여성이세상을연다 성평등개헌	3,600
201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미투 포퍼먼스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5,000
	전북여성단체연합	#미투(MeToo)를 너머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	3,243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	5,000
	한국여성의전화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 - #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5,000
201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포럼 "선을 넘은 남자들, 벽을 깨는 여자들: 룸, 테이블, 클럽의 성정치"	3,000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영요구 폐기하라>	5,000
2020	여성문화네트워크	2020 4.15 총선 대비, 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	3,000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지원금 (천원)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학생 성추행사건 및 N번방 긴급 대응행동	3,000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모임: 증언과 구술의 번역 - 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논의하기	3,000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 동구 중구민에게 찾아가는 가정폭력상담소	2,782
202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백래시를 타고 넘는 여성들	5,000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30여성 지방정치학교	5,000
2022	한국여성민우회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5,000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22년 대선평가 및 2030청년 정치세력화 토론회 -다른 미래 다른 정치를 위한 원탁토론회	5,000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1,000
2023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한국여성대회	5,000
2024	한국여성단체연합	제8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심의 대응 활동	5,00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위한 긴급 활동	5,000
2025	한국여성민우회	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5,000
	한국YWCA연합회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	5,000

제3절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1. 사업개요 및 배경: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개입

한국여성재단은 샤넬재단의 후원으로 2023년 5월부터~2026년 5월까지 3년간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을 주관, 운영하였다.²⁶⁾ 이 사업이 논의되고 기획된 2022~2023년은 한국여성운동이 코로나 시기와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운동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던 시기였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 갈등 담론의 미디어 확산,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조직적 반발 등 여성운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2장 참조).

이러한 환경에서 ‘브레이브 체인지스(Brave Changes)’ 사업은 개별 이슈의 해결보다 여성운동 생태계를 조성·활성화하고자 여성운동 생태계의 각기 다른 층위를 공략하는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 즉 여성운동지원, 코어지원, 콜라보지원 사업으로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기획지원사업과 쉼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 **여성운동 지원사업(Movement Building):** 미래지향적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5개 의제(젠더폭력, 환경/노동, 블랙시, 사이버성폭력, 돌봄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수행할 5개 단체를 3년 연속 지원(단체당 총 9,000만 원)하였다. 동일단체, 동일사업을 이런 사업규모로 연속 지원한 것은 재단 최초였다.
- **코어 지원사업:** 인건비·임대료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직접 지원(단체당 1,000만 원)하여 소규모·지역·신생 여성단체의 조직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였다. 연간 10~11개씩 3년에 걸쳐 총 30개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다. 이런 방식의 지원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 지원 원칙을 견지해왔던 여성재단의 배분사업과 다른 새로운 점이였다.
- **콜라보지원사업:** 2개 이상의 단체가 팀을 이루어 상호 학습·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4~5개 팀(팀당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단체연합의 3.8 여성대회, 국제여성영화제 등을 기획지원 형태로

26) 샤넬재단(Fondation Chanel)과의 공식적인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 2026년 7월까지이다.

3년 연속 지원하였으며, 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공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아카이빙을 위한 사업과 연구사업을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표 3-25>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세부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목적	지원규모	지원방식
여성운동지원사업 (MovementBuilding)	중장기 여성운동 아젠다 개발 및 확산	5개 단체 단체당9,000만원(3년)	3년 연속 지원
코어지원사업 (ResilienceCore)	여성단체 조직 역량 및 회복탄력성 강화	매년 최대 10개 단체 단체당최대1,000만원	단년도 지원
콜라보지원사업 (CollaborativeLearning)	단체 간 수평적 연대 및 상호학습 촉진	매년 4~5팀 팀당500만원	단년도 지원 (2개이상단체협업)
기획·쉼지원사업	3.8 여성대회 지원 국제여성영화제 시상지원 여성운동 네트워크 강화 및 활동가 회복 지원	별도 책정	수시기획, 특별 지원
아카이빙 및 연구사업	재단 자료 기록화/ 기존사업 성과와 과제 연구	별도 책정	위탁 사업

2. 세부사업별 지원 현황

2023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파트너 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건 수를 개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6>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수(2023~2026)

연도	계	공모사업			기획지원 (건)		쉼지원
		여성운동* (건)	코어 (건)	콜라보 (건)	운동	콜라보	쉼지원
2023	21	5	10	4	2	-	-
2024	23	5	11	4	2	1	-
2025	30	5	9	5	2	-	9
계	74	15	30	13	6	1	9

*여성운동 지원 5건은 동일단체에 대한 3년 연속 지원사업. 기획(운동)지원은 2024~2026년 지원.

사업 시작(2023년 8월)부터 2026년 6월 현재까지 총 74개 단체·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누적 참여 단체 수는 총 100개에 이른다.

(1) 여성운동지원사업 (Movement Building Grant Program)

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운동 의제를 공론화하고 행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 형성과 확산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년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정 기간 연속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형평성 이슈와 충돌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없었다. 재단은 Brave Changes 사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운동 미래 의제 형성과 이슈 확산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장기적·미래지향적 성평등 아젠다를 개발·확산할 수 있는 여성단체 5개를 선정하여 2023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단체당 최대 9,000만 원을 연속 지원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7> 여성운동 지원단체 및 사업

단체명	지원 아젠다	사업명	지원금
서울여성회	젠더폭력	젠더폭력, 해결은 가능하다!	9,000만원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노동환경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청소·재활용선별장 여성노동자 건강안전실태조사및시민캠페인	9,000만원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성별인식 격차/백래시	성별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확산	9,000만원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사이버 젠더폭력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길어올리기	5,851만원*
한국여성민우회	돌봄/재생산	혁명적 사랑: 우리의 돌봄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9,000만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나. 코어지원사업 (Resilience Core Grant Program)

재단의 배분사업은 사업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비 비중을 적절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안정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시기나 신생단체나 차세대운동 그룹에 대해서는 운영비 비중을 더욱 높여서 이러한 의지를 더 분명히 드러냈다. Brave Changes 사업에서는 재단의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사업프로그램 없이도 조직기반 강화만을 위한 코어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이행하였다.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여성단체의 조직 기반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총 30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하였다. 소규모 단체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여 조직 운영 위기에 처한 단체들에 대한 긴급 지원 역할도 수행하였다.

<표 3-28> 코어지원사업 지원단체 및 지원영역

선정연도	지원단체	주요 지원 영역
1차년도 (2023년)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이주와가치,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여세연, 줌마네, 충북여성살림연대(10개)	인건비, 임대료, 조직역량강화, 활동가 역량강화
2차년도 (2024년)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안양나눔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진해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줌마네(11개)	인건비, 공간개선, 임대료, 활동가 역량강화, 운영비
3차년도 (2025년)	대구여성노동자회, 비비사회적협동조합, 언니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트리, 창원여성의전화(9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공간개선, 활동가 역량강화

다. 콜라보지원사업 (Collaborative Learning Grant Program)

콜라보지원사업은 단체 간 연대와 상호학습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단체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협업 사업이다. 활동가 역량강화·조직문화 개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협업 사업을 3년간 총 13팀(28개 이상 단체 참여)에 지원하였다. 팀당 500만 원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나, 참여 단체들은 사업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3-29> 콜라보지원사업 지원팀 및 주제

연도	지원주제 및 지원팀	협업 유형
1차년도 (2023년)	이주관련 활동역량강화(이주와가치/성서공단STU), 동료활동가 찾기(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마포여성네트워크),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고양여성민우회/광주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안개발(안산공동체미디어/붉은뿔소리)	활동가역량강화, 조직문화개선, 교육안 개발
2차년도 (2024년)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서울동북여성민우회/도담마을), 여성생태교육(서대문공동체라디오/신여성/자본-여성-기후연구), 지역기반돌봄과 연결(줄마네/울림두레돌봄), 상담원역량강화(내일여성센터/푸른희망담쟁이)	활동가역량강화, 지역 교육 네트워크 구축
3차년도 (2025년)	이주여성활동가 연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진주)/(사)함께하는세상(양산), (사)이주민과함께(부산), 여성주의상담(대전여민회/위기사회연구원), 구정참여학습네트워크(서울동북여성민우회/더니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전북활동가연대(전주성폭력상담소/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교회내 성폭력 대응(한국교회여성연합회/기독교반성폭력센터)	지역 네트워크, 교육 개발, 활동가 연대

라. 기획지원 및 쉼지원사업

외환차익으로 확보된 예산과 추가 배정분을 활용하여 여성운동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는 기획지원 사업을 병행하였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제39회~제41회)를 3년 연속 지원하고(매회 3,000만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올해의보이스 부문을 지원(제26~28회, 총 1,200만원)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노동자회 및 11개 지부의 콜라보 기획지원(1,000만원)을 통해 전국적 여성노동운동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사업반납 예산 등을 활용하여 2026년에는 활동가들의 소진 예방과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쉼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총 9개 단체·활동가에게 15,535,000원을 지원하였다.

마.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난 20년간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물을 디지털화하여 여성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진행 중이다.

3. 사업의 의의와 시사점

Brave Changes 사업은 정부 지원 축소와 백래시라는 여성운동의 위기 속에서 한국 여성운동 생태계에 ‘산소호흡기(CPR)’이자 ‘새로운 도약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할 수 있다. 위축된 활동가들에게 심리적·물질적 안전망을 제공하였으며, 개별 단체의 생존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였다. 또한 이 사업은 퇴행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여성운동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어적 의미를 넘어, 젠더폭력·기후정의·돌봄·백래시·사이버성폭력 등 핵심 여성운동 아젠다를 제시하고 새로운 운동 전략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주도성을 보여준다. 3년 연속지원, 협력사업 지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이라는 혁신적 지원방식을 도입한 것도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Brave Changes 사업은 글로벌 기업재단과 파트너십으로 형성된 첫 사업으로 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제한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글로벌 기업재단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정기공모사업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2025년까지 동일한 사업명으로 지속되어 온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사업명은 동일하지만,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대응하면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자유주제 단일 공모는 2011년 기획공모 도입, 2015년 신생여성단체 지원, 2017년 차세대여성운동 트랙 등으로 분화하였고, 이러한 지원범주의 분화는 여성운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결과였다. 특히 신생단체와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조직화되지 않은 새로운 운동 주체가 부상한 운동 유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자유주제 공모가 사업 성과와 모금 명분을 가시화하기 어렵다는 재원마련 환경을 반영하여, 젠더폭력이나 돌봄과 같은 지정주제 트랙이 분화되었다.

공모범주별·연도별 추이는 이러한 분화의 결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지난 12년간 자유주제 사업이 전체의 49.1%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수는 뚜렷이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전체 지원사업이 11개, 1억 3,048만 원으로 역대 최소 규모에 이르렀다. 트랙의 다각화가 한정된 기금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결과를 낳으면서 개별 트랙의 사업 수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수행단체의 77.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체 배분의 30% 이상을 지역에 할당한다는 재단의 내부 원칙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요약하자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변화하는 운동 지형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지원구조를 진화시켜 왔으나, 그 진화는 정채된 기금 규모라는 제약 위에서 이루어졌다. 사업의 다각화가 자원의 확충을 동반하지 못할 때, 개별 사업영역의 영향력 약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운동 지원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재단은 그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재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의

CSR을 여성재단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여성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여성학 석사과정’ (2007~ 현재), 활동가의 쉼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짧은 여행, 긴 호흡’ (2004~2020), ‘공간개선 사업’ 등은 재단의 대표적 기획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활동가들이 재개를 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Brave Changes 사업은 글로벌 기업재단과 파트너십으로 형성된 첫 사업이었다. 위에 언급된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보다 규모나 기금 사용의 유연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모금 기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기업모금 기반 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4장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별 지원사업들이 만들어 낸 변화를 세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단체 활동가 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재단 사업담당자 및 배분위원 인터뷰를 종합하여 사업 운영의 쟁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두 절의 논의를 종합하여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1절 성과: 실천의 재구성을 통한 변화의 경로들

이 절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변화’와 ‘임팩트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개별 지원사업들의 실천 활동이 만들어 낸 변화의 양상을 1) 성차별적 언어·인식·문화의 전환, 2) 법·제도·정책의 변화, 3) 변화 주체의 형성과 확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 안에서 사례들을 다시 정렬함으로써 개별 활동의 사회·구조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세 영역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언어와 인식의 변화는 제도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은 다시 담론과 제도의 재구성을 촉진한다. 다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활동 사례를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 간 연결 지점은 종합 분석(4항)에서 다시 다룬다.

1. 성차별적 언어·인식·문화의 전환

첫 번째 변화 영역은 성차별 구조를 떠받쳐 온 언어·인식·문화의 균열이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은 ‘몰카’를 ‘디지털 성범죄’로, ‘낙태’를 ‘재생산권’으로, ‘저항이 없으면 동의’를 ‘적극적 합의’로 다시 명명함으로써, 보이지

않던 폭력을 가시화하고 사회적 의제로 전환시켰다. 미투운동은 흩어진 개인의 분노와 용기를 집합적 언어로 조직했고, 백래시 국면에서는 혐오 담론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며 사실에 근거한 대응 논리를 축적했다. 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 같은 일상의 공간은 페미니즘이 입문하고 확산되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의제화의 대표 사례인 미투,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에서 출발하여 젠더 담론의 전복(섹슈얼리티, 백래시), 일상으로의 확산(미디어, 문화예술, 스포츠) 순으로 살펴본다.

1) 아젠다세팅: 사회적 의제로의 전환

(1) 미투(#MeToo) 운동: 개인의 경험을 집합적 언어로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2018년, 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흩어진 개인들의 분노와 용기가 ‘조직된 사회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지원사업들이 거둔 핵심 성과는 단순한 피해 고발의 증폭이 아니라, 미투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로 전환시킨 데 있다.

□ 2018년 광장과 ‘#미투운동 지원사업’

2018년 미투국면이 시작되자 재단은 재단 건물 1층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의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시민행동은 6개 단체에서 활동가 1인씩을 파견해 상황실을 꾸리고 기자들에게 매일 이슈 브리핑을 하고 매주 집회를 조직하였다. 수시지원사업을 통해 광장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도 나섰다. 수시지원사업 ‘2018분 이어 말하기’는 광장에서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밤새 이어감으로써 우리 사회 성폭력의 의미를 다시 쓰게 하였고, 성폭력이 개인의 피해이자 구조적 산물임을 널리 알린 공간이었다.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는 이 흐름을 제도 변화 요구로 응집시켰으며, ‘미투 퍼포먼스 - 세상을 부수는 말들’은 성착취 구조와 성폭력이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가시화했다.

“끝까지 울고 웃고 같은 말을 하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각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평등을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 강하게 합니다.” (재단 내부자료 2018: 사업결과 보고서)

이러한 광장의 활동은 수도권에 그치지 않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2018)은 ‘#미투(MeToo)를 너머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라는 수시지원사업을 통해 즉각적으로 광장을 열었으며, 서지현 검사 사건과 이운택 사건의 중심지였던 경남지역의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역 미투연대를 결성하여 사법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요구했고, BRIDGE는 부산에서 차세대 활동가들이 대학 미투집회와 부산 미투집회에 연대하며 지역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이는 미투운동이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였다.

재단은 ‘#MeToo 지원사업’을 긴급 모금·편성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민우회 등 다섯 개 사업이 미투 국면의 액션을 이어가도록 지원하였다.

□ 2019년 이후 #미투운동

2019년 차세대 지원단체인 울산페미니즘기획단은 해당 지역 최초로 스쿨미투 대응 활동을 시작하며 교육감이 단체 행사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유도했다. 대구여성영화제와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인권영화제는 미투운동의 흐름을 문화적 공론장으로 이어가며 대중적 담론을 형성했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반성 폭력 운동의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미투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에게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한 여성운동의 연속성을 이어주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전신)은 자칫 자극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스쿨미투를 ‘학내 성평등 운동’으로 전환시키며 운동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으로 재설정하였다. 339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소년이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

라 국제사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임을 증명한 활동이었다. 그 결과 UN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성교육 표준안 폐지와 포괄적 성교육 마련 등을 권고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미투의 정신은 운동 내부를 향한 성찰로 이어졌다. 페미씨어터의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는 연극제 기간 중 발생한 위계 폭력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조사·공개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처리의 긍정적 롤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미투가 외부로 향한 고발을 넘어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실천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화기획달은 문단 미투 이후 소외를 겪던 최영미 시인을 초청하여 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 디지털 성범죄: 이름을 바로잡는 것에서 사회적 규제로

디지털 성범죄 의제화는 디지털 공간의 폭력에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데서 출발했다. 2017년 DSO(Digital Sexualcrime Out)의 ‘디지털 성범죄 아웃-새단어 프로젝트’는 ‘몰카’를 ‘성폭행’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로, ‘단순 시청’을 ‘시청 강간’으로 바꾸었다. 이는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라, 오락이나 관음으로 묵인되던 행위를 성폭력의 언어로 재정의함으로써 가해의 구조를 가시화한 인식론적 전환이었다.

“카드뉴스가 올라가고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았으며 또한 언론사에서 빠르게 해당 문제에 대하여 조명하는 것을 보며 인상이 깊었습니다. 과거에 활동할 때는 직접 언론사에 연락을 하여 문제를 조명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지 않는 이상 기사화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재단 내부자료 2017: 사업결과보고서)

같은 해 DSO는 국내 웹하드에 성범죄 영상을 대량 유포한 해비 업로더 10여명을 집단 고소하며 언어의 전환을 사회적 고발로 이어갔다. 또 경찰의 미온적 수사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지원사업들도 디지털 성폭력을 사회적 의제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2018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전 지구적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시도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유니브페미는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벌어지는 n번방 관련 2차 가해와 미투 고발자에 대한 혐오 표현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다. 기자회견과 지하철 광고를 통해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을 촉구한 이 활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라는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이끌어냈다. 디지털 공간의 혐오 표현이 처음으로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4월 마녀행진을 대신하여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와 여성혐오성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본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36개 단위가 공동주최하고 그 외 45개 단위가 추가로 요구한 연명에 응해주셨을 때도 떠오르고,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각자의 공간에서 분투하고 있는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따뜻했던 환대가 있었는데요.”(재단 내부자료: 사업결과보고서)

재단은 기술의 고도화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지원하였다. 202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AI 기술의 성차별적 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최초의 ‘페미니스트 AI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202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 남성 중심의 온라인 성·인종 착취 정보가 베트남 현지의 오프라인 성착취 구조를 조직화하는 실태를 현지 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국경을 넘는 구조적 폭력임을 밝힌 이 조사는 국제 공동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 교육과 모니터링의 확장: 사각지대를 향하여

한편 2018년 안양나눔여성회와 2021년 원주여성민우회 등은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반영한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2023년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발달장애여성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디지털 성범죄 식별 교육을 통해 그동안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임파워링 하였다.

2024년 춘천여성민우회의 디지털 성착취 재판 모니터링 활동은 가해자 처벌의 과정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새로운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2025년 여성감독네트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재민이’를 제작했다. 청소년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딥페이크 문제를 어른들의 경고가 아닌 또래의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예방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올해는 ‘N번방을 넘어서-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올해의 보이스상 수상한 것도 그렇고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 시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시작된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재단 내부자료 2024: 사업결과보고서)

(3) 재생산권: 국가의 도구에서 여성의 권리로

이 영역의 핵심 성과는 임신중지를 둘러싼 논의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소모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성교육·피임·임신·출산·양육·환경을 포괄하는 ‘재생산권’의 프레임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1) 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 권리

201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생산을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피임할 권리, 임신을 중단할 권리, 임신을 유지할 권리,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 양육을 지원받을 권리가 모두 하나의 권리 체계 안에 놓인다는 것이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운동의 오랜 의제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 개념과 연결시켜 기본권 보장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대중 설득 이전에 나 스스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TF 논의 과정은 이러한 고민과 쟁점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으며, 사업명에 있는 ‘재생산권 확보’라는 말의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였다.”(재단 내부자료 2018: 사업결과보고서)

2020년 일다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 담론을 형성했다. ‘낙태죄 부활’이 아닌 ‘재생산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공론화했고, 2025년 여성환경연대의 ‘환경기 돌봄 공론장’은 재생산권 논의를 생애 전체로 확장했다.

재생산권 담론은 가장 소외된 목소리를 ‘중심’으로 가져옴으로써 그 지평을 넓혔다. 2015년 장애여성공감은 우생학적 관점과 보호 중심의 프레임 속에서 통제 대상으로 다루어져 온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을 문제화하고, 장애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자임을 선언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난임 지원 정책 모니터링은 국가의 난임 지원이 여성의 건강권이 아니라 출산을 제고를 위한 인구 정책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음을 드러냈으며, 여성환경연대와 일다는 여성의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닌 ‘자기 돌봄의 주체적 공간’으로 재정의했다.

2) 젠더 담론의 확산과 전복: 주류 담론의 균열

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젠더 담론이 생산되고 확산된다. 이 과정은 성평등 인식 변화의 본질적인 차원이다.

(1) 섹슈얼리티: 금기에서 권리로

이 시기 섹슈얼리티 관련 사업들이 거둔 가장 근본적인 성과는 섹슈얼리티를 사적이고 위험한 영역에서 꺼내어 공적인 권리의 언어로 다시 놓은 것이었다. 누가 욕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몸이 정상으로 인정받는가, 누구의 관계가 사랑으로 불릴 수 있는가. 이 사업들은 그 질문들을 금기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 존재의 기록: 가려진 정체성을 세상 앞으로

2015년 레주파는 도시에 사는 여성 성소수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영상·사진·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경험을 지원했다.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스스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언니네트워킹은 퀴어와 페미니즘을 결합한 매거진 [뽕]을 발간하며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대안 매체를 구축했다.

2018년 일다는 이 작업을 더 넓게 펼쳤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20인의 섹슈얼리티를 기록한 이 프로젝트는 동성애·비혼·BDSM·인터섹스·드랙 퍼포머·폴리아모리 등 그동안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정체성들을 공론화했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었던 인터섹스 당사자의 기록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과 강제적 수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 기록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자체가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록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있어서 섹슈얼리티 담론은 감옥과도 같은 두터운 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다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디에도 소통할 수 없었던 갑갑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임파워먼트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 참여자들의 메시지에 큰 힘을 받았다.”(재단 내부자료 2018: 사업결과보고서)

□ 욕망의 언어: 금기를 깨는 성교육

성교육의 문법도 전복되었다. 불꽃페미액션의 ‘언니들의 성교육’은 위험과 예방 중심의 기존 성교육을 넘어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적극적 합의’ 캠페인은 성폭력 판단 기준을 ‘저항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했다. 대구여성장애인연대는 무성적 존재로 여겨져 온 발달장애여성의 사랑하고 욕망할 권리를 선언했으며, 두잉 사회적협동조합과 서울YWCA 등은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종교 문화 속에서 금기시되던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2) 백래시 대응: 혐오의 시대,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이 백래시에 대응하면서 거둔 성과는 혐오 세력의 공격을 구

조직 폭력으로 명명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언어와 전략을 구축한 것이었다. 나아가 안티페미니즘이 거세질수록 페미니즘 운동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언어를 갖추고 더 넓은 연대를 만들며 강건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백래시 대항 담론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실천이고 재구성이었다. 혐오의 언어에 맞서 싸우는 것을 넘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하는 작업이었다.

□ ‘백래시 시대의 페미니즘’ 을 다시 쓰고 계속 쓰다

2019년 일다는 페미니즘의 지형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건·종교·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하는 뉴페미니스트 그룹 20팀을 발굴하고 기록한 이 사업은, 페미니즘이 특정 온라인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백래시가 페미니즘을 특정 집단의 과격한 언어로 축소하려 할 때, 이 기록은 페미니즘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 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를 실증하는 대항 담론이었다.

“작년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폐지 총투표가 발의되던 즈음, 아빠가 말했다. “여기서 지면 너 때문에 총여가 없어지는 거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총여가 사라지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딸을 괴롭게 만들려고 질책하듯 한 말은 아니었다. 아빠는 우리의 총여 재건 운동과 폐지 총투표 거부 운동을 내내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준 지지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에 밤마다 울었다. 그리고 아침이면 등교해 필사적으로 총여 폐지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 (일다 2019,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 ACTion 발굴 시리즈 - 총여는 폐지됐지만, 페미니스트들은 2막을 열었다’ 중에서)

2022년 같은 단체가 진행한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는 이 작업의 심화판이었다. 각계의 페미니스트 20인이 역차별 논쟁과 안티페미니즘 선동에 대응하는 철학과 가치를 언어화한 이 기록은 AI·능력주의·기후정의 등 동시대의 의제와 페미니즘을 연결함으로써 백래시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활동가들에게 연대와 응원을 제공했다. 우리는 혐오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언어로 페미니즘을 다시 그리고 계속 써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

□ 혐오에 맞서는 방식: 침묵도 맞대응도 아닌 사실에 근거한 논리로

여성운동이 혐오와 백래시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담론이 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권손징악’은 유튜브라는 안티페미니즘 선동의 주요 전장에 직접 뛰어든 한국 최초의 퀴어·페미니즘 접목 시사 정치 토크쇼였다. 이 방송은 여성주의자·성소수자 혐오 선동 단체들이 퍼트리느 가짜뉴스와 반여성주의적 주장에 맞서 논리적인 반박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는 논리를 해체하며 혐오 세력이 점령한 담론의 공간을 되찾으려는 실천이었다. 혐오를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사실과 논리로 가짜뉴스를 해체하는 대항 담론을 만들었다.

‘반 여성주의자·성소수자 혐오선동 단체들이 퍼트렸던 가짜뉴스와 반 여성주의적인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를 페미니즘이라 주장하는 상황에 맞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재단 내부자료 2022: 사업결과보고서)

2019년 충북의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페미 찾아 삼만리’ 프로젝트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 원칙을 실천했다.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중 남초 커뮤니티의 조롱과 욕설을 맞닥뜨린 이들이 택한 대응은 침묵도 맞대응도 아니었다. 그 공격을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지표’로 삼아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백래시는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두려움이 아닌 확인의 언어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실천이었다.

□ 정책의 퇴행을 언어화하다

백래시가 제도 정치의 언어로 진입한 국면에서 정책의 퇴행을 언어화하고 균열을 내는 메커니즘은 더욱 중요해졌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구

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후보의 캠페인은 백래시가 제도 정치의 언어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등의 수시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광장을 만들었다. 이 활동들은 혐오가 공식적인 정치 언어가 되는 순간, 페미니즘은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응대할 것이라는 점을 공고히 하였으며, 여성들을 외면하는 정치권력은 역사 속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경험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고자 하는 시도였다.

202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자체 부서명에서 ‘여성’이나 ‘성평등’이 조용히 삭제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추적했다. 정책의 후퇴는 때로 법 개정이나 공식 선언이 아닌 부서명 변경이나 예산 삭감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이루어진다. 이를 비교·분석하여 국회와 국제사회에 알린 작업은 퇴행을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자 담론임을 보여주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이름 붙이지 않은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백래시 대항 담론의 출발점이었다.

“각 지역별로 여성정책 연구조직이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조직과 통·폐합되거나, 성평등 전담부서 명칭에서 ‘성평등’이나 ‘여성’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성평등정책이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제와 성평등정책을 모니터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매일 대응해야 하는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거치자 각 단체들의 정책 역량은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재단 내부자료 2023: 사업결과보고서)

□ 현장을 지키다: 지역과 일상에서의 백래시 돌파

2021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대관 신청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단체를 받지 않는 내부지침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티는 이를 침묵으로 넘기지 않고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혐오와 백래시로 공식화하면서 해당 기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기관은 잘못을 시인했지만, 발표된 사과문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과 성평등 인식의 부족은 ‘미흡한 대처’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졌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이 과정을 칼럼으로 작성했으며 결과보고서에도 그대로 기록하며 공론화하였다. 부당한 거절과 불완전한 사과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경험하는 백래시에 맞서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방식이었다.

2022년 너머서는 성평등 영화제 개최 과정에서 하루 140여 통의 집단 민원과 공공기관의 일방적 행사 취소를 경험했다. 이 사태는 백래시가 단순한 온라인 혐오를 넘어 공공기관이 굴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너머서는 이를 기록하고 성평등 이미지 보급을 지속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성평등이 후퇴하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을 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계속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혐오에 대한 강력한 응답이었다.

‘위축’ 대신 ‘말하고 기록하고 버티는 용기’를 선택한 것이 이 시기 백래시 대항 담론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기구 회의장에서, 공공기관의 취소 통보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되며 백래시 시대를 살아가는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3) 일상으로의 확산: 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

성평등의 언어는 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라는 일상의 공간으로 확산되었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여성영화의 저변을 넓히고 기록을 보존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300여 편의 여성영화 저작권을 확보해 아카이브 ‘보라’를 완성했고,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유튜브 시사토크쇼 등은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새로운 운동 공간이 되었다. 10년 이상 이어진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기록 프로젝트는 언어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담론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

문화예술 사업들은 여성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삶을 예술의 언어로 복원했다. 페미씨어터의 페미니즘 연극제는 정례적 공론장으로 자리잡았고, 공페단단과 반니의 ‘생존자랑’ 공연은 친족성폭력 생존자

들이 신체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며 활동가로 성장하는 치유의 무대가 되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아시아 최초 ‘프라이드 하우스’, 언니네트워クの ‘퀴어 여성게임즈’ 는 ‘여성이나 성소수자는 운동능력이 떨어진다’ 는 편견을 경기장 위에서 직접 해체했으며, 자기방어훈련은 신체 주권의 문제를 일상의 실천으로 만들었다. 대전의 BOSHU는 여성주의 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잉’ 과 주짓수 클래스 ‘오버셋’ 을 운영하며 지역 페미니스트들을 스포츠로 연결했다.

“그동안 성별에 따라 신체 활동을 구분해온, 여성들은 체육활동에 흥미가 없거나 운동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은 퀴어여성게임즈에 존재하지 않았다. [...] 그 자리에는 성별이 어떠하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스스로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고 함께 어울리는 선수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2. 법·제도·정책의 변화

두 번째 변화 영역은 법·제도·정책의 변화이다. 담론과 인식의 변화가 사회의 관념을 바꾼다면, 제도의 변화는 그 관념을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정착시킨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은 채용·노동·산업재해 같은 노동 영역의 차별을 가시화하여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고, 비혼·한부모·미혼모 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배제해 온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권리의 언어를 만들었다. 지역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조례 모니터링을 통해 풀뿌리 거버넌스에 개입했고, 국내에서 진전이 막힌 의제는 UN CEDAW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제도적 압박을 만들어냈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단체 및 네트워크 외, 2024). 여기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한다. 첫째는 ‘아래로부터의 입증’ 이다. 차별 사례를 기록·축적·체계화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변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는 ‘바깥으로부터의 압박’ 이다. 국내 제도의 한계를 국제 기준 및 국제 연대로 우회·돌파한다.

1) 여성노동: 차별을 기록하고 제도를 바꾸다

여성노동 관련 사업들이 거둔 성과는 상담과 지원이라는 현장성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책 제언, 차별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으로 이어지며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혀왔다. 일터는 성평등 운동의 가장 일상적인 전선이었고, 이 사업들은 그 전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6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채용 과정의 외모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82개 단위의 ‘사진 없는 이력서’ 사용 선언을 이끌어냈다. 구직 과정에서 겪는 외모 규범과 ‘꽃’ 취급받는 실태를 심층 인터뷰로 기록한 이 사업은 채용 관행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차별의 공간을 페미니즘의 의제로 만들었다. 같은 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이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했다.

2021년 옥희살롱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서비스’가 아닌 ‘시민적 실천’으로 재해석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론화했다. 202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장애·이주·연령 등과 어떻게 얹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드러내며, 개별 구제가 아닌 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한 성평등 취업규칙 모범안을 개발하여 일반 사업장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표준안 반영을 제안했다. 법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현장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이었다.

(2) 불안정한 여성노동과 산업재해 공론화

불안정 노동과 산업재해를 젠더 관점에서 공론화하는 작업도 이어졌다. 2014년 일다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 여성 30인의 삶과 노동을 기록하여 ‘열정노동’과 ‘조직 내 위계’ 문제를 공론화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줌마네는 가사·돌봄 등 비가시화된 노동과 파트타임 경험을 ‘일 연대기’로 재해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성들이 ‘일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긍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 경험은 노동의 기록이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2025년 반올림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 15명을 인터뷰하여 산업 재해를 젠더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 작업은 여성 노동자의 몸이 어떻게 산업의 소모품이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당사자들의 언어이다.

2) 정상가족 너머의 권리: 비혼·한부모·미혼모

비혼여성과 한부모·미혼모 관련 사업들은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낙인과 배제에 맞서는 것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혼인 밖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 이 모든 이들은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제도에서 끊임없이 ‘비정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재단이 지원한 비혼여성 사업들은 그 규정에 저항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1) 비혼을 선택으로, 자립을 권리로

2019년 보스톤피플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비혼 1인 가구 여성들에게 돈·주거·식생활·정신건강 등 자립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생활개론’ 과, 생활동반자법의 사회적 수요를 조사하고 비성애적 동거 관계를 설명할 언어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활동이었다. 일상의 자립과 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 이 이중 전략은, 비혼여성 운동이 생활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생활동반자를 찾는 밤’ 행사는 고립되지 않는 건강한 비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고, 이후 자생적인 후속 소모임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청년 연구를 하는 사람, 복지 운동을 하는 사람,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 등 관심과 활동 분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 삶의 경험, 직업, 활동, 연구 분야 등을 기반으로 다각도의 토론이 가능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풍성한 토론이 가능하였다.”(재단 내부자료 2018: 사업결과보고서)

2022년 한국여성민우회는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규정으로 인해 비혼 가구가 직장 내 복리후생과 의료 보호자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 삭제와 연결하여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와 집회를 이어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잉 사회적협동조합의 ‘탈연애·비혼·공동체’ 인식론 교육은 파편화된 개인 페미니스트들을 연결하며 이성애 중심적 관계 각본 밖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공간을 열었다. 2023년부터 비비사회적협동조합은 중장년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노후를 위한 공동체 주택 건립을 추진하며, 노년의 돌봄을 혈연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2) 한부모·미혼모: 낙인을 거부하고 주체로 서다

한부모와 미혼모 관련 사업들은 ‘불쌍한 대상’이라는 낙인을 거부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재단의 초기 신생단체 지원은 한부모단체의 인큐베이팅에 비중을 두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 당사자들이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도왔다.

2015년 인천한부모가족센터가 소외되어 있던 남성 한부모들을 ‘한울타리’ 자조모임으로 조직화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한부모 운동이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움을 받은 한부모들이 작게나마 성금을 모아 재단에 기부하는 ‘희망순가락’ 사업은 수혜자에서 기부자로의 전환이라는 감동적인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2016년 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미혼모들이 자아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의지를 키우는 여성학 강좌와 직업 교육을 지원했다. 2017년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활동가 중심의 형식적 행사 대신 한부모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 번 한부모는 영원한 한부모다’라는 꼬리표에 맞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이해를 구하는 ‘말하기’를 통해, 당사자들이 임파워링되는 경험을 만들어냈다.

3) 지역 거버넌스와 정책 감시

재단의 지원사업은 거시적인 입법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분석과 조례 제정, 풀뿌리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정책 변화의 현장을 지역으로 확장했다. 2014년 창원여성살림공동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과 조례 제정 참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5개 광역시도의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며 지역 활동가들을 연결한 전국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사업이 제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5년 동북여성민우회는 서울 도봉 지역에서 ‘풀뿌리 여성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구의회를 방청하며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하게 했다. 일상의 돌봄 시설에서 지방의회까지, 여성들이 직접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생활정치 모델이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개된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성과는 지역 사업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경남지역 정책 감시 활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지되었던 양성평등기금을 부활시키고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이끌어냈다. 창원·김해·진주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지방정부 조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이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 행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함께 2017년 일반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TV 광고를 성평등 관점으로 분석하는 미디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역 내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8년에는 2030 세대의 페미니즘 스터디를 지원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성인지 관점의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경남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거와 미디어를 페미니즘의 언어로 분석하는 활동가들을 키워낸 것이었다.

4)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적 압박과 글로벌 연대

국내에서 진전이 어려운 성평등 의제는 UN CEDAW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 메커니즘을 통해 우회·확장되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를 모아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학교와 교육청의 벽에 막혔던 청소년들의 요구가 국제사회를 통해 공식 권고로 돌아온 사례였다. 2023~2024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제네바 현지에서 UN CEDAW 위원들에게 여성 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추진체계 후퇴 실태를 직접 보고하여 실효적 권고를 이끌어냈으며,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시민사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의제를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2021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Women’s Korea Peace Appeal’은 여성과 일상의 관점을 담은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글로벌 평화 이니셔티브로 확장했다.

3. 변화 주체의 형성과 확장

세 번째 변화 영역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그 자체의 변화이다. 담론과 제도가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가 자동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 변화의 주체가 끊임 없이 발굴되고, 역량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며, 전국과 세계로 확장될 때 비로소 변화는 자기 재생산의 동력을 갖게 된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은 1) 차세대·신생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의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운영비·행정 역량의 토대를 만들었고, 2) 활동가 개인의 전문성과 회복력을 길러내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축적했다. 동시에 3) 그동안 운동의 객체로 호명되어 온 이주여성·장애여성·노인여성·성소수자가 스스로 말하고 기록하고 연대하는 주체로 자기 정립하는 과정을 지원했고, 4) 지역과 글로벌이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운동의 외연을 넓혔다. 마지막으로 5) 기록과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운동을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 차세대·신생 단체 인큐베이팅: 여성운동의 다음 세대를 키우다

(1) 차세대 여성운동: 시작하자마자 터져 나온 액션

2017년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다발적이고 역동적인 활동들이 쏟아져나왔다. DSO는 ‘몰카’를 ‘촬영 성폭행’으로 재정의하

고 해비 업로더를 집단 고소하였으며, 강남역10번출구는 영-영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대구의 나쁜페미니스트는 여성혐오 살해 사건의 기록물을 발간했고, 진주의 페미씨네는 야외 상영회 ‘달빛극장’을 열었으며, 울산의 FACE는 ‘청춘 나의 첫 페미니즘’ 강의를 만들었고, 사이다제작소는 여성주의 창작 전시를 개최했으며, 불꽃페미액션은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의 성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교육을 시도했다.

이 사업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2030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역도 달랐고 방식도 달랐고 의제도 달랐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시기 새로운 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느슨하고 수평적이며, 온라인과 일상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페미니즘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났다. 재단은 이 흐름을 조직하거나 개입하는 대신, 각각의 움직임이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퇴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은 멀고, 지역에서 하는 페미니즘 행사에 참가하고 싶어 목말라하던 페미들, 남성중심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한국영화들에 지쳐버린 페미-영화관객들이 이 지역사회에도 존재하고, 그들이 달빛극장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우리 페미씨네 기획팀에겐 큰 성취였습니다.”(페미씨네 실무담당자, 재단 결과보고서)

2018년 대전의 BOSHU는 여성주의 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잉’과 잡지 발행을 통해 지역 청년 페미니스트들을 결속시켰고, 부산의 BRIDGE는 30년 전 선배 활동가들을 찾아 인터뷰하며 끊어진 운동의 계보를 이었다. 같은 해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2030세대 소규모 팀들을 기반으로 페미니스트 연대체를 결성하여 3.8 여성의 날과 강남역 추모제 등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파편화된 개별 그룹들이 공통의 의제 앞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2019년 치맛바람라이더스는 모터사이클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만들었고,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전국 조직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워크 위티를 창립했으며, 보스턴피플은 생활동반자법 수요를 발굴하고,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는 충북에서 ‘페미총회’를 열며 지역 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캠프아웃 행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바이크x페미니즘 집담회’와 ‘가부장제 화형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소수자로서, 여성으로써 힘들을 토로하고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가 단순 캠핑행사가 아닌 여성주의의 가치 아래 모인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재단내부자료 2019: 사업결과보고서)

2023년 이후에는 공폐단단이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치유와 연대의 공간을 만들었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갔다. 2024년 페이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기록했으며, 2025년 여성감독네트워킹은 딥페이크에 대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2) 신생단체: 인건비와 운영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다

2015년 시작된 신생단체 지원은 여성단체 인큐베이팅의 또 다른 축이었다. 의제를 가진 그룹이 행정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재단은 신생단체 지원 신설 이전에도 한부모운동 관련 해외 기부자와 국내 활동을 매칭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시도해왔으며, 또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부모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배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단의 지원으로 빌라 사무실 보증금을 마련하고 상근 활동가 인건비를 확보하며 조직의 내실을 다졌다. 독립 운영 초기의 단체에게 사무 공간과 상근자는 생존의 조건이었다. 이 기반 위에서 한부모 당사자들이 기초 상담원 교육을 받아 동료를 돕는 활동가로 성장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는 공식적 발판도 마련했다.

같은 시기 미혼모 당사자 조직 인트리로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활동해야 했던 당사자들이 인건비 지원을 기반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인트리는 지원 1년차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미혼모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때 당사자들은 그 돈 만 원 내는 거에 소속감이 굉장히 컸어요. [...] 식비를 쓸 수 있는 재단사업을 하면서 회원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80명에서 198명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지원사업 수행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해서 [...] 등록을 했었어요.” (인트리 대표, 심층인터뷰)

2016년 문화기획단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라는 흥미로운 페미니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산한부모가족센터가 ‘도약을 넘어 꿈이 현실로’ 사업을 지원받았다. 2022년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치학교를 열었고,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는 교회 성평등 테스트를 개발하며 종교 영역의 문을 두드렸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비사회적협동조합은 정권 변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상근 활동가 고용을 유지하며 비혼여성 주거권 운동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었다.

신생과 차세대 지원은 결과보고서 작성, 회계·세금 처리 등 낮은 행정 절차를 여성재단이 고민하고 도왔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적이었다. 2020년 이후로는 신생 단체와 차세대 그룹의 경계가 세대나 정체성보다 ‘공식 단체인가 활동 그룹인가’ 라는 조직 형식으로 재편되었으나, 새로운 운동단위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상근 활동비와 운영비 마련의 어려움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각자도생의 시대에 재단의 인큐베이팅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말해 준다.

2) 활동가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활동가 개인의 전문성과 회복력을 길러내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활동가 발굴, 소진방지 프로그램, 네트워킹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1) 활동가 발굴 및 양성

2014년 일다는 30명의 청년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주의 저널리즘 강좌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활동가로 육성했다. 같은 해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 공작단’을 통해 20대 여성들을 성평등 활동가로 교육하여 캠퍼스 내 건강한 데이트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로 세웠다. 이 두 사업이 공유하는 원칙은 하나였다.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의 주체로 청년 여성을 호명하는 것이었다.

2016년 행복누리는 지방 도시의 2년 차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역사·정책 교육과 의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초반의 열정이 식고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시점에,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는 전문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활동가를 현장에 붙드는 방법이었다.

당사자가 직접 전문가가 되는 모델도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였다. 201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당사자를 성폭력 상담 전문가로 양성하여 ‘당사자에 의한 인권 보호’ 모델을 실현했다. 선주민이 가르치고 이주민이 배우는 고착된 위계 관계를 깨고, 평등한 소통과 연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즘 강사단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강사로 나서는 경험을 통해 기획자로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배움의 수혜자에서 지식의 생산자로의 전환, 이것이 이 사업들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2) 전문역량 강화: 분석하고 기록하고 교육하다

활동가들이 현장의 문제를 직관으로 감지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들이 이어졌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는 전국 활동가들을 연결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젠더 관점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로 성장시켰다. 예산이라는 가장 건조한 행정 언어 속에서 성차별의 구조를 읽어내는 역량을 키운 이 사업은, 활동가들이 지방정부를 향해 근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14년 창원여성살림공동체와 202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역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사업들은 신생 단체 활동가들이 조례 제정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실전 경험을 제공했다. 이 사업들은

정책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졌다. 2014년 줌마네의 여성 영상 제작 집단 육성과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주의 영상 번역가 교육은, 성평등 담론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미디어 역량을 운동 내부에서 키우는 시도였다. 국내에 부족했던 여성주의 영상 번역이라는 전문 영역을 개척하고 인력을 연결한 것은, 한국 페미니즘 콘텐츠가 세계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2023년 사람과평화의 장애인 성인권 전문 강사 심화 과정은 특수 학급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춰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3) 세대 간 소통과 전국적 연대망 구축

활동가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역량 강화였다. 2014년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의 ‘싸가지 활동가 사전’은 신구 세대 활동가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책(e-북)이었다. 선배는 꼰대로, 후배는 싸가지 없는 존재로 서로를 오해하던 여성운동 내부의 세대 갈등을 정면으로 다룬 이 작업은, 운동 공동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드문 시도였다.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동의 역사는 축적되지 않고 매 세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이 사업을 만들었다.

“신구 세대의 격차를 좁히자는 모두의 공감을 토대로 진행된 선배활동가와 후배활동가의 만남에서는 약간의 의견충돌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업의 말미 결과 발표회에서의 각자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에서 선배활동가들은 자신 역시 그때 그 시절 싸가지 활동가였으며, 후배 활동가들은 자신 역시 선배활동가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였다는 생각들을 내놓았다.”(재단 내부자료: 사업결과보고서)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운동 비전 마련 ‘다.다.다’는 전국 단위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30년간의 운동 방식을 점검하고 조직 유형별 FGI와 워크숍을 통해 여성운동의 확장성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속기록을 남

길 만큼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감과 변화’라는 키워드를 도출했으며, 새로운 운동 주체와의 연결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 ‘디.마.페’를 오픈했다.

2017년 강남역10번출구와 2018년 범페미니네트워크워크,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니브페미는 각각 2030세대 소규모 그룹들과 전국 대학 페미니스트 단체들을 연결하여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연대체를 결성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백래시와 혐오에 맞서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만든 것이었다. 2014년 인천여성영화제와 2017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구축한 전국 지역 여성영화제 네트워크는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던 영화제 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 조력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모든 네트워킹의 흐름은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주관한 전국여성폭력대응 현장활동가워크숍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수렴되었다. 204개 단체, 400여 명의 활동가가 모여 정부의 젠더폭력 정책의 퇴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비롯해 여성인권운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동료애를 확인한 이 자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고립되어 있던 활동가들이 자신이 거대한 운동의 일부임을 체감하는 경험이었다.

(4) 소진을 막고 수평적 문화를 만든다

활동가를 가장 먼저 소진시키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고립과 위계인 경우가 많다. 이 사업들은 그 사실을 직시했다. 2014년 일하는여성아카데미의 ‘동행’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대처와 마음 챙김을 통해 활동가들이 자신의 비전을 재점검하고 상호 지지하는 기반을 닦았다. 운동의 언어를 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사실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이번 사업은 5년차인 나에게도 절실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자기조직화는 현재 활동을 돌아보고 가치와 비전을 재점검,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다. 열악한 환경과 업무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내게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가능한 치유가 필요했었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부정적 생각 다루기, 가치, 중장기 실행계획, 가치에 따라오는 장애물 극복하기의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었다. 또한 함께한 여성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는 그들의 현재 고민,

비전 등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같은 처지임을 느끼며 힘을 받을 수 있었다.”(재단 내부자료 2014: 사업결과보고서)

2016년 구로여성회는 일상에 치여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에게 힐링 여행을 제공했다. 거창한 교육보다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소통과 네트워크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 사업은 보여주었다.

2021년 파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문화를 가진 팀워크를 통해 개인 활동가들이 팀에 대한 멤버십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했다. 위계 없는 조직이 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북 ‘나우 파도’를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차하는 주체들의 자기정립

그동안 운동의 객체로 호명되어 온 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기록하는 주체로 서는 과정이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였다.

(1) 성소수자: 존재의 정치에서 권리의 확장으로

성소수자 관련 사업들이 마주한 첫 번째 과제는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들은 단순한 차별 반대 구호를 넘어, 미디어·스포츠·종교·노동·가족이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존재와 가능성을 각인 시키고 권리의 언어를 만들어왔다. 일터와 교회와 운동장과 법정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선언이 이 사업들이 남긴 유산이다.

2015년 레주파의 도레미 프로젝트는 도시에 사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미디어 제작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캠프형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언니네트워크는 누가 여성인지, 무엇이 여성다움인지를 규정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액션 매거진 ‘뽀’을 창간하여,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허브가 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퀴어 페미니즘 관점의 시사 토크쇼 ‘권손징악’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는 논리와 선거 국면의 가짜뉴스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케이팝을 퀴어링’ 프로젝트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K-POP 산업 내 퀴어 팬덤 문화를 비평하며 퀴어 페미니즘 담론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시아 최초의 ‘프라이드 하우스’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프라이드 하우스’는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는 올림픽을 통해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스포츠 내 성적 편견을 깨고, ‘스포츠 내의 차별과 불평등’과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는 동등한 권리’라는 두 가지 이슈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기획되어, ‘프라이드 하우스’ 운동의 방향을 정립하며 한국 사회 성평등 기반을 넓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언니네트워킹의 ‘2018 퀴어여성게임즈’는 315명의 참가자를 모으며 배드민턴·농구·계주·풋살 등 정식 경기를 치르며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과 운동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는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 친화적인 스포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는 영페미와 교회 언니들이 함께 만든 기독교성주의 입문서 ‘교회가 좀 불편한 너에게’를 출판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한 이 책은 가부장적 종교 문화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균열이었다.

(2) 이주여성: 시혜의 대상에서 동료시민으로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핵심은 이주여성을 지원받아야 할 취약 계층으로 보는 시각을 해체하고, 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기록하고 연대하는 주체이자 동료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난민 여성, 귀환 동포 여성, 농촌 이주여성 등 다층적인 존재들을 가시화하며, 인종·성별·계급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스스로 명명하고 극

복해 나가는 여성주의 활동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성과로 나아가게 했다.

2015년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의 가족소통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가족 내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당사자를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직접 양성함으로써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보호’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지원의 수혜자가 지원의 주체가 되는 이 전환은, 이후 이주여성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다.

2016년 조각보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는 중국·일본·러시아에서 귀환한 동포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직접 증언하는 자리였다. 이 여성들은 오랫동안 ‘3D 업종 저임금 노동자’로 타자화되어 왔다. 귀환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중의 소외를 겪어온 이들이 자신의 삶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었다. 이 대회는 이주동포 여성들이 글로벌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 행사를 연 취지는 여성들이자 이주민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차별과 폭력이 가해지는지 알리고 이주동포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매번 타자화되고 일반화되어 하나로 묶이는 이주동포여성이라는 그룹 내에는, 다양한 개개인들이 존재한단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재단 내부자료 2016: 사업결과보고서)

2018년 일다는 이주여성 섹슈얼리티 기록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저출산 해소 도구’나 ‘아이 낳는 사람’으로 대상화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했다. 신체 주권과 섹슈얼리티 결정권이 이주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 선언은 재생산권 담론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작업이었다.

□ 난민 여성: 긴급 구호를 넘어 삶의 서사로

2019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난민 여성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주여성

담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했다. 난민 여성들은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구호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시각을 뒤집어, 난민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완성된 그림책은 한국 시민들에게 난민의 존재를 이웃으로 각인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상담자에게 의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업이 거둔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 복합차별의 가시화와 재난 대응

2020년 농촌페미니즘연구회는 농촌 이주여성들을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으로 재정의하며, 매매혼적 시선과 가부장적 농촌 성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을 공론화했다. 2021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체류 자격 문제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이주여성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은 호의가 아닌 권리’임을 당사자들과 함께 외치는 인권 캠페인을 전개했다. 202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인종·체류 자격이 얹힌 복합차별을 겪고 있음을 공론화하며, 차별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재해석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지만 이주여성들에게는 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는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위기였습니다.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주민이자 시민이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방역과 모두가 상생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인권캠페인을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와 주한몽골여성총연맹 등과 연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재단 내부자료 2022: 사업결과보고서)

(3) 장애여성: ‘보호’ 라는 이름의 통제를 넘어

장애여성 관련 사업들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보호’와 ‘폭력’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다.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통제는 흔히 보호와 사랑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견고하였다. 장애여성 관련 지

원사업들은 이제 통제와 보호를 넘어서 자기결정권의 존중, 피해를 넘어서 삶의 전략 수립, 그리고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2015년 장애여성공감은 재생산권 담론에서 장애여성이 차지하는 자리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은 재생산권 논의가 비장애인 여성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단체가 진행한 ‘피해 경험 재해석과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는 친밀한 관계 내 일상적 통제의 실체를 드러냈다. 2023년 대구여성장애인연대는 발달장애여성의 성적 권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무성적 존재로 여겨져 온 발달장애여성이 사랑하고 욕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선언,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결합은 섹슈얼리티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렸다. 같은 해부터 시작된 사람과평화의 특수학급 성인권 교육은 성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존감 향상과 성폭력 민감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 노인여성: 기록되지 않은 삶을 역사로

노인여성 관련 사업들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노년’을 상실과 쇠락의 언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방은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여성 관련 사업들은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 비문해 여성에서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페미니즘 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년 여성의 얼굴을 가시화하며, 노년이 상실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언어를 되찾고 주체로 서는 시간임을 보여주었다.

2015년 한국여성민우회의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는 40~60대 여성들이 성별화된 노후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족 밖에서의 독립과 연대를 꿈꾸는 대안적 노후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었다. ‘노상파티’를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여성들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 이 사업은 노년을 혼자 감당해야 할 운명이 아닌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삶으로 재정의했다. 2018년 일다의 섹슈얼리티 기록은 60대

여성을 포함하여 노년의 자유로운 성적 실천과 욕망을 공론화하며, 노인여성이 무성적 존재라는 편견에 균열을 냈다.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다. 폐지줍는 할머니, 몸빼바지, 할 일 없이 하루종일 TV만 보는 모습. 인정사정없는 시어머니까지. 한마디로 가난하거나, 할 일 없거나 가족에게 짐착하거나 그 셋 중 하나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업 기획을 하면서, 역설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머니 걱정없는 노년을 상상하다’라는 부제를 붙이게 되었다.”(한국여성민우회 담당자, 최종보고서 후기)

2015년 가톨릭여성회관은 가난과 성차별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여성들이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평등 인식을 키우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서는 과정을 지원했다. 한글을 처음 익힌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그 순간은 단순한 교육의 완성이 아니라, 평생 타인의 언어로 살아온 삶에서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 선언이었다. 이 여성들은 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연극 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며 지역사회 성평등 캠페인의 주체로 성장했다.

2020년 유토피아의 스마트폰 사진 프로젝트는 디지털 소외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돌파했다. 춘천 지역의 80대 최고령 수강생을 포함한 여성 노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자기만의 꽃밭’ 전시회를 개최한 이 사업은, 노인여성을 디지털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창작자로 세웠다. 같은 해 문화기획단은 남원의 6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독서모임에 참여하여 ‘백래시’ 등의 개념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날카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세대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2017년 익산여성의전화는 중장년 여성들이 전래동화와 설화를 성평등한 관점으로 개작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부설기관 ‘숨리골이야기지킴이’로 전환되어, 중장년 여성들에게 성평등 강사로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성평등의 씨앗을 심는 동시에, 이야기를 전하는 중장년 여성 스스로도 역량 있는 활동가로 성장하는 이중의 성과를 거둔 사업이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은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창의적 돌봄 실천을 ‘시민적 실천’으로 재의미화한 포토에세이북과 온라인 전시는, 이들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전문적인 돌봄의 주체로 재조명했다. 또 노년 돌봄을 ‘효도’나 ‘희생’이라는 상투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삶의 과정으로 재현했다. ‘집 대 시설’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비판하고, 존엄한 노년과 돌봄은 젠더 구조와 가족 규범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론화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내 속에 쌓인 것들을 글로 쓰며 정리하고 위로받았다”고 증언하며 시민 주체로서의 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지역에서 자라는 페미니즘과 글로벌 연대

운동 주체의 확장은 공간적으로도 이루어졌다. 지역 풀뿌리 현장에서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자리를 만들었고, 동시에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한국 페미니즘을 글로벌 무대에 자리매김시켰다. 아래에서는 지역의 일상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실천, 청년 지역 네트워크, 국경을 넘은 성폭력 생존자 연대, 한국 페미니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차례로 살펴본다.

(1) 일상을 바꾸는 힘: 마을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2014년 군포여성민우회의 ‘레알 페미니스트 프로젝트’는 군포·안양·의왕 지역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하여 가부장 문화 극복 사례집을 제작하고 여성주의 마을 축제를 여는 사업이었다. 전단지나 강연이 아닌 마을 축제를 통해 성평등의 언어를 일상으로 가져온 이 시도는, 페미니즘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6년 문화기획 달은 가부장적 농촌 마을에서 페미니즘 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남성 주민들의 거친 항의와 물리적 방해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개인적 대응 대신 집단 연대와 공론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역

내 페미니스트 동료들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여성농민이자 청년여성이 시선으로 마을 운영의 근간인 규약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제주 등 5개 도 5개 지역 마을에서 성별 불평등한 규약을 찾아내고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남성 이장과 마을 리더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을 2년차 진행하고 있는 제주의 이야기,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회의를 남겨준 시점에서 함께 한 분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의 소감과 소회를 나눈다. 그 가운데 나이든 남성 어른부터 젊은 여성농민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 집에 한 표를 주는 마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을은 1명의 주민에게 1표씩 주어지고, 개발위원회에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되어 더욱 여성들이 잘 남성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단 내부자료 2020: 사업결과보고서)

같은 해 농촌페미니즘연구회는 농촌 현실에 맞는 성평등 교육 교안을 개발하며 이주여성 농민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단순한 사업 수혜자가 아닌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으로 호명하며, 매매혼적 시선과 가부장적 농촌 성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을 공론화했다. 농촌 페미니즘의 범위가 내국인 여성을 넘어 이주여성까지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2) 청년페미니스트들의 지역네트워크

2018년 대전의 BOSHU는 여성주의 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으로 흩어진 청년 페미니스트들을 결속시켰고, 2019년 충북의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는 선배 활동가와 영영페미들을 잇는 ‘페미총회’를 개최하며 지역 운동의 계보를 이었다. 2018년 부산의 BRIDGE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지역 대학 여성운동의 타임라인을 완성하고 활동가 30명을 인터뷰하여 세대 간 운동의 계보를 이었다.

“저희도 근데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보슈라는 이름을 2025년까지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고 다행이다 생각해요. [...] 지역에 사는 친구들 활동하는 친구들은

여건만 되고 뭔가 기회만 되면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살면서 여기 있는 여성들을 책임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례 1)

지역 사업들은 가부장적인 지역 권력에 균열을 내고, 소외된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지역 활동가들을 연대로 묶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페미니즘이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포의 마을축제, 대전의 운동장, 제주의 마을회관, 진주의 야외 상영회, 마산의 공장에서조차 자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을 지지한 것이 이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3) 국경을 넘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연대

초국적 젠더폭력에 대한 연대도 이 시기 글로벌사업의 의미있는 성과이다. 2015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와 필리핀 기지촌 여성 활동가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 자리는 생존자 간 연대가 국경을 넘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콩고에서 생존자를 불러다가 한 심포지엄이었어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분쟁의 성폭력 피해자를 처음 부르는 심포지엄을 저희가 한 거였거든요. 필리핀 군사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여성도 부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는 비자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국제적인 연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진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많이 변했고.”(인터뷰 사례 14)

202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베트남 현지 조사는 한국 남성 중심의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베트남 현지의 오프라인 착취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규명하며 초국적 젠더 폭력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4) 전혀 예상치 못한 온라인 페미니즘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호응

한국 페미니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케이팝을 쿼어링’은 영문 자막을 통해 해외 시청자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며 한국의 쿼어 페미니즘 담론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아시아 최초 프라이드 하우스 운영을 목표로 활동한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상하이·타이베이·도쿄 등 아시아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스포츠 내 성적 다양성 이슈를 글로벌 의제로 만들었고, 2019년 ILGA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쿼어여성게임즈의 성과는 전 세계 쿼어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공유되었다.

일다의 기사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세계 페미니스트 진영과 공유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일다는 번역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영문사이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기사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외 거주 페미니스트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기사를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이예요. 특히 연구자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다를 소개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영문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필자들도 더 발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번역을 하겠다라든지 하면서 필자로서도 정보제공자로서도 연결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이 워낙 많고 또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뜨면 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인터뷰 사례 17)

5) 기록과 아카이빙: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될 수 없다

기록 사업들은 하나의 믿음을 공유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될 수 없고, 역사가 되지 못한 것은 반복된다는 것이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구술을 영상 다큐멘터리로 복원했고,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0년간 축적된 76,925건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줌마네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 경험을 성찰하며 쓴 대안 이력서와 영상 에세이를 모아 ‘여자들의 일 경험 모음집’을 발간했다.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 등 기존의 이력서 형식이 담아내지 못했던 여성의 일 경험을 새로운 형식으로 기록한 이 작업은, 비가시화된 노동에 공적 언어를 부여하는 시도였다.

2025년 반올림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 15명을 인터뷰하여 생애사 기록집 ‘회로를 이탈하다’를 출간했다. 산업재해를 젠더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작업은, 여성 노동자의 몸이 어떻게 산업의 소모품이 되었는지를 당사자의 언어로 증언했다.

“소규모로 진행되어 긴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가능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기록활동에는 기록자이자 실무자로 참여했다. 인터뷰를 한 직업병 피해자에게 검수 단계에서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기록 작업이 반올림에게뿐만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를 내어준 구술자들에게도 어떠한 의미로 남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었다.”(재단 내부자료 2025: 사업결과보고서)

사라지는 것들을 붙드는 작업은 성매매 집결지 기록에서 가장 절박하게 이루어졌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군산 화재 참사 백서, 소냐의 집의 천호동 집결지 아카이브,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의 포항 대흥동 기록집은 집결지가 폐쇄되면 사라질 여성들의 흔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의 자료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고, 성매매여성인권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망한 여성들의 이름과 기억이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명동, 개복동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기록 사업을 남겨야 된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텃밭미를 잡는 과제 영역인 거죠. 근데 그게 돈도 없고 시간도 못 내고 활동하면서 오래된 숙제였어요. 10주년 때부터 계속 ‘해야 된다’만 있는 이런 거였지요. 그런데 한참이 미뤄진. 고민 끝에 그러면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 해서 여성재단에 응모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게 되었어요”(사

례 5)

같은 시기 소냐의 집은 천호동 집결지의 사진 2,211장, 구술 자료, 지도 등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북 ‘사라진 천호동 집결지의 기억과 기록’을 출판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완성한 이 기록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집결지가 존재했던 공간과 그 공간을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여성폭력 쪽은 기록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결지를 그냥 다 없애고 싶어 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고 그냥 다 없었던 일로 다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장소인데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없었던 일로 그냥 묻어버리면 거기에 있었던 피해여성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사례 11)

2025년 포항의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은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피해 여성과 지역 주민 15명의 구술을 채록하여 기록집 ‘포항 대흥동 허(Her)스토리’를 발간했다. 성착취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선 이 작업들은, 아카이빙이 곧 저항임을 보여주었다. 2026년에도 창원 서성동 집결지 기록화가 진행 중이다.

운동의 기록은 다음 세대에게 운동의 언어를 물려주는 작업이다. 2019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반성폭력·여성노동 등 5개 분야의 운동 역사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활동가 인터뷰 책자를 발간했다. 2018년 부산의 BRIDGE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지역 대학 여성운동 활동가 30명을 인터뷰하여 21년의 타임라인을 완성했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이 작업은 지역 여성운동사를 공식 역사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시민사회보고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여성인권 담론과 정책, 운동을 분석하여 국내외에 확산했다.

이 밖에도 향토 여성 생애구술사, 요양보호사 돌봄 기록 등 다양한 아카이빙이 이어졌다. 이 사업들이 남긴 데이터와 기록은 한국 여성운동의 지식 자산이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하는 토대이며, 기록 그 자체가 곧 운동

임을 보여준다.

4. 변화의 경로에 대한 종합 분석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지원사업이 1) 성차별적 언어·인식·문화의 전환, 2) 법·제도·정책의 변화, 3) 변화 주체의 형성과 확장이라는 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세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변화의 메커니즘과 영역 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재단 지원사업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언어·인식전환의 메커니즘

사례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변화의 첫 번째 메커니즘은 ‘언어’와 ‘담론’에서 출발한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현실을 구성하는 도구이다. ‘몰카’를 ‘촬영 성폭행’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다시 명명한 DSO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작업은 단순한 어휘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비난을 돌리는 농담의 언어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범죄의 언어로 바꾼 인식의 전환이었으며, 그 결과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 제정, 해비 업로더 집단 고소, 플랫폼 규제 등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재생산권 담론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낙태죄 폐지’를 ‘재생산권 보장’으로 재구성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일다의 작업은 논의의 틀 자체를 바꾸었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성교육·피임·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생애적 권리체계로 의제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인구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켰다. 장애여성공감과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작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함’과 ‘정상성’만을 추구하는 재생산 통제의 구조를 비판하고,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억압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권리의 언어를 다시 만들었다.

#미투운동은 이 메커니즘이 가장 폭발적으로 작동한 사례다. 흩어진 개인의 분

노와 용기를 ‘조직된 사회적 힘’으로 전환시킨 것은 광장의 언어와 ‘위드유(WithYou)’라는 집합적 명명이었다. 이 언어는 개인의 사적 경험을 공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학내·연극계·문학기·정치권 등 각 영역의 권력구조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특히 페미씨어터,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의 사례는 미투의 정신이 외부에 대한 고발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내부의 자기 성찰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백래시 국면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방어의 언어’로 작동했다. 일다의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권손징악’ 등은 역차별과 안티페미니즘에 대항하는 철학과 가치를 언어화했다. 이 작업들은 침묵도 감정적 맞대응도 아닌, 사실에 근거한 논리로 대응하는 새로운 운동의 양식을 축적해 나간 것이다.

요컨대 언어·인식·문화 전환 영역의 변화 메커니즘은 ‘새로운 명명 → 인식의 재구조화 → 의제의 사회화 → 규범과 제도의 변화’라는 경로를 따른다. 이 메커니즘은 변화이론에서 흔히 ‘인식 변화(awareness change)’ → ‘행동 변화(behavior change)’ →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로 정식화되는 인과 사슬에 부합한다. 재단 지원사업은 이 사슬의 가장 첫 단계, 즉 새로운 언어와 인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핵심적인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후속 변화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법·제도·정책 변화의 메커니즘

두 번째 변화 영역인 법·제도·정책의 변화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하면서 작동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입증’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30년 76,925건 상담 데이터 분석, 한국여성민우회의 채용 외모차별 사례 수집과 ‘사진 없는 이력서’ 캠페인, 비혼 가구 차별 사례 수집 등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던 차별을 체계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에게 변화의 근거를 제공했다.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부터의 압박’으로 국내에서 진전이 막힌 의제를 국제 규범과 연결시킴으로써 제도적 압박을 만들어냈다. 청소년페미

니즘모임이 UN 아동권리협약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네바에서 CEDAW 위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후퇴 실태를 직접 전달하고 한국정부에 권고를 요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두 메커니즘은 사례별로 결합 방식이 달랐다. 노동 영역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입증이 주된 동력이었다. 채용·승진·임금에서의 성차별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모범 취업규칙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도화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재생산권과 비혼·한부모 관련 의제에서는 두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했다. 한편으로 당사자 운동을 통해 차별을 가시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활동반자법 제정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백래시의 제도화’에 맞서는 운동의 양식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정치 담론이 부상하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자체 부서명에서 ‘여성’이나 ‘성평등’이 조용히 삭제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러한 행정적 변화를 단순한 부서 통폐합이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의 후퇴’라는 정치적 언어로 재명명했다. 이는 백래시가 혐오 발언에서 행정에서의 퇴행으로까지 이동했다는 점을 가시화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감시·기록·국제 연대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제도 변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는 지역 거버넌스와의 참여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의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동북여성민우회의 풀뿌리 여성학교,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조례 제정 참여,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의 광역시도 예산 분석은 정책 변화가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페미니즘이 거시적인 입법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행정의 실행 과정에까지 개입하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의 실천을 의미한다.

3) 변화 주체 형성의 메커니즘

세 번째 변화 영역은 변화의 주체 자체의 형성과 확장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새로운 운동 주체의 양성’이다. 차세대 그룹과 신생단체

가 운동의 의제를 만들어가는 동안 행정·재정·운영의 토대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작업, 활동가 개인이 분석·기록·교육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소진을 막는 조직문화를 실험하도록 돕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교차하는 주체들의 자기 정립’이다. 그동안 운동의 객체로 호명되어 온 이주여성·장애여성·노인여성·성소수자가 스스로 말하고 기록하고 연대하는 주체로 자기 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다.

주체 형성의 메커니즘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당사자 주체화’의 심화이다. 인트리·부산한부모가족센터의 미혼모·한부모 운동,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원 양성,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즘 강사단, 장애여성공감과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발달장애여성 자기 표현 사업은 ‘대상’이 ‘주체’로 이동하는 핵심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나 보호 담론이 자주 빠지는 시혜와 통제의 함정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자기 삶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페미니즘적 임파워먼트의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체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측면은 ‘공간적 확장’이다. 재단의 지원사업은 서울의 광장과 온라인 공간을 넘어 지역의 마을 회관과 국제기구의 회의장으로 운동의 무대를 넓혀 왔다. BOSHU(대전), BRIDGE(부산), 행동하는 페미니스트(충북), 치맛바람라이더스(전국), 청소년페미니즘모임(전국)은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지역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결속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평창 프라이드 하우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케이팝을 쿼어링’ 영어자막 콘텐츠, 일다의 영문 사이트 등은 한국 페미니즘이 글로벌 페미니즘 운동과 연대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록과 아카이빙은 주체 형성의 ‘시간적 차원’에 해당한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의 7~80년대 여성노동자 구술, 줌마네의 여성 일경험 모음집, 반올림의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인터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군산 화재참사 백서, 소나의집의 천호동 집결지 아카이브는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작업이다. 이는 여성운동이 단지 현재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의식적 실천으로,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4) 영역 간 상호작용과 ‘변화 인프라’로서의 재단

지금까지 살펴본 세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한 사업이 한 영역에서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사례는 세 영역을 가로지르며 변화를 일으킨다.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 의제는 ‘새 단어 프로젝트’라는 언어 전환에서 출발해(영역 1) 해비 업로더 집단 고소와 처벌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영역 2), 그 과정에서 청년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새로운 운동 주체로 형성되었다(영역 3). 미투운동, 재생산권, 비혼·한부모 의제 등도 동일한 영역 간 연결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영역 간 상호작용은 변화이론의 핵심 통찰과 부합한다. 사회적 변화는 단일한 인과관계로 환원되지 않으며, 인식 변화 → 행동 변화 → 구조 변화 → 새로운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feedback loop)’를 통해 누적·심화된다. 재단 지원사업의 성과는 개별 단체의 단기 산출물(보고서, 캠페인, 교육)을 넘어, 이 순환구조 통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재단의 역할을 변화이론의 언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단은 인식 변화의 ‘초기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 보조금이나 일반 모금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새 언어 만들기’ 작업, 즉 가시화되지 않은 현실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 자원을 투입했다. 둘째, 재단은 운동 주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차세대·신생 단체의 행정·재정 토대를 마련하고, 활동가 역량을 길러내고, 당사자 주체화를 지원함으로써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를 키웠다. 셋째, 재단은 영역 간 ‘연결 노드’ 역할을 했다. 단일 의제·단일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재생산·디지털·돌봄·기록·국제연대를 가로지르는 의제 간 연결과 단체 간 연대를 매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지원사업은 단순한 사업비 배분의 합이 아니라,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인프라(change infrastructure)’를 구성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인프라는 새로운 의제가 사회적으로 호명되는

통로이자, 새로운 운동 주체가 양성되는 토양이며, 영역과 영역, 세대와 세대, 지역과 글로벌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node)이다.

제2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이슈와 개선과제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여성운동의 중요한 자원기반으로 기능하면서 다층적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백래시가 강화되고 정부의 성평등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환경 속에서, 재단의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국 여성운동의 ‘변화 인프라’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영상의 쟁점과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단체 활동가 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재단 사업담당자 및 배분위원 인터뷰를 종합하여,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정리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사업의 정체성과 철학

여성재단과 지원사업의 실천 주체인 파트너 단체가 사업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파트너단체들은 여성재단 사업이 타 기관의 공모사업과 구별되는 점으로 “성평등이 무엇이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목적성의 사업”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사례 18). 이는 재단과 파트너 단체들이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단체들이 여성재단을 가장 우선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기관의 경우) 성평등이 무엇이고, 이 사업이 어떤 영향이,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성재단 사업은 그런 설명 [...] 굳이 안 해도 되는 목적성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유리함, 용이함이 있고, 수용도 이런 게 굉장히 좀 높아서 전적으로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례 18A)

최근 국가기관·지자체 및 타 기금의 공모사업에서는 ‘여성주의’ 나 ‘여성운동’을 전면에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하는 반면, 여성재단은 사업 내용과 명칭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로 인식된다. 단체들이 정부보조금 사업보다 재단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단 사업이 ‘열려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 사업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면이 있고 특정 정치적 지향을 이유로 배제되기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지자체나 도는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 작년에 사업 썼는데 00당이라서 안 돼, 이렇게 잘린 사업이 있어요. [...] 재단 사업을 받으면 오히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더, 폭력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례 4)

여성재단 존재 자체가 여성단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는 것들을 그나마 여성재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활동가의 인터뷰는 재단과 파트너 단체가 단순한 지원 관계를 넘어 공통의 가치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왔음을 보여준다.

“여성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특히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성운동이 풀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것들을 그나마 여성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희망의 불씨들을 가지고 이걸로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저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나마 이 조그마한 저기를 가지고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5)

다만 재단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한 활동가는 재단의 대표 슬로건 ‘딸들에게 희망을!’을 처음 접했을 때 ‘이질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딸들’로 호명되는 청소년·젊은 여성이 운동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이 표현이 담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누구를 위한 운동’이라는 표현은 ‘그 누가 운동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저의 첫 번째 기억은 그 재단 사무실에 1층에 있는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이예요. 근데 그 슬로건이 되게 [...] 이질감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죠. 우리 아이들(청소년, 저자주)이 [...] 딸들로 호명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이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운동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사라지는 표현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서, [...] 이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이 저는 좀 그런 이미지였고.....” (사례 8)

또한 정부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를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단정하여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타 재단과의 중복지원을 기계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여성재단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는 재단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지원 방향을 성찰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단체들은 [...] 특히나 시설 지원들을 하는 데가 또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개네들은 제도화 되어서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여성재단은 무엇을 중심으로 갈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사례 5)

2. 사업 규모의 축소와 기금조성의 구조적 한계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변화이론에서 ‘투입(Inputs)’ 단계의 자원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산출과 성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규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현장의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신청단체 수 대비 선정단체 수의 비율, 즉 선정률이다. 지난 12년간 평균 선정률은 24.1%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자유주제 공모사업의 평균 선정률은 18.9%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섯 단체가 신청하면 한 단체만 지원을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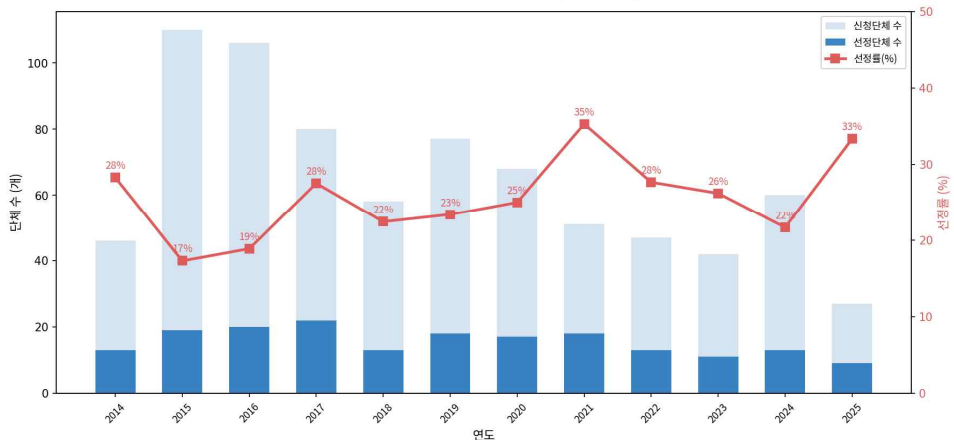
수 있는 수준으로, 여성단체의 기획력과 인력이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 공모사업별 신청단체 수 대비 선정단체 수(개, %)

구분	자유주제			지정주제			신생			차세대			합계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2014	43	11	25.6	3	2	66.7	-	-	-	-	-	-	46	13	28.3
2015	97	13	13.4	9	4	44.4	4	2	50.0	-	-	-	110	19	17.3
2016	88	13	14.8	10	4	40.0	8	3	37.5	-	-	-	106	20	18.9
2017	41	8	19.5	18	3	16.7	4	1	25.0	17	10	58.8	80	22	27.5
2018	40	10	25.0	-	-	-	4	-	0	14	3	21.4	58	13	22.4
2019	56	11	19.6	1	1	100.	2	-	0	18	6	33.3	77	18	23.4
2020	51	10	19.6	-	-	-	4	3	75.0	13	4	30.8	68	17	25.0
2021	22	7	31.8	6?	5	83.3	8	4	50.0	15	2	13.3	51	18	35.3
2022	34	8	23.5	5	1	20.0	7	3	42.9	1	1	100.	47	13	27.7
2023	28	5	17.9	7	2	28.6	4	3	75.0	3	1	33.3	42	11	26.2
2024	38	5	13.2	11	3	27.3	5	2	40.0	6	3	50.0	60	13	21.7
2025	17	4	23.5	7(2)	4(2)	57.1	-	-	-	3	1	33.3	27	9	33.3
계	555	105	18.9	77	29	57.1	50	21	42.0	90	31	34.4	772	186	24.1

<그림 4-1> 신청 및 선정 현황(2014~202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2014~2025)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지원단체 수와 선정단체 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2025년에는 신청 27개 단체 중 9개 단체만 선정되어 신청·선정 단체 수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한편, 선정률은 3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역설이

다. 이는 현장의 수요 자체가 감소했다기보다, 반복된 탈락 경험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하는 단체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다년간 심사에 참여한 배분위원 또한 ‘성평등조성사업 금액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제 한 4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유 주제 심사하고 있는데 일단은 [...] 성평등 조성사업 금액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단체도 수가 확 줄어 있는...”(사례 20A)

2) 기금조성 환경의 변화와 모금 인프라의 한계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직접적 원인은 사업의 재원이 되는 기금의 조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2003년부터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운영해 왔으나, 기부이끔이의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가 누적되어 2021년부터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개편하고 대상별로 콘텐츠와 시기를 달리하는 다각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금 모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재단의 캠페인 담당자는 최근의 기부 트렌드와 사업 성격 사이의 엇박자를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최근 기부자들은 정기 기부보다 일시 기부를 선호하고 성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지만, 자유주제 공모사업은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만큼 ‘무엇에 기부하는지’가 직관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피해자 직접지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SOS 캠페인 기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백래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공감과 기부 동기가 약화되면서, 자유주제 모금은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요즘은 기부자들이 기부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9개 정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홍보했을 때, 9개 사업 중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인 거죠.”(사례 19A)

재단 내부적으로 모금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모금 환경이 어려워지는 시기일수록 더 큰 모금 자원과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재단의 “홍보 예산은 과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전담 인력의 홍보·모금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사례 19A).

3. 사업 구조와 운영방식

재단은 핵심 배분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인터뷰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사업구조의 여러 지점에서 ‘재단의 운영지침’과 ‘현장의 요구’가 정합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는 쟁점들이 확인되었다.

1) 신청자격을 둘러싼 논의

자유주제와 지정주제의 신청자격은 ‘성평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여성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보수적인 정치 환경에서 정부보조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를 지원한다’는 재단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2014년 말 배분 위원회에서는 자유주제 분야에 한해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자격 확대 제안이 있었으나, 배분위원들은 “여성재단 고유목적사업에 일반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은 재단의 정체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단독 신청은 불가하고 ‘연대단체’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²⁷⁾ 이는 한국여성운동을 이끌어 온 ‘비영리 여성단체’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고민은 있어야 하겠지만 비영리 여성단체, [...] 코어랑 주류라고 했던 그 여성 단체들을 좀 지원하는 그 어떤 사업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리는 명칭이) 주류든 전통적이든, 한국여성운동을 끌고 왔던 단체에 대한 지지

27) 재단 내부자료: 배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와 응원의 메시지로 이 사업은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사례 19B)

이와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다양한 단체가 여성 이슈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청자격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운동의 주제가 돌봄·기후·문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의제는 전통적 여성단체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도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까지 지평을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운동 의제의 확장’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쟁점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보다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지원트랙의 구분과 운영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유공모, 지정주제공모, 차세대여성운동, 수시사업 등 네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트랙 구분은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트랙 간 사업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긍정적인 평가는 신생여성단체 및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이었다. 이러한 별도의 트랙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재원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인큐베이팅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대부분의 단체가 규모가 작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지만,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²⁸⁾

“거창하지 않으나 일상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나갈 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한 걸음씩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런 일을 앞으로 신생 및 차세대 여성운동 단체들이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후원과 격려가 필요하다.”(재단 내부자료: 심사위원 평가서).

반면, ‘폭력’과 ‘돌봄’ 등 지정주제 사업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

28) 2019년~2020년 신생단체 및 차세대여성운동 사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종합한 것이다(재단 내부자료: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평가의견).

에 비해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불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정주제 사업보다 자유주제 사업이 “더 정성껏 기획되고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도(사례 20A) 나타난다. 이는 지정주제 영역의 단체 풀(pool)이 자유주제에 비해 좁고, 단체들의 기획 역량 차이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폭력과 돌봄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그 딱 주제를 보면 [...]기준에는 파급 효과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의 의미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덜 분명...”(사례 20B)

한편 여성계의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시지원 사업은, 정기공모 일정을 놓친 단체가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긴급성 요건과 심사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 배분

재단은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배분의 3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 할당한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선정 단체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단체 중에는 30~40년 이상의 역사를 축적하고 전국적 파급력을 지닌 단체들이 있어, 여성운동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재단의 지원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0.5명 또는 1명의 상근활동가만으로 단체를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신규 활동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누적된 자원 격차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기획역량’의 격차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만든다. 배분위원들은 지역 배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신청서의 수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지역의 경우에 자원이 아무래도 적죠. 자원이 매우 약한데 재단에서라도 조금 눈여겨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는 수준을 보면, 조금 고민을 하게 해

요.”(사례 20A)

지역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파트너 단체들의 의견은 다수 제기된다.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은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지역이 기획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획주제가 될 때,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 사람, 정보, 규모, 행정 -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순간에는 돌봄이나 성폭력 이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 ‘지역’이라고 하는 기획 주제가 돼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 다른 어떤 소수자 이슈와 마찬가지로 보이게 하는 그 작업마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1)

이는 단순한 ‘공정성 vs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운동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열악하다는 현실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률적 심사 기준의 적용은 지역 단체의 ‘기획력 부족’을 거듭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지역 사업의 위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 배분 비중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여성운동을 지원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4) 배분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역량

재단의 배분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정책·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배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재단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지만, 연구 과정에서 배분위원회 구성 및 심사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과제가 제기되었다.

재단 차원에서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평등 사업 취지를 다 알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여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재단이 5~10년 단위의 중장기적 ‘성평등사회조성’ 목표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배분위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조성사업 주제가 되게 다양해 자유주제만큼이나 다양해질 수도 있지만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을 통해서 저는 재단이 10년 또는 5년이든 10년 단위의 일정한 이게 중점을 두고 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들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사례 20A)

배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참신성을 발견하고 시대적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풀의 연령대를 낮추어 젊은 세대의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국내외 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배분위원의 지속적 학습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배분위원들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흐름과 주요 쟁점, 현장 단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의 방향성을 반영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심사위원이 단체의 “사업배경을 이해하고 질문을 해 주는 것”은 파트너 단체가 재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전 간담회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아 사전 간담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받잖아요.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외부 위원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저희 사업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질문을 해주시니까 그게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13)

5) 선정기준과 연구사업을 둘러싼 인식 차이

배분과 심사 기준을 둘러싸고 배분위원과 현장단체의 요구가 배치되는 쟁점도 확인된다. 하나는 ‘참신성’이다. 참신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나 정례적 폭력추방 캠페인처럼 매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캘린더 사업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리해진다. 정례 사업은 운동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제임에도 참신성 기준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한다.

“참신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그런 취지에 맞춰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고단함, 자기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쌓여지는 노하우들, 그리고 그것이 운동에서 굉장히 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사례 18A)

또 하나는 연구사업을 둘러싼 인식 차이이다. 연구자이기도 한 배분위원은 적은 예산의 조사연구가 ‘대표성’이나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가 기억할 때 무슨 설문조사 이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연구진이 들어가도. 왜냐하면 너무 작은 예산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뻘하고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대표성도 없고 자료를 만드는 데 분석하는 데 시간만 엄청 들어가서 그 결과를 어디다 공표를 해도 이게 신뢰성이 신뢰할 만한 자료다,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사실 별로 없어서.”(사례 20B)

반면, 현장 단체에게 조사·연구는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가 아니라 정책 발굴·교육·캠페인 등 다음 단계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연속적 실천이다. 단체의 30년치 상담 사례 분석에 외부 전문 연구자를 참여시키라는 조건이 부과되거나,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분석 기능이 ‘연구자가 할 일’로 간주되어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는, 오랜 기간 축적된 활동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때문이라고 비판적으로 인식된다.

“00의 상담 사례 분석은 사실 연구자가 붙으면은 되게 버거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담을 한 게 아니고 [...] 30년치 상담 사례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자를 붙여라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 외부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맡기면 비효율적인 게 있어요.”(사례 9)

“00 사업은 거의 다 정책사업이거든요. 정책 발굴하는데, [...] 왜 여성단체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분석 연구하느냐, 그거는 연구자가 할 일이지 이런 심사를 받았다고 해요.”(사례 18B)

여성운동과 연구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다. 한 활동가는 ‘자료의 신

퇴성’이나 ‘대표성’과는 다른, 활동가와 시민이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는 ‘생활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와 활동가 간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활동에 기반한 연구·기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여성재단도 그런 말하자면 생활 실험 플러스 생활 연구인데 좀 각자의 삶에서 뭔가 이런 걸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같이 실험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이것들을 좀 확산하는 이런 이런 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좋은데 근데 그 생활 연구는 저는 그래서 연구자들 말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그냥 일반 동네 사람들이라도 같이”(사례 7)

4. 현장의 요구와 기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실행주체인 파트너 단체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성재단과 기본적으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동시에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전하고 있다.

1) 단체 운영 현실과 인프라 지원 수요

현재의 프로젝트 중심 지원 방식은 단체들이 처한 보다 근본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파트너 단체들은 활동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공간’의 문제를 지원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활동가가 활동을 그만두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도 사업비와 별개로 활동가 자신의 생계는 보장되지 않아, 또 다른 일을 병행하다 소진되어 운동을 떠나는 구조가 반복된다.

“사업에 필요한 돈은 나오는데 [...] 저는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 상당한 시간을 이거를 투입하는데 [...] 4~5년 하고 나서 완전히 지친 거죠. [...] 비영리단체 활동가는 절대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 6)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는 집값폭등은 여성단체들이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신생 단체나 자원이 열악한 지역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 상승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도권외의 중견 단체, 공동으로 건물을 마련했으나 대출 상환에 압박을 느껴 매각을 고민하는 단체에도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공간 지원이 인큐베이팅 단체에만 국한되어 있어, 중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부족한 점도 지적된다.

2) 지원 범위의 확대 요구

재단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성 그룹이 여성재단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온라인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여성재단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 연구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다.”(사례 7)

단체의 신청자격을 정체성 면에서 좀 더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통 신청단체를 여성, 장애, 환경 파트 등으로 분류하지만,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할 때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 어떤 그런 단체들을 어디까지 이제 포섭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성평등한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범위를 [...] 폭 넓혀서 생각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사례 3)

사업의 지원시기 관련해서도 1년 단위 프로젝트 외에 장기적, 연속적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활동가는 재단 지원사업이 “잘 되는 사업들은 계속 가야되는데, 계속 새로운 걸 원

하”고 있다며(사례 9), 장기프로젝트 형식의 지원이 거의 없어 “좋은 사업들”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아카이빙처럼 사업의 성격상 1년으로는 촉박하여 2년 연속 지원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은 이게 잘 되는 사업들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걸 원해. 그리고 그리고 사실 일을 할 때는 3년짜리도 필요해요. 그럼 장기 프로젝트 필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안 주니까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들이 많거든요.”(사례 9)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초부터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료들, 저희가 기록하는 이런 자료들이 중요한데 그 자료를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정말 너무 촉박해서 힘들었을 것 같고 2년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11)

3) 프로그램 지원 수요

활동가들은 재단이 운영해주기를 기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다른 곳에서 하기 어렵지만 가치를 알아주는 사업부터 이전에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사업, 현장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등 다양한 수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재단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 장기적 토양을 만드는 사업 - 기록과 아카이빙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여성재단이 “장기적으로 토양을 만드는”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실에 크게 힘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로 판단하고 투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가치형 가치 지원”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가 어떤 걸 가장 큰 힘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아카이브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

아카이브 좋지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게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결국은 일종의 토양을 만드는, 그리고 어떤 문화 향유권 다양성을 증진시키면서 성평등 가치 확산, 이를 우리가 기획서에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체감하거나 어떤 가시화된 성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다. 굉장히 가치형 가치 지원이라는...”(사례 15)

성매매 피해와 지역 변화 등을 기록·아카이빙하는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는 “기록화하는 사업의 가치를 중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사례 11). 폭력 피해자 개개인의 경험을 기록하는 사업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생존자 한 명 한 명도 사람 책 같은 또는 꼭 이 생존자가 아니더라도 여성 한 명 한 명의 기록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더 이렇게 뭔가 언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사례 2)

(2) 활동가 쉼 프로그램 부활

현장에서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업은 여성재단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 온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이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기억되며, 단순한 휴식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대의 토대가 되었다.

“다른 단체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같이 갔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거나 뭐 해볼 수 있겠다 연락해 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후 서울 쿼터문화축제도 계속 연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희 너무 그리고 재미있었거든요.” (사례 16)

(3) 공간개선과 디지털 역량 기반

재단이 아모레퍼시픽과의 파트너십으로 오랫동안 시행해 온 ‘공간개선’ 사업도 현장에서 재개되기를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공간 지원사업을 여기 건물 전체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가 있었어. 그거를 떼고 샤워기를 다는 걸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 아무튼 그게 제일 저희의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 그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고...”(사례 9)

코로나 시기에 진행되었던 디지털 기기 교체 사업도 정례화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이다. 전자기기는 수명이 있고, 이러한 기기는 단체 활동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컴퓨터 등을 교체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성재단에서 받았던 노트북이 이제 수명을 다해 갑니다. [...]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노트북의 수명은 한 5년 정도로 보는 게 맞잖아요. 이제 이 아 이들이 이제 간당간당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사례 9)

4) 사업 절차 및 관리 과정 개선 수요

여성재단은 파트너 단체와의 소통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응원해 주는”(사례 18A)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 활동가는 사업담당자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때 사업의 담당자이신 00 대리님이 저희 파트너 단체를 위해서 카드 손글씨로 이렇게 해서, 00 과장님도 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으셨어요. 그 글이 너무나 저한테 는 마음을 너무 많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진 찍고 되게 오랫동안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됐었어요.” (사례 2)

다만 사업설명회나 선정 후 컨설팅을 통한 가치 공유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업설명회나 컨설팅을 통해 “재단의 배분방향이나 원칙”, 어떤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재단의 배분규모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정된 직후에 세부 계획서 실행 계획서 내기 그 사이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금 이 재단의 배분 방향이나 원칙 뭘 심사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거를 더 물어보고 그거를 파악해서 거

기에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를 맞춰보고 이러는 절차들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 여성 재단은 그런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매년 하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사례 18A)

배분위원들 역시 서류심사만으로는 사업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고 선정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알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사업의 진행과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었겠지만, 선정하고 나서 이후에 진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데, 이걸 상기시켜주는 모티브가 없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 거를 또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걸 심사했던 분들 간에 공유가 좀 필요하다.”(사례 20A)

사업 공모 시기도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현재 절차상 파트너 단체는 11~12월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이 시기는 대부분의 단체가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때여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연초 정기총회에서 한 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체로서는 3월의 선정 발표가 운영 일정과 맞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부담을 안게 된다. 지원단체들은 이러한 일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재단 이사회 일정 변경의 어려움과 사업 수행 기간 축소 우려가 결합되어 일정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기금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쨌든 운영비를 시나 구에서 받았을 경우에 정산을 보통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용을 숙고해서 신청하기에는 너무 바쁜 거예요.”(사례 3)

끝으로 행정·보고 체계의 간소화 요구이다. 여성재단의 행정·회계 절차는 타 기금에 비해 간소한 편이나, 신청서·사업계획서·중간보고·결과보고·월별 활동공유서로 이어지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누적되어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항목 간 중복 기술, 실물 영수증 제출 의무, 회계지침의 산발적 안내 등이 활동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물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필요한 소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사실 아니 체크카드 쓰면은요 그 내용 다 떠요.”(사례 9)

매달 요구되는 활동 보고서도 ‘중간 사업 포기 방지’라는 본래 의도와 달리 ‘관리·통제하는 기관’의 인상을 주어, 재단이 지향하는 ‘동등한 파트너십’과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제3절 소결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변화’와 ‘임팩트 창출’의 관점에서 개별 지원사업들을 재구성한 결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성차별적 언어·인식·문화의 전환, 법·제도·정책의 변화, 변화 주체의 형성과 확장이라는 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재단의 지원사업은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주류 담론을 전복하는 등을 통한 인식 변화의 ‘초기 자원’을 공급하고, 차세대·신생 단체와 당사자를 운동의 주체로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으며, 노동·재생산·디지털·돌봄·기록·국제연대를 가로지르는 의제와 단체를 잇는 ‘연결 노드’로 기능했다. 이런 역할을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인프라(change infrastructure)’로 요약적으로 표현하였다.

제2절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운영상의 쟁점과 현장의 요구를 다층적 행위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는 ‘성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단순한 재정지원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운동의 파트너로 상호 인식하고 있다. 재단의 다층적 행위자들은 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사업의 선정·평가를 책임지는 배분위원과 현장의 사업수행 주체인 파트너 단체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욕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동시에 상호 소통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도 확인되었다. 이는 재단이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기금 규모와 광범위한 지원 수요 사이의 간극이다. 성평등을 위한 기금모금 환경은 열악한 반면, 현장의 지원 수요는 ‘인프라에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며 이는 모두 다층적 여성운동 생태계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기도 하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비효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재단과 파트너단체의 신뢰를 강화하면서 상호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과와 개선과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개선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촉진할 수 있고, 기금 기반의 확충,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 신뢰에 기반한 운영, 그리고 지역·세대·의제의 다양성을 끌어안는 지원 설계는 성평등사회조성 사업이 앞으로도 한국 여성운동의 변화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고유목적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어떠한 환경에서 전개되었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떠한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세 가지 주제 - 여성운동의 변화한 활동 조건, ‘변화 인프라’로서 사업이 거둔 성과, 그리고 자원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 를 중심으로 종합하고, 그것이 사업의 발전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백래시 시대, 여성운동의 변화한 활동 조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 현실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며 기획·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는 사업 설계 자체만이 아니라, 여성운동이 놓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1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주체는 확장되고 활동공간과 이슈 또한 다각화되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법·제도화 운동을 견인해 온 기존의 여성운동단체들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 성과는 여성운동의 국가 의존성 심화와 자율성 약화라는 긴장을 동반하였다. 피해자 지원 및 여성노동자를 위한 활동 등이 국가지원체계로 편입되면서 운동의 일부는 탈정치화되었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정권 교체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활동 기반 자체가 흔들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사례는 ‘제도화의 역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여성운동단체들은 활동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의 토대인 독립적 자원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운동의 주체와 의제가 다변화되었다.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연대, 해시태그 운동, 청년 여성의 대규모 참여는 기존의 조직 중심 운동과 달리 유연성과 확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투운동, 디지털 성폭력 대응운동을 거치며 성평등 의제는 일상적 성차별, 재생산권, 디지털 인권으로 확장되었고, 개인의 경험을 공적 의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중심의 전통적 지원 방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운동 단위에 대한 유연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담론과 반페미니즘 정서의 확산을 촉발하였고, 백래시는 성평등정책의 후퇴로 이어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성평등 관련 예산의 삭감 등은 성평등정책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비교적 손쉽게 개편·축소되는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운동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기금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기존 여성운동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도화의 역설, 새롭게 등장한 운동주체의 활동 방식, 백래시의 정치환경의 변화 등은 모두 여성재단이 여성운동의 ‘버팀목’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변화 인프라’로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거둔 성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정기공모사업으로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25년간 동일한 사업명으로 지속되어 온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이 사업이 기업 CSR이 아닌 시민 개인의 기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여타 배분사업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재단의 공익성과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14년에서 2025년까지 총 212개 세부 지원사업에 약 22억 48만여 원을 배분하였다. 여성운동의 지형과 핵심 의제를 반영하여, 자유주제 공모 외에 지정주제와 신생·차세대 단체 지원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하였다.

양적 성과를 매개로 개별 지원사업들이 만들어 낸 변화를 세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첫째 영역은 성차별적 언어·인식·문화의 전

환이다. ‘몰카’를 ‘디지털 성범죄’로, ‘낙태’를 ‘재생산권’으로, ‘저항 없음’을 ‘동의 여부’로 다시 명명한 작업 등을 통해 보이지 않던 폭력 및 억압구조를 가시화하여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둘째 영역은 법·제도·정책의 변화 기반을 만들었다. 차별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아래로부터의 입증’과 UN CEDAW 등 국제 규범을 활용하는 ‘바깥으로부터의 압박’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가족·지역 거버넌스 영역에서 제도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냈다. 셋째 영역은 변화 주체의 형성과 확장이다. 차세대·신생 단체의 인큐베이팅, 활동가 역량강화, 그리고 이주여성·장애여성·노인여성·성소수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교차적 주체들을 지원하고 페미니즘 운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단순한 사업비 배분의 합이 아니라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인프라(change infrastructure)’를 구성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자원기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운영의 쟁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원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입(Inputs)’ 단계의 자원 기반 약화가 산출과 성과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

사업 규모 축소의 직접적 원인은 기금 조성 환경의 악화이다. 정기 기부보다 일시 기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선호하는 최근의 기부 경향은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성평등사회조성 공모사업의 성격과 어긋난다. 더욱이 백래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기부 동기가 약화되면서, 자유주제 모금은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운영 차원에서도 ‘재단의 운영지침’과 ‘현장의 요구’가 정합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는 쟁점들이 확인되었다. 신청자격을 둘러싸고 ‘지원의 집중’과 ‘운동 의제의 확장’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며,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간 사업의 질적 편차, 선정 단체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지역 불균형, 참신성 및 연구사업

을 둘러싼 배분위원과 현장의 인식 차이 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현재의 프로젝트 중심 지원 방식으로는 여성운동 단체의 보다 근본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의 초점이 ‘사업’에서 ‘사람과 조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쟁점들은 재단과 파트너 단체가 ‘성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단순한 재정지원 관계를 넘어 운동의 파트너로 상호 인식하고 있다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제기된 것이다. 다층적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욕구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상호 소통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사업을 개선하려는 의지 또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운영상의 쟁점들이 대립이 아니라 협력적 재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2절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제언

이 절에서는 더 나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자원기반의 확충,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 기반 강화, 신뢰에 기반한 지원 원칙의 실현, 그리고 사업 구성의 재설계가 그것이다.

1. 자원기반의 확충: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기금 조성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한정된 기금 규모와 광범위한 지원 수요 사이의 간극이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의 기금 규모를 상수로 두고 지원트랙을 다양화하거나 여러 제안 중 시급성의 순위를 따져 선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금 규모 자체를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과감한 기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개인 기부 기반을 다각화하고 중고액 기부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이 주로 소액 다수 개인 기부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고액기부자와 정기기부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모금 환경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모금 자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재단의 홍보 예산과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기업재단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Brave Changes’ 사업은 글로벌 기업재단과의 파트너십이 규모와 기금 사용의 유연성 면에서 기존 사업과 비교하기 어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 확대는 결과적으로 성평등사업조성사업의 내실화와 규모 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활동가의 쉼과 조직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짧은 여행, 긴 호흡’, 공간개선 사업, 디지털 기기 교체 사업 등은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재개 요구가 높은 사업이다. 가시적 성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러한 ‘가치형 지원’은 성평등기금 모금만으로

는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지정기부 등 목적성 CSR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 기반 강화

재단과 파트너 단체, 배분위원회는 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사업의 선정·평가와 현장의 사업 수행 사이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립의 지점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통해 조율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정례화하여 재단의 배분 방향과 원칙, 심사기준, 신규 사업 정보를 재단, 파트너 단체 및 배분위원들과 공유하고, 성과공유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진행과 결과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서류심사만으로는 사업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배분위원의 문제의식과 재단의 방침 및 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나아가 재단이 5~10년 단위의 중장기 ‘성평등사회조성’ 목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배분위원과 공유한다면,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이 한층 분명해질 수 있다.

3. 신뢰에 기반한 지원 원칙의 실현

사업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신뢰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중간보고·결과보고·월별 활동공유서로 이어지는 절차가 파트너 단체의 행정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고 체계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활동가가 행정 잡무에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파트너 단체뿐 아니라 재단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곧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재구성: 연계성과 다층적 설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세부 구성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단의 배분사업이 다각화되는 상황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다른 사업과 분리된 별도 사업으로 기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샬네재단 후원의 ‘Brave Changes’ 사업은 기금 운용 면에서 재단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두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주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과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기획주체의 설정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인 비율 할당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선정 단체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은 단순한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운동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률적 심사기준의 적용을 넘어 ‘지역’을 돌봄·폭력과 같은 하나의 기획주체로 다루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자격을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여성단체’라는 현재의 신청자격은 한국 여성운동을 이끌어 온 여성단체의 역할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돌봄·기후 등으로 의제가 확장되고 온라인 기반의 느슨한 운동 단위가 늘어나는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재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운동 주체와 의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랙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의제와 트랙의 성격에 따라 신청자격을 차등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1년 단위 프로젝트를 넘어 2~3년의 장기적·연속적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가 인건비와 활동 공간 등 조직 운영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록과 아카이빙처럼 장기적 토양을 만드는 ‘가치형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성을 다층화해야 한다. 이는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원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논문, 보고서 >

- 강예원. (2009). 디지털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와 십대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경내. (2025). 낙태죄 폐지 운동을 통해 본 한국 여성운동의 지형의 분화.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경희. (2006).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와 페모크라트의 출현. 여성연구논총, 5, 1-28.
- 김경희 · 신경아. (20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재단.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수아. (2021).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미투가 있다/있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엘리. (2021).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동녘.
- 김혜정 · 송란희. (2023). 정부의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의 기초변화와 2023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지형.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자료집(2023. 12.19).
- 김현정. (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멘인게이지. (2024). 백래시에 맞서기: 멘인게이지 연대의 향후 전략. 워싱턴 DC: MenEngage. 젠더교육플랫폼 효재(역).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2). 활동 아카이브 (2017.9.28.~2021.12.31.).
- 박수영 · 김수진(2015).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 국제개발협력, 2015(2), 91-110.
- 배은경. (2016). 젠더정책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1-45.
- 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14-47.

신경아. (2023).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동녘.

신상숙. (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여성학, 24(1), 83-119.

양현아. (2018).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1, 213-260.

오장미경. (2005).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 16, 8-3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단체 및 네트워크 외. (2024). 대한민국 제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EDAW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자료집(2024. 7. 11).

윤정숙. (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비평, 125, 55-125.

이민주. (2025). 메갈 밥줄 끊기의 역사: 온라인 소비 시장에서의 백래시와 남성 소비자 정치. 한국여성학회(기획).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이인영. (2010). 낙태죄의 문제점과 형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1(2), 139-168.

이혜경(2020). 한국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기록. 한국여성재단(편),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한국여성재단.

이효린. (2025).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플랫폼 대응의 과제는 무엇인가. 연속토론회2 자료집(2025. 6. 27).

장다혜. (2024). 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5(4), 121-168.

주리. (2018). 스쿨미투운동과 청소년의 지위. 여/성이론, (38), 56-64.

참고문헌없음 준비팀. (2017). 참고문헌 없음.

최혜영·정문자. (2017). 평등노동권 확보와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여성노동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 폭력을 넘어 빈곤을 넘어 성평등의 세상으로. 당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한국여성재단(각년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한국여성재단.
- 한정민. (2026).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본 성평등 정책의 공백. 성평등 정책 국회 토론회: ‘새로운 남성성’ 확산을 위한 제안. 한국맨인게이지네트워크 K-MEN ·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 국회의원 정춘생.
- 홍남희.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3(2), 203-246.
- 홍미희. (2020). 한국여성재단, 여성운동의 한 획을 긋다. 한국여성재단(위임),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다. 한국여성재단.
- Anderson, A. A. (2005). The Community Builder’s Approach to Theory of Change: A Practical Guide to Theory Development. New York: ActKnowledge and Aspen Institute Roundtable on Community Change. https://www.theoryofchange.org/pdf/TOC_fac_guide.pdf
- Center for Theory of Change. (2026). Setting Standards for Theory of Change. <https://www.theoryofchange.org/what-is-theory-of-change/> (검색일: 2026. 5. 30.)
- Jung, Kyungja. (2024). “Gender wars” and populist politics in South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04.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77539524000530?via%3Dihub>. (검색일: 2026. 5. 13.)
- Rogers, P. J. (2014). Theory of Change. Methodological Briefs: Impact Evaluation No. 2.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747-theory-of-change-methodological-briefs-impact-evaluation-no-2.html>

< 판결문 >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 신문·방송 자료 >

- 경향신문. (2018. 12. 23.). 사설: 35만 여성의 외침, ‘불편한 용기’ 시위가 남긴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1812232025015#ENT> (검색일: 2025. 5. 8.)
- 연합뉴스. (2026. 3. 5.). 고용상 성차별 피해 권리구제 지원...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4158800530?section=search>
(검색일: 2025. 5. 4.)
- 일다. (2019. 9. 8.). 페미니스트 ACTion! ⑬유니브페미: 총여는 폐지됐지만, 페미니스트들은 2막을 열었다. <https://ildaro.com/8544> (검색일: 2025. 5. 30.)
- jtbc 뉴스룸. (2018. 1. 29.). 인터뷰: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https://www.youtube.com/watch?v=QjHcQhmfIVo> (검색일: 2025. 5. 8.)

< 인터넷 사이트 >

- 고용노동부. (2026). 고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일부 개정.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100318&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 5. 4.)
- 고용노동부. (2026). 공고 : 2026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개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1044&utm_source=chatgpt.com.\(2026.2.24.\)](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1044&utm_source=chatgpt.com.(2026.2.24.)) (검색일: 2026. 5.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디지털 성범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검색일: 2026. 5.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6890>
(검색일: 2026. 5.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2025년 출생 사망 통계(잠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45912&utm_source

=chatgpt.com (검색일: 2026. 5. 4.)

여성노동연대회의. (2025).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개편을 위한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https://www.kwnet.org/59/?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jYWxsl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68226303&t=board>

(검색일: 2026. 5. 4.)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외. (2023).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https://www.kwnet.org/59/?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jYWxsljtzOjQ6InBhZ2UiO2k6MjY7fQ%3D%3D&bmode=view&idx=16442138&t=board>

(검색일: 2026. 5. 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26). 2025년 상담통계. 「정기총회 자료집」,

<https://www.cyber-lion.com/notice/?idx=170168430&bmode=view>

(검색일: 2026. 5. 8.)

OECD. (2025). Digital connectivity expands across the OECD, but rural areas are falling further behind.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7/digital-connectivity-expands-across-the-oecd-but-rural-areas-are-falling-further-behind.html?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 5. 7)